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5년 7월 27일 월요일 제1201호

현대車 8200억원 투입 인도 3공장 내년 건설

年 30만~40만대 생산규모 현지시장·유럽 공략 강화

현대자동차가 내년 상반기에 8200억원(450억 루피)을 투자해 인도에 3공장을 건설한다. 인도 3공장이 지어지면 현지 시장에서의 물량 확대뿐 아니라 유럽 지역의 공략도 강화된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는 인도 3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으며 후보지로는 구자라트·라자스탄·안드라프라데시주(州)가 거론되고 있다.

구자라트 주는 서부 지역으로, 이전부터 현대차의 3공장 건설 지역 물망에 올랐던 곳이다. 현대차는 남동부 지역인 타밀나두 주 첸나이 시(市)에 1·2공장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차가 서부지역에 생산기지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라자스탄 주는 인도 북서부, 안드라프라데시 주는 인도 남동부에 각각 위치해 있다.

서보신 현대차 인도법인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래 시장인 인도에서 현대차는 확장 정책을 취할 것"이라며 "(3공장은) 연간 30만~40만대 생산규모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인도 3공장 착공 시기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인도시장 판매추이



※출처: 현대차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중국 다음의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인도 자동차 시장 규모는 135만1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6.1% 늘었다.

같은 기간 현대차는 인도에서 전년보다 8.0% 증가한 22만4000대를 판매하며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웃돌았다. 이 회사는 올해 인도시장에서 지난해보다 14.6% 성장한 47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현대차의 인도 1·2공장 생산규모는 연간 65만대다. 그러나 이 중 20만대가량은 유럽에 수출되고 있다. 현대차가 인도에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차는 최근 인도에 신형 'i20', 현지 전략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크레타' 등을 출시하며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금호산업 인수전 '보이지 않는 손' 의혹

산은-미래에셋, 채권단 회의 없이 매각가 1조213억 결정
박삼구 회장 자금 범위 넘어선 '시장가 3배' 예상밖 가격
"다른 기업에 재매각 염두… '제3자 입김' 개입" 분석

"주당 5만9000원, 시장에선 왜곡된 가격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호산업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시장의 예상을 깨고 1조213억원의 매각가를 제시하자 나타난 투자은행(IB) 업계의 반응이다. 사실상 주당 5만9000원, 1조213억원은 박 회장 자체 신용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제3자에게 재매각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채권단과 박 회장과의 매각 절차에'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으로 금호산업 인수전이 또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 고위 관계자는 "매각가격 산출과정에서 다른 채권은행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고,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의 금호산업 실사도 완전히 무시했다"며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과 단일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자산운용만이 시장의 예상을 깬 매각가 산정은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충분한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은행이 헐값 매각이라는 우려에 미래에셋에 사실상 매각 전권을 위임했다고 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경영권 프리미엄 30~40%에 또다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최종 거래 가격을 도출한 상황에서 국책은행으로 시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호산업 주당 가치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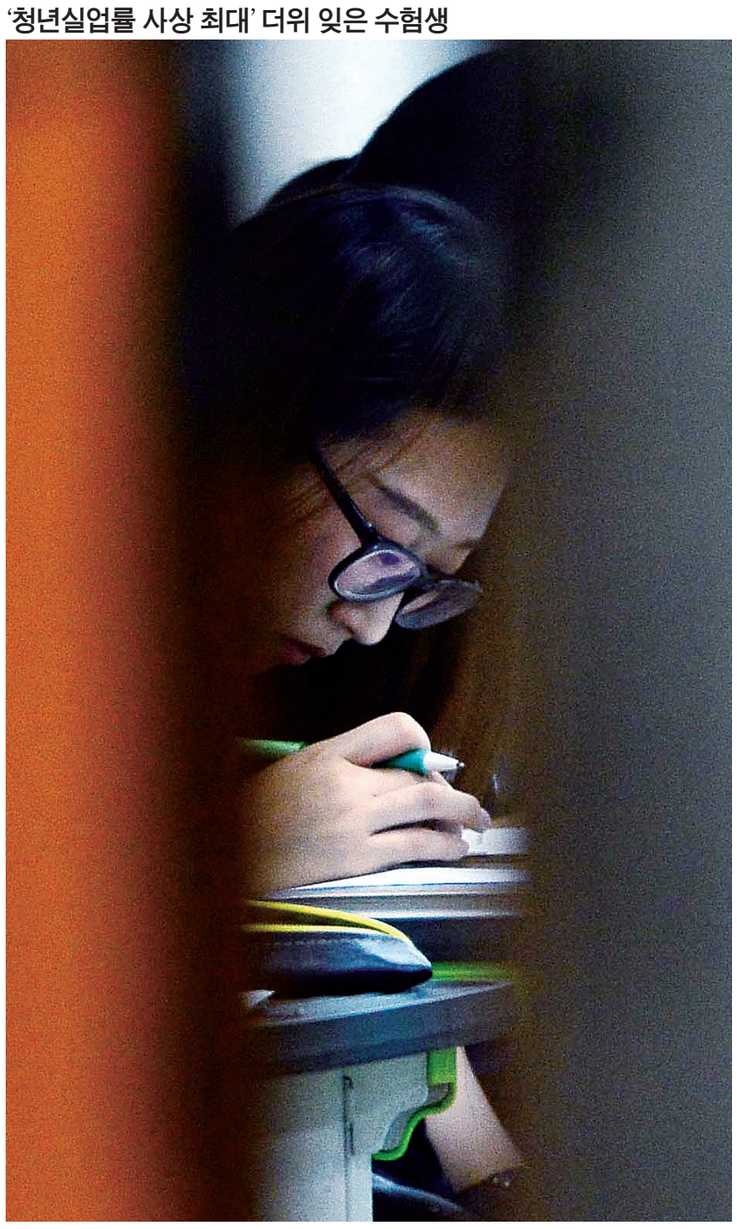
그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입김에 채권단과 박 회장과의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호남에 뿌리를 둔 마지막 대기업이라는 점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어 여전히 다른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 뒷배경이다. 박 회장과 채권단이 연말을 목표로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시장가의 세 배 넘는 가격 제시는 이 같은 전망을 어둡게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금호산업 지분을 8.8% 보유해 단일주주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의결권 기준으로 15%에 해당, 금호산업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 영향력을 미쳤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성진지오텍 지분 매각 특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왜곡된 가격이 불가피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10년 전정도 전 성진지오텍 회장이 포스코에 지분을 넘길 때 지분을 매각했다. 산업은행은 신주인수권부사채 445만여주를 전날 종가인 1만500원보다 싼 9600원에 팔았다. 미래에셋운용은 포스코가 전 전 회장으로부터 성진지오텍 지분을 1만6000원에 인수할 때 이보다 5000원 싼 1만1000원에 매각했다.

안철우 기자 acw@

'청년실업률 사상 최대' 더위 잊은 수험생



청년실업률이 14.5%를 나타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29세 실업자는 41만 명으로 직전 최대치인 2000년 상반기의 40만2500명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27일 오후 청년고용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의 공무원 학원에서 한 수험생이 자습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증권사 M&A 큰장 선다

하반기 대우·LIG·리딩투자·이베스트 등 매물로 '사상 최대'

올 하반기 대우증권을 필두로 증권사들의 인수합병(M&A)이 봇물을 이루면서 증권업계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매각 일정이 확정된 곳은 대우증권, LIG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이다.

KB금융지주는 KB손해보험(옛 LIG손보)의 100% 자회사인 LIG투자증권을 오는 9월 공개 매각을 목표로 현재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를 위해 최근 입찰제안요청서(RFP)를 주요 증권사들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M&A업계 고위 관계자는 "KB금융지주가 LIG투자증권의 지분(82.35%) 매각 가격을 1200억원에서 1500억원 규모로 기대하고 있다"며 "증권업 라이선스를 원하는 금융지주사들이나 핀테크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이 관심을 보일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6월 새 대표를 맞은 리딩투자증권도 최근 딜로이트안진을 매각 자문사로 선정하고 공개 매각 채비를 마친 상태다.

리딩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부터 키스톤PE, 큐캐피탈, 동화홀딩스, 홍콩계 SC로위-유일PE컨소시엄 등 사모펀드(PEF)를 대상으로 잇단 경영권 매각을 시도했다. 그러나 인수 조건이 맞지 않았거나 막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번번이 매각에 실패했다. 지난해 말 중국계 룽밍철강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 4월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증권업계 M&A의 대어로 꼽히는 대우증권도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조속한 매각을 위해 부담요인으로 꼽혔던 KDB캐피탈을 따로 떼고, 대우증권과 KDB운용만 묶어 파는 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은행은 현대증권의 매각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8월이나 9월에 매각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우증권의 주요 잠재 인수 후보군은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중국계 시틱(CITIC)그룹 등이 거론된다.

이 밖에 LS네트웍스와 사모펀드 G&A도 이베스트증권 매각 자문사로 최근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선정하고 매각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아 기자 kakim@

저성장의 그림자

1인당 GDP, 금융위기 이후 첫 감소 가능성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3만 달러 달성은커녕 6년 만에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작년(2만8100달러)보다 낮은 2만7600달러로 예상됐다.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2.6%와 원·달러 평균 환율 1109원,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1.5% 등을 가정한 것이다.

한국의 1인당 GDP 추이를 보면 2008년 2만3102달러로 전년에 비해 줄었다. 이어 2009년(1만8337달러)에도 감소했다.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인당 GDP는 2만8101달러였으며, 올해나 내년에는 3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2%대의 저성장세가 예상된 데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둔화도 지속하고 있다. 또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강(强)달러가 진행되면서 3만 달러 도달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1인당 GDP는 향후에도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전망대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9%로 하락하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7년 뒤인 2023년에야 4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한국은 1995년 처음으로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도달했으며 2006년 2만달러에 진입했으나 이후 10년 가까이 3만달러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2만달러에서 3만달러에 진입하기까지 10년이 걸렸지만 독일과 일본은 각각 5년만에 이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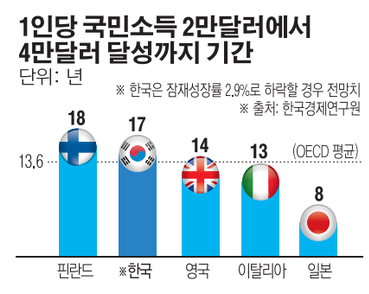
이진영 기자 mint@

'국민소득 4만 달러' 2023년에야 가능할 듯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수준이 높은 7개 국가는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반면 한국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이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은 2009년을 저점으로, 미국은 2010년, 이탈리아는 2012년을 저점으로 각각 반등 추세를 보였다. 이와 달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5년 3.59%에서 2022년 2.9%로 떨어지고 2034년에는 1.91%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4만달러 달성까지 기간



한경연은 저성장 추세는 소득분배와 고용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영 기자 mint@

하루 한생각 自强不息 (자강불식)
스스로 힘쓰며 쉬지 않는 자세
▶ 14면


유인태 의원 ▶4


손교덕 행장 ▶6


경영승계 대해부 ▶16
현대그룹


비즈&비즈 ▶17~20
종횡무진 산업한류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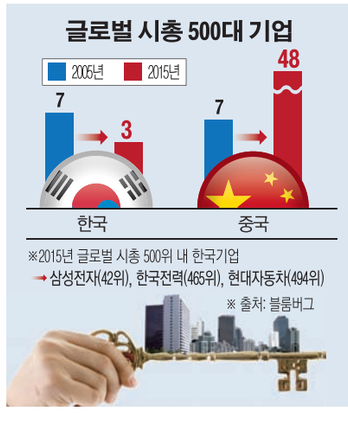
데이터 뉴스 Data News

시총 500대 韓기업 10년새 반토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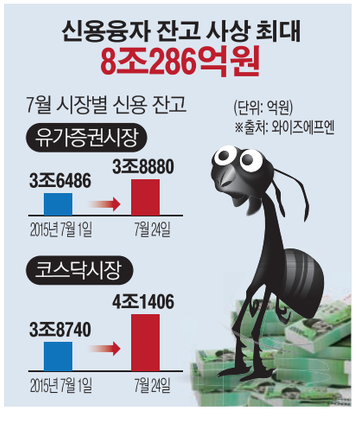
글로벌 시총 500대 기업에 속한 한국 기업의 수가 최근 10년간 반토막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7일 현재 글로벌 시총 500대 기업에 든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42위)와 한국전력(465위), 현대자동차(494위) 등 3곳에 불과하다. 10년 전에는 삼성전자(53위), 한국전력(285위), 현대차(496위) 외에도 포스코(382위), 국민은행(412위), LG디스플레이(448위), SK텔레콤(450위) 등도 순위에 들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글로벌 시총 500대 기업



신용융자 잔고 사상 최대
8조286억원



'빚 내서 주식투자' 8조원 돌파

주식시장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액수가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했다. 증시 활황에 따라 빚을 내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자가 늘어난 것이다. 27일 금융정보업체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의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24일 기준 8조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초 5조원대이던 신용잔고가 3조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신용 잔고는 3조8880억원, 코스닥시장의 신용 잔고는 4조1406억원으로 조사됐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핀테크·인터넷은행 진출 인센티브… 신사업 확장 노린다

증권사 하반기 M&A 큰장

'대우' 자기자본 4조·업계 2위 최대어
KB·신한·한국금융·中시틱 등 눈독
이베스트, 中 궈타이쥔안 유력 후보
중국·일본등 외국계 자본들도 가세
국경 없이 여러 국가 동시공략 셈법

증권사 인수합병(M&A)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매물로 나온 증권사 M&A를 통해 손쉽게 몸집을 불릴 수 있을 뿐더러 핀테크, 인터넷은행 진출 등 인센티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매각에 나서는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LIG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이다.

증권사 M&A의 최대어로 꼽히는 KDB대우증권의 새 주인이 되는 회사가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전망이다. KDB대우증권과의 M&A 성사 시 자산, 시가총액, 매출액 등에서 모두 업계 톱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과 같이 M&A를 통해 업계에서의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을 통합한 뒤 단숨에 자산 1위 증권사로 올라섰다. 올 1분기 매출액 1조9900억원을 기록하며 매출액 부문에서 독보적인 1위 증권사로 자리매김했다.

메리츠종금증권 역시 지난 6월 아이엠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시가총액 기준 증권사 톱5에 이름을 올렸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시가총액은 2조원대 초반에서 6월 말 2조7000억원대까지 증가했다.

또한 국내 증권사 M&A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인터넷은행, 핀테크(Fin-tech) 등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M&A를 검토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발표한 이후 그동안 대형 은행에만 집중돼 있던 금융업에 진출할 통로가 생기면서 기업들은 증권사 인수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심산이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관심을 표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KDB대우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이다. 9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본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미래의 새로운 금융 형태로 꼽히는 핀테크가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며 핀테크 진출을 위한 증권사 M&A도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등 외국계 회사들 역시 국내 증권업 진출을 위한 손쉬운 방법이자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등 현재 이슈가 되는 신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 M&A에 높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분야에 일본계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증권업 분야도 최근 중국, 일본 금융사들이 높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금융시장 진출이라는 단순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 이와 함께 핀테크 등 신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국경 없이 여러 국가를 공략하기 위한 셈법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헤지펀드 투자 완화와 대형 IB 진출 등도 M&A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의 헤지펀드 전담중개업(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부가 헤지펀드에 직접 자기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이유로 다른 부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 중인 헤지펀드에 대한 초기 투자 업무를 PBS사업부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신생 헤지펀드 발굴이 활성화되며 또 다른 증권사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자산 기준 증권사 순위

순위	회사	2015년 3월
1	NH투자증권	39,935,490
2	대우증권주식회사	33,915,254
3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27,665,691
4	삼성증권	27,392,692
5	한국투자증권	26,156,797
6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25,813,125
7	현대증권주식회사	21,887,186
8	대신증권주식회사	17,072,354
9	하나대투증권	15,908,371
10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11,385,804

자본 기준 증권사 순위

순위	회사	2015년 3월
1	NH투자증권	4,428,742
2	대우증권주식회사	4,157,772
3	삼성증권	3,447,095
4	한국투자증권	3,154,446
5	현대증권주식회사	3,130,906
6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2,414,069
7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2,354,826
8	하나대투증권	1,684,193
9	대신증권주식회사	1,629,255
10	키움증권	964,402



달아오른 대우증권 인수전

KB 인수땐 NH투자證 제치고 업계 1위 '지각변동'

우리투자증권 인수 실패이후 절치부심
LIG투자증권 매각착수 사전작업 돌입

하반기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어인 KDB대우증권 인수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KB금융지주가 대우증권을 인수하면 자본금 2위이자 순자산 1위인 NH투자증권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1위 증권사로 도약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KB금융지주는 우리투자증권 인수에 실패한 이후 절치부심하며 이번 인수전에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산업은행은 대우증권 보통주 42%를 보유하고 있다. 대우증권은 1분기 기준 자산총계(4조1979억원)와 자산규모(33조9000억)가 업계 2위다.

대우증권과 함께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산업은행의 자회사는 KDB자산운용과 KDB캐피탈, KDB생명 등이다. 산업은행이 매각하려는 대우증권 지분 1억4048만1383주를 24일 시가(주당 1만5350원)로 계산하면 2조156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6000억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KDB캐피탈까지 묶어서 매각할 경우 잠재 인수 후보자들에겐 부담이다.

이에 산업은행은 현재 흥행을 유도하기 위해 KDB캐피탈을 따로 떼내고, 대우증권과 KDB운용만 묶어 파는 패키지 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우증권의 잠재 인수 후보로는 KB금융지주가 가장 유력하다. 특히 KB금융은 최근 인수한 KB손해보험(옛 LIG손보)의 자회사인 LIG투자증권의 매각을 결정해 사실상 대우증권 인수전을 염두에 둔 사전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KB금융은 조만간 대우증권 인수를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중국의 시틱(CITIC), 한국금융지주 등도 거론된다. 자기자본 4위인 한국투자증권을 거느린 한국금융지주 입장에서도 대우증권을 인수하면 국내에서 독보적인 증권사로 자리매김한다는 메리트가 있다.

M&A업계 관계자는 "가격 부담이 낮아지고 KDB캐피탈이 분리되는 안이 현실화된다면, 그동안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잠재 매수자들이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다"며 "대우증권을 인수하면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의 주인이 되는 만큼 금융권 진출에 관심이 많았던 기업들의 움직임도 관전 포인트"라고 진단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현대증권·아이엠 흡수한 메리츠종금

자본·성장동력 확보 대형IB로 변신 도모

오릭스, 현대증권+로베코 연계 시너지
메리츠종금 2020년 목표 5000억 유증

올 하반기 사상 유례없는 증권사 인수합병(M&A)의 큰 장이 개막하면서 앞서 새 주인을 맞은 현대증권과 몸집을 불린 메리츠종금증권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6월 일본계 사모펀드(PE) 오릭스로 인수된 현대증권은 현재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통상 대주주 승인 심사 기간이 60일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쯤 대주주 변경 승인이 완료돼 업계 최초의 일본계 증권사로 변신한다.

오릭스는 현대증권을 '글로벌 대표 증권사'로 육성시킨다는 중장기적 방침을 내세웠다.

실제 현대증권 새 수장으로 낙점된 김기범 신임 대표 내정자도 증권업계 대표 국제통이자 투자은행(IB) 1세대인 만큼 오릭스의 해외 자회사들과 연계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김 내정자는 현재 인수단을 서울 여의도 모처에 꾸리고 인수 이후 합병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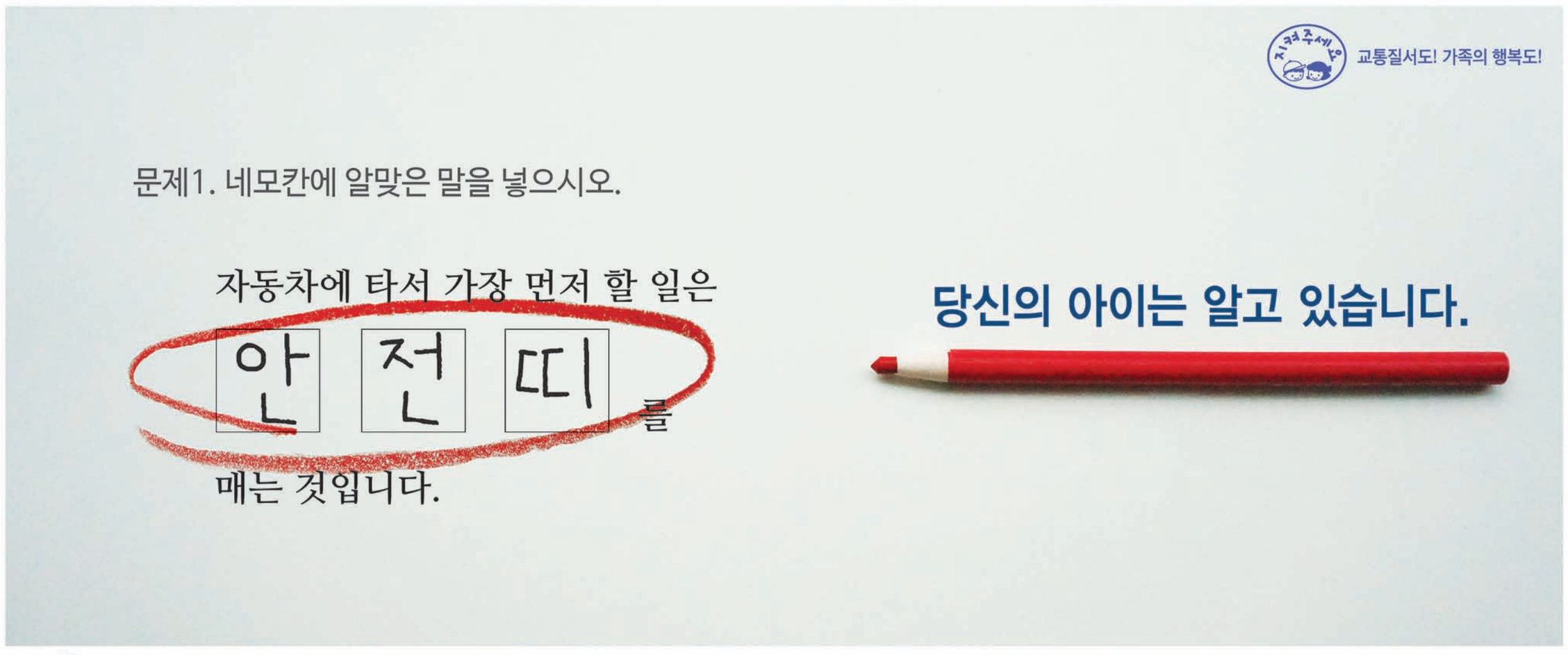
인수단의 고위 관계자는 "네덜란드계 1위 운용사인 로베코와 같이 오릭스가 인수한 해외 유수 자회사들과 현대증권의 시너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로베코는 국내에는 생소하지만 1992년 설립된 네덜란드 1위 운용사로 오릭스가 지난 2013년 인수했다.

한편 아이엠투자증권도 지난 6월 1일자로 메리츠종금증권에 흡수 합병된 이후 대형 IB로의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통합법인의 시가총액은 합병 시너지 기대로 2조5000억원대로 늘어 단숨에 업계 5위권으로 뛰어올랐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대형 IB를 목표로 현재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메리츠의 자기자본 규모는 1조7000억원 수준으로 늘어 기업신용공여 등 종합적인 기업금융(대형 IB)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다가선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이번 증자로 오는 2020년까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메리츠종금증권의 강점인 기업여신, 부동산 금융, 부실채권(NLP)부문과 아이엠투자증권의 트레이딩부문 등을 융합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



임금피크제·고용유연성…"경제 근본 체질개선" 강공모드

노동개혁 핵심 쟁점

노동계	추진 내용	재계
• 기업이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 있고,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보장 없음 • 사용자의 손쉬운 해고 가능	• 취업규칙 변경 기준 가이드라인(임금피크제) • 일반해고 기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 60년 정년 의무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그에 따른 청년 일자리 확대 • 경영 상황을 감안한 인력 적재적소 배치로 효율성 증대



'노동개혁' 설파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옆 한국노총 천막농성장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왼쪽 두 번째 부터 김무성, 김동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합뉴스

"생존 위한 필수전략"… 朴대통령 '노동개혁' 드라이브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대 목표로 노동개혁을 선정한 건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두고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까지 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 유연성 확대 등 두 가지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청와대에 사표를 냈던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을 곧 복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다 빠른 개혁 추진을 위해 시행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도 이인제 의원을 필두로 한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키로 하는 등 당·정·청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노동개혁 특위 이번 주부터 가동
특위 위원장에 이인제 최고위원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도 곧 복귀
당정청, 총선 부담 불구 적극 나서

◇노동개혁 왜 필요한가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2중 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반발하는 건 흔히 말해 '좋은 일자리'를 가진 기득권층이 특혜를 일정 부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퇴직을 앞두고 월급 봉투는 조금 얇아지지만 장점이 더 많다. 주로 대상은 50대다. 이 연령대는 만혼과 맞물려 자녀 교육비 지출이 많고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일자리의 안정성이 더 없이 중요한 때다.

특히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정년이 60세로 상향 조정됐을 때 임금피크제는 기업이 부담 해소 방안으로 '구조조정'을 택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처방전이 될 수 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셈이다.

노동 유연성 확대 방안은 정규직 근로자 해고 요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이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계는 '손쉬운 해고'가 가능해진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과도한 보호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특혜를 줄여 비정규직에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좋은 제도임에 분명하다.

◇노동개혁, 성공 노력이 중요 = 가장 중요한 건 노동개혁의 성사 여부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다른 과제들보다 훨씬 어렵다.

한 언론이 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성과가 낮았던 것으로 '노동개혁'(18.7%), '일자리 창출'(16.5%), '경제 민주화'(12.1%)를 꼽았다.

성과에 떠밀려선 안 되지만 노동개혁은 특성상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학력 격차, 청년·장년·고령층의 세대별로 다른 입장을 어떻게 아우를지가 관건이다.

노사정의 대타협을 통한 개혁이 정석이지만, 필요하면 새누리당 주도로 여론전도 불사해야만 가능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누리당 입장에선 내년 총선이 부담일 수 있지만, 비주류인 대다수 비정규직과 청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의중 기자 zerg@

'노동시장 유연화' 전문가 의견 엇갈려

"고용형태 다양화… 獨 하르츠개혁 성공 본받자"
"비정규직 더 늘어날 것… 임금 체계부터 바꿔야"

당·정·청이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단 당·정·청은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 추진에서 노사정 협상으로 방향을 바꾸고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시도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청이 '삼각편대'를 구축해 노동개혁에 '올인'할수록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편 순항을 위해서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불발 이후 멈춰선 노사정 대화를 재개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정책의지 과잉과 통합적 정책 조율능력 부재가 노사정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 이슈는 입법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업종과 개별 기업 간 차이가 크고 이해조정 과정의 변수가 많은 만큼 궁극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되려면 노동계와 정부 모두 한발짝씩 물러나 대승적인 차원의 양보나 타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에 있어 무게를 두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독일의 경우 하르츠개혁을 통해 미니잡(급여 월 400유로 이하)·미디잡(월 800유로 이하) 허용, 인력파견 활성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고용률 73.8%, 실업률 5.4%를 달성했다"며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다양한 고용 형태를 활성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다른 나라의 개혁 사례를 그대로 표방한다든가 무리하게 적용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배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유연화만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안 되며 더 많은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면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임금체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개혁 아닌 개악… 일방적 밀어붙이기 안돼"

야당·노동계는 강한 반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4대개혁'(공공·교육·금융·노동) 중에서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개혁에 앞장서자 야당과 노동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4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 실패 이후 멈춰선 노동개혁을 해결하고 여기서 얻은 추동력을 바탕으로 나머지 개혁에도 속도를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노동개혁을 통해 '유승민 사퇴' 정국으로 갈라진 당청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이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어 22일 고위당정청회의 직후 당내에 '노동시장 선진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확정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다음 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근로계약 변경·해지 가이드라인 제정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실업급여 등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2차 노동개혁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면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24일 취임 인사차 새누리당 김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 간 협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하며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김 대표는 "억지로 밀어붙일 생각이 없고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노사정위원회라는 대화 테이블이 복원돼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계는 노동개혁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행정지침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의 경우 정치권에 정치권, 정부, 노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논의기구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위를 재가동해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원칙이어서 양측의 입장차를 줄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가계빚 대책은 손놓고 청년고용 총대 멘 기재부

금융위·고용부와 엇박자만 양산

가계부채 근본해법 제시 못한 채
구조개선 정책 연장선상에 불과
금융위에 책임 떠넘겨…역할 미미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본업인 가계부채 문제보다 고용문제에 정책 역량을 소비하면서 부처 간 엇박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대책만 내민 금융위원회와 들러리로 전락한 고용노동부 안팎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나서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근본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기를 겪고도 800조~900조원이던 가계부채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 해 국내총생산(GDP·1500조원)의 70%에 육박하는 규모로 늘어나면서 정부 또한 이 같은 위기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가계부채 대책반장을 맡아 마련했다면서도 정작 기재부의 역할은 극소했다.

결과적으로도 국토부의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외 새로운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 또한 본질적인 가계부채 관리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그간 금융위 등이 밝혀 왔던 가계부채 구조 개선 정책의 연장선상에 불과했다. 일각에선 기재부의 역할은 금융위 등이 대책을 마련하면 가부를 결정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후문이다.

특히 기재부의 역할이 사실상 형식에 그치면서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인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근본 대책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가계부채 책임 또한 이미 금융당국으로 넘어간 양상이다. 한 전문가는 "기재부의 주요 경기부양책인 부동산 정책이 가계부채와 상충하면서 근본 해법을 내놓은 대신 금융위가 그간의 미시정책으로 해결해 보려는 방향으로 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청년 고용에 대한 최근 기재부의 정책행보는 전문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소외시키는 모양새다.

崔부총리 "청년 고용 해소" 언급
중규직·고용복지센터 등 이슈 선점
채용박람회 등 성과 홍보만 열올려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충남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날엔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이 대기업과 우수 중견기업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인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취업할 수 있도록 10만 개의 일자리 경험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교원과 공공기관, 간호인력 분야에 대한 고용 확대 방침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인력의 배치와 전환, 근로계약 해지 관련 가이드라인에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개혁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다시 확인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지난해 고용부가 주도하며 최대 치적으로 평가했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관련 보도조차 슬그머니 기재부의 명의로 끼워넣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4대 구조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기재부의 정책 역량을 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용문제 또한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관련 정책에 앞장서야 할 고용부는 사실상 정책 성과를 기재부에 빼앗긴 데다 그 역할론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중규직' 문제 등 기재부발 간보기 정책 발표의 뒷수습을 해야 했던 고용부의 입장에선 기재부에 치인 '고용정책 2중대'라는 자조적인 불만도 팽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가 최근에도 조세재정연구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고용부와의 별도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며 정책 성과를 홍보해 왔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작 기재부의 뒷심이 필요한 가계부채 해법은 제자리걸음인 와중에 타 부처의 업역으로 생색을 내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원·달러 환율 1170원 넘었다

2012년 6월이후 3년 1개월 만에…장중 1172.5원 거래

원·달러 환율이 3년여 만에 1170원을 돌파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원 오른 1170.0원 개장했다. 이후 오전 9시 14분 현재 4.6원 상승한 달러당 1172.5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2012년 6월 12일(종가 기준: 1170.5원) 이후 3년 1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170원선을 넘어섰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주택 지표 부진으로 강 달러 압력이 주춤해졌으나 외국인 자본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 부진 우려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국 증시 변동성이 재차 커질 경우 환율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환율은 지난 4월 말까지만 해도 달러당 1060원대(4월 29일 종가 1068.6원)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석 달간 상승 가도를 달리며 100원 넘게 급등했다. 미국 연내 금리인상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 수출 부진에 따른 외환당국의 고환율 용인 기조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날 원·달러 환율 예상범위는 1167~1176원이다.

이진영 기자 mint@

가스公, 해외사업 역점 조직개편

기술본부 신설 등 7본부 24처로…이승훈號 본격 출항

한국가스공사가 오는 31일자로 기존 6본부·1원·24처 체제인 회사 조직을 7본부·24처로 바꾼다.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도입 기능을 일괄 연계하고 기술본부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조속한 내부 안정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오는 3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임 1개월을 맞아 정비된 경영체제를 바탕으로 '이승훈號 가스공사'의 본격적 출항을 선언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해외 자원개발과 도입 기능을 일괄 연계한 해외사업 수직통합 △해외 자원개발 기술력 체계화를 위한 기술본부 신설 △수요개발 업무 신설을 통한 영업 기능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엔 이 사장이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강조했듯이 조직 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명확한 목표제시형 조직을 설계하는 등 성과를 중시하겠다는 경영의지가 반영됐다.

가스공사는 우선 자원본부를 해외사업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 도입판매본부에서 맡아 오던 액화천연가스(LNG) 액화플랜트 사업과 중장기 LNG 도입 기능을 이관해 해외 상류 및 중류 자원개발 기능과 도입 기능을 같은 본부 내에서 균형있게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능 중심 조직에서 천연가스사업 밸류 체인(Value Chain)별 비즈니스 중심의 조직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또 해외사업본부 소속은 관리부사장 산하로 편제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해외사업과 재무 간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해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본부별로 산재해 있는 기술조직을 통합해 기술본부를 출범시켰다. 최근의 천연가스 판매 감소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영업본부(기존 도입판매본부)에 신규 수요 개발을 전담하는 팀도 신설했다. 아울러 국내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필수적인 수급관리 기능 강화 차원에서 수요예측 및 단기 LNG 도입 기능을 수급관리처에 일괄 편제했다.



이승훈(맨 오른쪽)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취임 후 생산기지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번 조직개편을 기술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도입분야만의 글로벌 기업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가스산업에서 메이저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조직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가 단순한 천연가스 도입 회사에 머물지 않고 자원개발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세계적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메르스 자가격리자 0
내일 사실상 종식 선언

21일간 추가 확진환자 없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마지막 자가격리자 1명이 27일 0시 격리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됐다.

2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신규 환자가 지난 6일 이후 21일째, 사망자는 12일 이후 14일째 나오지 않고 있다. 메르스 누계 환자 수는 186명, 총 사망자 수는 36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메르스 범정부 대책회의'를 개최해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돼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책본부는 메르스 종식 선언을 신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대책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마지막 환자에게 더 이상 메르스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정된 후 28일(메르스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의 2배)이 지난 시점에 종식을 선언할 전망이다.

메르스 추가 환자는 지난 4일 마지막 환자 확진 이후 21일 동안 발생하지 않고 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마지막 양성 환자 1명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서 더 이상 메르스가 전파될 위험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추가 감염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정부는 메르스 경보 단계를 현재 '심각급 주의 단계'에서 '주의'로 낮춰 완전 종식 때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감염병 방역에 실패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앙·지방 간 공조, 정부와 병원 간 협력 시스템 등을 정비하고, 감염병 치료병원 지정, 지역별 음압시설 확충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메르스 사태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 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WHO 권고에 따른 공식적 '메르스 종식' 선언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때까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이에 따른 경제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 직후 열리는 황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나 늦어도 다음 달 초 추경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미 기자 boomi@

700㎒ '황금주파수' 분배 어떻게



추경호(왼쪽 두번째)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파수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中企 스마트공장 하반기 900개 신규 보급

정부, 추경 등 1500억 투자…연내 1200개로 확대

윤상직 장관, 작년 시범공장 제조혁신 등 성과 점검

정부가 올해 하반기 스마트공장 추가경정 예산 등 1500억원을 투자해 스마트공장 900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저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스마트공장 900개를 보급하는 등 정책 집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까지 스마트공장을 1200개로 늘리고 2017년에는 4000개, 2020년에는 1만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 40억원, 지역투자 보조금 100억원 등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다음달 초부터 정부 예산 450억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투자 각각 100억원과 500억원, 산업은행 정책융자 500억원 등 1500여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이달 말 사업공고를 거쳐 다음달 지원 기업을 선정해 사업에 착수, 올해 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특히 경북(삼성)과 광주(현대) 등 창조경제혁신센터 2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지역 수요에 맞춰 전국 혁신센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2년 1552억 달러에서 2018년 246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 중에 '스마트공장 발전전략'(가칭)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윤상직 장관은 이날 오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성과를 점검하고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인 에이엔텍을 방문했다.

에이엔텍은 세라믹 제품 등을 생산하는 주조업체로 작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했다. 도입 후 생산정보 수집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납기 20% 단축, 원가 15% 절감, 설비 가동률 45%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장관은 "엔저 등 수출여건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스마트 공장을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표준·인증 등을 통해 맞춤형 단계별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칭찬합시다 정두언 의원이 추천한 유인태 의원

"돈이나 표 아닌 신념 좇는 정치인"

사형제 폐지 앞장 높이 평가…私보다 公 앞세워



"괜찮은 정치인이라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처음과 끝이 같으며, 사(私)보다 공(公)을 앞세워야 한다. 유인태 의원이 바로 그렇다."

자주 '괜찮은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해 온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그 모델로 망설임 없이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을 꼽았다. "허위와 가식, 위선이 많은 정치권에서 언행일치, 시종일관, 선공후사하면서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이유다.

정 의원은 "일례로 유인태 의원도 다른 의원들처럼 행사에 와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지만 인사치레를 위한 행사는 절대 가지 않는다"며 "얼굴 내세우려고 인사만 하고 도망갈 행사에 왜 가느냐는 거다. 끝까지 앉아 있을 행사만 간다"고 했다.

유인태 의원이 17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사형 폐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이달초 열었던 기자회견에 정 의원이 함께한 것도, 법안 취지에 대한 동조를 넘어 유 의원에 대한 존경 때문이었다. 유신 시절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던 유 의원이 신념에 따라 사형제 폐지에 앞장서는 모습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사실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는 건 표가 되지도, 돈이 되지도 않는다. 정치인들은 표가 되거나 돈이 되는 걸 좇는데 유 의원은 신념을 좇는다"며 "죽음을 눈앞에 뒀다 살아난 분이라 그런지 도인의 풍모가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든, 국회든 어디서든 '졸기'로 유명한 유 의원의 누명을 벗겨줄 일화도 소개했다. "17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내가 당시 이용섭 행자부 장관에게 '이명박 서울시장에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하니, 이 장관이 수긍하지 않고 계속 반박해 실갱이를 벌였다. 그때 행자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이 자다 말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 무리한 게 맞는데 이 장관은 왜 고집을 부리느냐고."

김미영 기자 bomnal@

'서울썸머세일' 내달 20일까지 연장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격리자가 27일 0시에 격리에서 풀려나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시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쇼핑할인 행사인 '서울썸머세일'을 다음달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명동 거리에 '서울썸머세일'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형사사건 성공보수 계약 무효 판결 이후

"전관 효과 없어지고 수임료 내려갈 것"
"착수금 상승 부작용 법조양극화 초래"

"성공보수 포기 대신 공적 지위 보장"
"돈 없는 사람 변호인 선임 어려워져"

대법원이 '형사 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변호사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수백만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천차만별이었던 성공보수가 사라지게 되면서 착수금이 그만큼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전체적인 수임료가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변호사 업계의 수임료 체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검사 출신이 아닌 보통 변호사의 경우 착수금 200만~500만원을 받고 형사사건을 수임하고, 이후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면 500만~1000만원 정도의 성공보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액수는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당연히 법원과 검찰 출신 변호사인 경우는 성공보수도 그만큼 올라간다. 과거 한 재벌총수가 횡령과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한 고등법원 출신 변호사는 50억원, 대형 로펌에는 100억원 대의 보수를 받기로 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퇴임하자마자 한해에 200억원대 수입을 올려 '전관효과'를 톡톡히 누린 사례도 법조인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사례다.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최성식(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들이 그동안 실질적으로 하는 일 없이 수임료 인플레를 부추겨 변호사 시장의 '명품백' 같은 역할을 했다"고 표현했다.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아 결과가 나쁘면 착수금만 받지만 결과가 좋을 경우 자신들 덕으로 돌리고 거액의 성공보수를 챙기는 일종의 '겜블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변호사들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당사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재판부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믿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포기하는 대신)공적인 지위와 독립성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유명 변호사는 "국민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성공보수였는데, 이번 판결로 착수금만 올라가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앞으로 한꺼번에 거액의 착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돈 있는 사람들은 대형로펌으로, 없는 사람들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공보수가 사라지는 만큼 동기부여가 안돼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변호사가 늘어나 변호사-의뢰인 간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의뢰인 입장에서도 예전보다 큰 돈을 맡기면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불만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좌영길 기자 jyg97@

한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
"혼인관계 파탄 원인 인정"



법원, 2심서 남편 일부승소

남편에게 한 달 용돈 10만원을 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남편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만난 지 7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다. A씨는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모두 B씨에게 갖다줬고 한 달에 10만~20만원씩 용돈만 받으며 생활했다. B씨는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돈 관리를 도맡아 했다. A씨는 용돈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는 점, A씨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되 B씨가 보관하는 A씨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 2800만원만 돌려주라고 명했다.

1심에서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경한→가벼운, 생하였거나→생겼거나,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

한자·일본식 형법 표현 우리말로 쉽게

법무부는 형법의 일본식 단어와 어려운 한문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일수 고려대 교수)는 법제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어학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9일부터 형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1953년 제정된 형법에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輕)한'(가벼운), '심신장애'(정신장애), '생(生)하였거나'(생겼거나),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 '개전(改悛)의'(뉘우치는), '모해(謨害)할'(모함하여 해칠), '공(供)하는'(사용되는) 등이 대표적인 예다.

좌영길 기자 jyg97@

투찰률 제비뽑기로 정하고 들러리 투찰 대가로 금품

폐수시설 입찰담합 7개사 27억 과징금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7개 건설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찰 가격과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한화건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이 2010년 8월 공고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률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정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이 2011년 공고한 '연천 청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 건'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했다.

화성도시공사가 2011년 공고한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입찰 건에서는 한솔이엠이가 낙찰받았다.

한솔이엠이는 낙찰 받으면 한라오엠에스의 공법을 사용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한라오엠에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벽산엔지니어링은 들러리 투찰을 해준 대가로 한솔이엠이로부터 7700만원을 받았다.

2011년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한 '파주시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도 한화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솔이엠이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건설은 한솔이엠이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비용 8000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

"취업시켜줄테니 투자하라" 구직자 울리는 대출사기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강남구의 한 대부업체로부터 취업 조건으로 투자금을 요구받았다. 투자금이 없는 A씨에게 회사 대표는 "3개월간의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제안했다. A씨는 3개월 내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구두 약속과 투자 배당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1100만원을 대출했으나 회사 대표는 그 돈을 갖고 잠적해버렸다.

서울시는 이처럼 채용을 빌미로 회사에 투자금 명목의 대출 알선 후 그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취업 및 투자 빙자 대출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전형적인 취업 금융사기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자 모집 후 취업을 빙자해 신분증, 개인명의통장 등을 제출받아 명의도용 대출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상담원으로 취업을 제안, 투자금 명목의 대출 유도 후 '대출금은 3개월 내에 전액 상환하고 월급 외 배당금까지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직접 대출받은 수천만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바뀌고 있다.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선 제3자가 취업,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요구하는 행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시는 당부했다.

또한 대출알선 및 투자유도 과정을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진행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진, 녹취, 메모 등의 기록을 남겨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euna@




김정태 회장


김한조 행장


김병호 행장


함영주 부행장

김한조·김병호·함영주…하나·외환 통합은행장 3파전 속

김정태 회장 겸직 '새 변수'

존속법인 외환銀 등기이사에

김한조 행장 통합 성과서 약점

61년생 김병호 행장, 다소 젊어

함 부행장 노조 지지 업고 부상

'조기통합' 김정태 회장 역할론

자산 290조원의 메가뱅크를 이끌 하나·외환은행 통합 은행장 후보에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 부행장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특히 김정태 회장의 행장 겸직 방안도 급부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김정태 회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 부행장, 김광식 하나은행 상임감사위원 등 4명을 등기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등기이사는 기존의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합병된다. 이에 따라 감사인 김광식 위원을 제외한 외환은행 등기이사는 모두 통합은행장 후보가 된다.

우선 업계에서는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김병호 하나은행장을 유력후보군으로 꼽고 있다.

우선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33년간 외환은행에서 일한 정통 '외환맨'이다. 기업영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후 외환캐피털 사장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외환은행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다 통합 과정에서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병호 하나은행장은 김승유 회장 시절부터 젊은 CEO로 촉망받던 인물이다. 국제·기획통으로 전략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종준 전 행장 퇴임한 이후 바통을 넘겨받아 하나은행을 무리없이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통합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1961년생으로 현재 은행장 중 가장 나이가 어려 통합은행장으로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력 후보 2명에게 약점이 발견되면서 김정태 회장이 신임하는 함영주 부행장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김 회장과 같은 서울은행 출신인 함 부행장은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데다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올 초에도 하나은행장 후보로 거론된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태 회장의 겸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물리적·화학적 결합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김정태 회장이 선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하나금융은 다음달 7일 주주총회를 거쳐 10일께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통합은행장은 다음달 중순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창조1호 서비스만의 **특별한 혜택**

하나 더 이상 종목 찾을 *걱정 Zero!* — 리서치센터의 포트폴리오 및 각종 리포트만 보면, 관심 종목이 한눈에!

둘 매매타이밍 *고민 NO!* — 스몰캡팀의 추천(제외)종목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발송, 그대로 따라하면 끝!

셋 실시간 종목 *상담서비스* — 관심 종목에 정보가 부족하신 고객님을 위한 맞춤 1:1 종목상담 서비스!

※ 본 내용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서비스 체계에 대한 안내입니다. ※ 당사는 본 서비스 및 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며,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창조1호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3개월 기준으로 예탁자산 300만원 이상 0.5%, 1천만원 이상 0.45%, 5천만원 이상 0.39%를 선취수수료로 적용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3987호(2014.06.20~2015.06.19)

산은캐피탈, SK플라즈마 350억 투자

SK케미칼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유상증자 참여…334만1315주 취득

수익보장·보통주 전환 '주식+채권'형

조달 자금은 경북 안동공장 건설에

산은캐피탈이 SK케미칼 자회사인 SK플라즈마에 350억원을 투자했다. SK케미칼이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투자해 일정 수익률과 향후 상장시 차익을 거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조성한 1000억원 규모의 케이디비씨파라투스 제일호 사모펀드(PEF)는 SK플라즈마가 오는 28일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산은캐피탈은 SK플라즈마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PEF에 350억원을 출자했다.

이번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2만9928원이며 케이티비씨파라투스 제일호 PEF는 SK플라즈마의 기명식 RCPS 334만1315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특히 CRPS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인 일종의 '하이브리드(혼합) 증권'이다.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고, 만기에 상환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상장회사가 상장 했을 경우 매입한 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보통주로 전환해 차익을 올릴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즉 투자금을 상환 받을 권리와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가 동시에 붙어있는 주식이다.

실제로 산은캐피탈이 투자한 SK플라즈마의 CRPS는 발행일로 부터 7년 이후부터 30년째 되는날까지 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또한 발행일로 부터 7년 경과 시점이나 SK플라즈마가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를 하는 날 가운데 먼저 다가오는 날부터 상환기간의 말일 직전 영업일까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산은캐피날 입장에서는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뿐더러 향후 SK플라즈마의 기업공개(IPO)시 상장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SK플라즈마는 이번에 조달된 자금을 경북 안동공장 건설 자금에 투입할 예정이다. SK플라즈마가 신축하는 안동공장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브라질, 중남미 등에 혈액제제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현 기자 nfs0118@

농협금융, 미얀마 소액대출·보험 진출 추진

김용환 회장, 테인세인 대통령 만나

최대 민간은행 요마은행과도 면담


김용환(오른쪽 세번째)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24일(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에 있는 대통령궁을 방문해 테인세인(맨 오른쪽) 대통령 및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NH농협금융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3일에서 25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해 테인세인(Thein Sein) 미얀마 대통령, 민트 흘라잉(Myint Hlaing) 농업관개부장관, 틴 투(Tin Htut) 국가경제자문위원장, 요마그룹(Yoma Group) 등과 만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김 회장은 미얀마 정부와 소액대출 및 보험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 면담에 이어 틴 투 국가경제자문위원장과 만나 미얀마의 경제 및 금융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회장은 또 미얀마 최대 민간은행 중 하나인 요마은행 경영진과도 면담을 진행해 향후 농협금융과 요마그룹의 사업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해 실무 협의채널도 구축했다. 양사는 향후 협의채널을 통해 요마은행의 신전략사업인 소매금융과 모바일금융, 농업금융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미얀마 대통령 면담에는 김용환 회장이외에도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국내 축산기업 CEO 등이 함께 참석했다. 미얀마에서는 기획부 장관, 협동조합부 장관, 농업관개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함께했다. 김우람 기자 hura@

"기초체력 바탕 상반기 성장동력 이어가자"

손교덕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장

울산서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손교덕 경남은행 은행장이 25일 울산대학교 대강당 해송홀에서 열린 '201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전임원과 부점장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남은행

손교덕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장은 "생각의 속도로 실행하는 지행격차(知行隔差) 실천을 통해 스스로 일하는 창의로운 조직문화를 정착 시키자"라고 밝혔다.

손 은행장은 25일 오후 울산대강당에서 은행 전 임원과 부점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BNK금융지주 내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강하고 반듯한 은행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경남은행이 울산에서 경영전략 회의를 연 것은 창립 이래 처음이다.

손 행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해외 신용등급 상향과 상반기 괄목할만한 실적 원동력은 모두가 함께 뛴 덕"이라며"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영업을 통해 계속 체질을 개선하고 기초체력을 튼튼히 해 계속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또 자산 건전성 확보, 핵심 예금 증대, 순이자마진(NIM) 개선, 소매금융 활성화를 통한 하반기 경영목표 달성 의지를 다졌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한 이철수 부행장은 '자산 건전성 확보·핵심 예금 증대·NIM 개선·소매금융 활성화'를 2015년 하반기 핵심 경영전략 방향으로 정했다. 김우람 기자 hura@

KB국민은행 '희망금융플라자' 2년간 상담 7500건

저신용·저소득 계층 위한 '서민금융 강화'

'새희망홀씨' 6월말 기준 1조2817억 달해

KB국민은행이 서민금융을 강화하고 있다.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전용상품은 물론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 서민들의 금융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에 문을 연 KB국민은행 희망금융플라자 누적상담 건수(6월 기준)가 7500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854건(266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KB국민은행은 전국 33곳에 희망금융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고금리 또는 다중채무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취약계층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담당 직원의 상담능력을 기르고 새희망홀씨(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상품)를 이용할 수 없는 고객을 상대로 연계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KB국민은행은 6월말 현재 새희망홀씨 누적 공급액이 1조2817억원에 달한다. 또 △바꿔드림론 4500억원, △대학생·청년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햇살론 214억원, △은행장채 가계대출 채무조정제 1조4793억원을 지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현대자동차그룹 동행어 사전

동행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P148

ㅋ

큰 일을 하는 차

[A great car]

명 1 크기에 상관 없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차

몸집은 작아도 하는 일 만큼은 세상 어떤 것보다 큰 차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자동차를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그룹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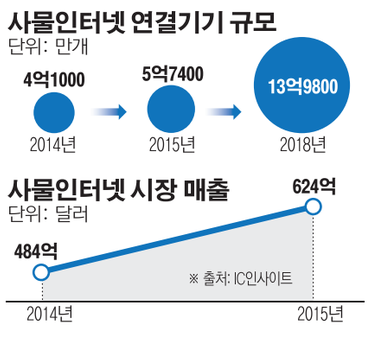
**{ 복지차량 보급, 이동 보조기기 지원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 앞장서는 현대자동차그룹 }**



‘IoT 사업’ 속도 내는 삼성전자

연말 플랫폼 프로토타입 제공

누구나 참여 가능 개방형 개발 웹 언어 ‘자바스크립트’ 기반



삼성전자의 신성장동력 IoT(사물인터넷)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IoT 플랫폼 프로토타입이 올 연말 개발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는 개발자들의 더 편리한 오픈 소스 활용을 위해 세부 수정·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oT 생태계 구축을 위한 IoT 플랫폼 개발은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센터 내 IoT솔루션랩이 주도한다. 4명이 팀을 이뤄 ‘IoT.js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 시작 단계부터 제3의 외부 개발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픈 소스 기반 플랫폼이다. 삼성전자는 IoT.js 프로젝트와 제리스크립트 홈페이지를 열고 개발자들의 참여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IoT 구현의 핵심이 ‘표준 플랫폼 확립’과 ‘호환성 확보’인 만큼, 누구나 쉽게 참여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IoT 플랫폼은 웹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언어를 배울 필요 없이 IoT에 관심 있는 개발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IoT 개발에 최적화된 자바스크립트 엔진 ‘제리스크립트’와 서비스 프레임 워크 ‘노드’를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1년 전이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커지면서 IT 기기, TV, 가전제품, 나아가 모든 사물을 하나로 연결하는 IoT 플랫폼 개발이 시작됐다. IoT가 삼성전자 전 사업부문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된 셈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IoT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IoT 디바이스 간 상호 호환을 돕는 프로토콜 개발 및 플랫폼 표준화 작업에 돌입했다.

삼성전자는 구글이 인수한 네스트랩스가 주도하고 있는 ‘스레드그룹’과 삼성·인텔 주도로 구성된 ‘오픈 인터커넥트 컨소시움(OIC)’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세계 주요 표준화 기관이 공동으로 만든 ‘원엠투엠(one M2M)’ 등 총 3개의 IoT 연합체에 속해 있다. 김지영 기자 gutjy@

제재 줄대기… 이통사 ‘고난의 여름’

메르스·내수 부진으로 미뤘던 방통위 제재안 내달 집행할 듯

‘공짜폰’ SK텔링크·‘단통법 위반’ SKT·‘20%할인 기피’ LGU+

이동통신사에게 올 여름은 ‘고난의 행군’이 될 전망이다. 미뤄뒀던 정부 제재안이 8월에 줄줄이 의결·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첫번째 칼날은 SK텔링크를 향할 예정이다. SK텔링크는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요금 할인을 단말기 지원금인 것처럼 속이고 ‘공짜폰’이라고 안내했다가 방통위에 적발됐다. 총 피해자 수는 2186명에 달하며 회사명을 SK텔레콤이라고 안내받은 경우도 1224건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SK텔링크가 피해자 보상안을 마련하면 이를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제재안 의결을 2주간 미뤘다.

지난 3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일주일 간 영업정지를 처분받은 SK텔레콤에 대한 정확한 제재 시점도 다음달 결정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되, 영업점과 소비자의 피해가 가장 적은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레콤 제재를 5~6월께로 결정하려 했지만, 삼성전자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갤럭시S6’를 출시한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돌발악재까지 겹쳐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재를 미뤄왔다. 유력한 제재시점은 9월 중순이다.

올 8월은 LG유플러스에게 특히나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단계 영업 관련 제재가 기다리고 있고, ‘20% 요금할인’가입을 회피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또 한 차례의 단독조사를 받고 있어서다.

최성준 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불법을 발견했다”며 “LG유플러스 측의 법률적 의견을 들은 뒤 제재를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를 통한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특정 요금제와 기기 선택을 강요하고, 과잉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시 방통위의 단독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 유통점에서 20% 요금할인 가입을 회피한 정황이 드러난 것.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20% 요금할인 가입이 불가하다거나, 공시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거짓 안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KT만 방통위의 칼날을 벗어났다. KT는 황창규 회장 부임 이후 단독 제재는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박성제 기자 psj@

스마트폰 한대에 번호 두개 사용

KT ‘올레 투폰’ 서비스

KT는 스마트폰 한 대로 전화번호 등을 두 개 사용할 수 있는 ‘올레 투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하나의 휴대폰, 하나의 요금제로 2개의 바탕화면과 세컨드 전화번호가 부여되는 ‘올레 투폰’ 서비스는 전화번호 2개를 부여받고, 문자메시지와 주소록, 사진첩은 물론, ‘카카오톡’을 비롯한 앱을 각각 관리하는 부가서비스다.

‘올레 투폰’ 이용 시 번호별로 각각 다른 스마트폰 바탕화면이 부여된다. 그래서 메시지와 주소록, 사진첩, 앱 등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올레 투폰’으로 제공된 세컨드 전화번호는 한 달에 2차례 고객센터나 대리점, 스마트폰 기능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홈쇼핑, 대리운전, 콜택시 등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 적용된다. LG G4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바로 ‘올레 투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주요 스마트폰 모델은 내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KT 측은 “최근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투폰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올레 투폰은 기존 ‘투넘버’ 서비스와 달리, 각 전화번호에서 앱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특허와 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20만원대 스마트 폴더폰 ‘LG 젠틀’



LG전자는 29일 20만원대 스마트 폴더폰 ‘LG 젠틀’을 LG유플러스를 통해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품은 LG전자의 3번째 폴더형 스마트폰으로, 물리 키패드를 적용했으며 주소록·문자·카메라 등의 전용 버튼이 별도로 있어 각 기능을 간편히 실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물리 버튼을 누르는 방법 이외에도 화면의 아이콘을 직접 터치해 사용할 수 있다. 또 LG전자의 직관적인 UX(사용자경험)와 안드로이드 롤리팝 등이 적용됐다. 가격은 20만원대 초반이다.
사진제공 LG전자

HDC신라-한화갤러리아 “시내면세점 연내 오픈”

조기개장 정부 계획에 화답

HDC신라, 2만7400㎡ 규모

관광차량 전용 진입도로 조성

한화갤러리아 ‘럭셔리’ 콘셉트

중소·중견기업 특별관이 34%

15년 만에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딴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내년 초 개점 일정을 당겨 연말 용산과 여의도에 오픈한다고 27일 밝혔다.

두 면세점은 애초 중국 관광객이 몰리는 내년 설 개점 계획을 세웠으나 조기 개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22일 열린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규 시내 면세점의 개점시기를 당초 내년 초에서 올해 말로 앞당기겠다”고 밝히자 이에 화답한 것이다.

현대아이파크몰과 현대산업개발, 호텔신라가 합작한 HDC신라는 8월 중 개점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9월 초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마친 직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로드맵을 공개했다.

개점 준비에서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보세구역·전산시스템 마련은 호텔신라가, 매장 내부 인테리어 보완·공연장·문화관·주변 상가와의 연계 개발·관광 프로그램 개발은 현대아이파크몰이 맡아 협업 형태로 진행한다.

HDC신라는 3~4개월 공사를 거쳐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시범운영을 한 뒤 12월 개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용산역을 품은 현대아이파크몰에 2만7천400㎡로 조성될 HDC신라면세점은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면세점과 용산 전자상가 사이에 관광차량 전용 진입도로와 전용 주차장이 조성되며 이를 위해 3만7600㎡가 별도로 지원된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도 12월 골드바 63빌딩 면세점 개점을 목표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한화는 신규 면세점 특허를 획득하고 나서 곧바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공사, 상품기획, 보세·물류, 마케팅 등 부문별로 운영 계획을 시행 중이다.

63빌딩 지하 1층과 63빌딩 별관 1, 2, 3층을 활용해 1만72㎡로 조성될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현대 럭셔리로의 여행’을 콘셉트로 꾸며진다. 층별 구성을 보면 지하 1층에 럭셔리 부티크·화장품, 지상 1층에 시계·주얼리·전문 샵, 2층에 국산화장품·패션·잡화·담배·주류, 3층에 중소·중견기업 특별관이 들어선다. 4층에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휴식·문화 공간과 미디어 카페인 류(RUE)가 들어선다.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의 전체 면적 중 중소·중견기업 특별관이 3003㎡로 전체의 34%를 차지하며 100개 이상의 브랜드 전용관도 선보인다. 이선애 기자 Lsa@

주방세제 애경 ‘순샘 셰프의 선택’ 주목

간편 설거지·마무리 전용 2종

셰프·주부 아이디어 반영 제조

애경의 프리미엄 주방세제 브랜드 순샘은 ‘설거지도 요리다’라는 셰프들의 철학을 담은 ‘순샘 셰프의 선택’으로 업계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순샘 셰프의 선택은 △조리 중 간편 설거지 △마무리 전용 설거지 등 2종이다. 기존의 주방세제와 달리 조리부터 세정까지의 단계별로 나눠 기능을 강화했다. 요리의 맛은 신선한 재료는 물론 청결한 조리 과정이 좌우한다는 셰프들의 요리 조언을 담았다.

순샘 셰프의 선택 ‘조리 중 간편 설거지’는 음식 조리 중 냄새와 세균이 걱정되는 주방도구에 바로 뿌려 쓰는 스프레이 타입의 주방세제다. 100% 식품 첨가물로 구성돼 세제 잔여물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 제품 분사 3초 후 물로 헹구는 간편한 세정 과정으로 조리시간을 단축하고 즉각 소취 및 항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조리 중 발생하는 식기와 도구의 2차오염을 방지해 ‘맛을 지키는’ 설거지가 가능한 제품이다.

순샘 셰프의 선택 ‘마무리 전용 설거지’는 100% 천연유래 세정성분 주방세제로



설거지 본연의 씻어 내는 기능이 강력하다. 설거지가 까다로운 국, 찌개, 양념 등이 많은 한국형 식단에 맞춰 식기 오염 제거력을 강화했다. 식초 성분이 물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와인 식초 성분이 음식물 냄새를 강력히 잡아준다. 또한 야채 및 과일도 씻을 수 있는 1종 주방세제로 와인 폴리페놀 성분이 설거지하는 소비자의 피부까지 보호해준다.

애경 관계자는 “셰프들이 요리에 앞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기본이 설거지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특히 조리 중 간편 설거지는 맛을 중요시하는 셰프와 주부들이 실제로 요리하고 설거지 하는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담은 제품인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기아차, SUV 라인업 늘려 中 공략

기아자동차가 판매 부진에 빠진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SUV 라인업을 확충하고 대대적인 판촉전에 나선다.

기아차는 중국 시장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라인업을 현재의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대대적인 판매 촉진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대비 0.4% 감소한 143만7000대를 팔았다. 국내시장과 미국 시장에선 RV 판매 호조로 인해 각각 10.7%, 4.6% 판매가 늘었다. 하지만 중국 판매는 소형 SUV인 KX3 신차효과에도 중국 토종업체들의 저가공세와 승용차급 수요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중국 판매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기존 K4 및 KX3와 함께 출시 예정인 K5와 스포티지의 판매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인센티브 확대와 판매망 확충 등 대대적인 판촉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아차는 신차 출시와 판매촉진 등을 앞세워 올해 목표인 315만대 판매를 차질 없이 달성할 방침이다. 다만 하반기에도 신흥국들의 경기 부진과 이종통화 환율 악화,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범근 기자 nova@

YAP, 420억 투자 유치

O2O 커머스 플랫폼 얍(YAP)은 26일 42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했다고 밝혔다.

얍(YAP)컴퍼니는 “홍콩과 중화권 최대 재벌 중 하나인 뉴월드그룹으로부터 한화 220억원 규모(미화 2000만 달러)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며 “최근 연이어 모바일 플랫폼 산업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한 바 있는 DS투자자문그룹과 대성창투,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운영하는 연구개발특구펀드 등이 투자자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외 O2O 업계와 투자기관들과 추가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투자 유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창균 기자 yangck@

백화점 출장에 고객 몰리고 ‘떨이 판매’에 지갑 열렸다

롯데백화점 킨텍스 출장 행사

100만명 입장에 매출 130억

신세계百 해외명품전은 53%↑

국내 백화점들이 메르스와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기획한 주말 할인행사에서 오랜만에 기대를 넘는 실적을 거둬 함박웃음을 보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3~26일 일산 킨텍스 전시장을 빌려 진행한 ‘롯데 블랙 슈퍼쇼’에서 1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당초 목표로 잡았던 60억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나흘간 입장한 쇼핑객만 100만명을 넘어섰다.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열린 할인행사로 많은 인파가 몰리자 이례적으로 킨텍스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됐다. 특히 개장 전부터 많은 쇼핑객이 몰리자 입장하는 데만 30분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다고 백화점측은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고객의 많은 관심 덕분에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이 많은 재고를 소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유통업체의 할인행사에도 인파가 몰렸다.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김포점도 해외 패션 스페셜 세일(22~25일)에서 매출액이 목표치 보다 32% 가량 늘었다. 행사 기간 김포점에는 지난주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15만명이 방문했다. 압구정 본점에서 열린 '해외패션 위크엔드 스페셜' 행사의 24~25일 이틀간 매출은 지난해보다 2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명품대전을 경쟁사보다 보름 일찍 시작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매출(23~25일)은 지난해 보다 53% 증가했다. 40~50대 고객이 많이 방문하면서 마르니, 아르마니 계열의 전통 명품 브랜드 실적이 좋았고, 의류보다 핸드백·구두·샌들 등 잡화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윤철규 기자 yoonck@

한식뷔페부터 홍대·서울역 맛집까지 입성…하반기 최대 격전지로



인천공항 외식대첩

아워홈 '푸드 엠파이어' 문열고 기선제압
CJ푸드빌, 투썸·빕스 이어 비비고도 오픈
SPC, 파리바게뜨 등 33개 매장 입점준비
"한식 글로벌화 시험무대…진검승부 예고"

인천공항을 주무대로 펼쳐지는 외식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올해 1월 인천공항 식음료사업 운영권을 따낸 CJ푸드빌, SPC, 아워홈 등 국내 굴지의 외식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매장을 열면서 하반기 최대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2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먼저 기선 제압에 나선 곳은 아워홈이다. 회사 내 신구 세력의 경영권 다툼으로 보직 해임된 구지은 부사장이 진두지휘한 아워홈의 '푸드 엠파이어'가 지난 15일 문을 열고 영업 중이다. 탑승동과 여객동 두 곳으로 나눠 총 4개 매장에 18개 브랜드, 28개 업장이 들어섰다. 총 4036㎡(1221평)의 면적으로 단일 외식 기업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아워홈은 대표 외식 브랜드 '모짜루나'와 한식 브랜드 '반주'를 여객동에 입점시켰다. 탑승동에는 한식 할랄 푸드 브랜드 'Nimat'을 새롭게 선보였고, QSR존에는 '인천별미', '손수김밥' 등 공항의 특색을 살린 코너를 운영한다.

구 부사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여곡절 끝에 인천공항 상륙작전 1차 성공. 너무나도 힘들게 이룬 것이라서 벅차고 감격스럽다. 아워홈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히는 등 갑작스런 해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무난한 운영을 자신했다.

외식업계 최대 라이벌 CJ푸드빌과 SPC도 자사 브랜드를 사업장에 속속 입점시키며 여행객 잡기에 여념이 없다. 인천공항 1·3층 랜드사이드(Land Side) 1940㎡(587평) 공간을 확보한 CJ푸드빌은 최근 1층 입국장에 '투썸플레이스 Mnet'과 '빕스 익스프레스'의 문을 열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식뷔페 비비고 계절밥상이 빠르면 이번 주내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3층 출국장에도 투썸플레이스 CGV, 투썸커피, 뚜레쥬르 카페 등이 영업을 시작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9월 그랜드 오픈으로 직영 브랜드를 추가 개설할 예정"이라며 "CJ그룹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콘텐츠와 접목하고 공항의 특성을 반영해 여행객들의 인기몰이에 나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CJ푸드빌은 모두 29개의 업장을 입점시킬 계획이다.

SPC그룹의 파리크라상도 3층 에어사이드(Air Side) 입점을 마무리하고 있다. 1967㎡(597평) 공간에 자사 브랜드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라그릴리아, 잠바주스, 커피앳웍스, 파스쿠찌, 스트릿, 빚은, 사누끼보레 등을 준비했고, 향후 33개까지 매장을 채울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9~10월이면 모든 매장의 입점이 완료된다"며 "외국인 관광객 등 여행객들에게 SPC 만의 맛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외식전문기업 아모제푸드가 질소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홍대 맛집 '알래스카 랩'과 서울역의 명물 '서울연인단팥빵' 매장 등이 포함된 '고메 디저트(Gourmet Dessert)'를 오픈했다. 풀무원 계열의 이씨엠디도 지난달 26일 한식 면 전문점 풍경마루와 아메리칸 캐주얼 중식당 '칸지고고'를 개점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무대로 한 외식업체들의 전면전이 시작됐다"며 "수익성이 크지 않지만 한식의 글로벌화에 사력을 다하는 업체들로서는 사력을 다해 진검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작고 세심한 배려 담아 고객 사로잡는다

'마이크로 밸류' 커피업계 새 트렌드

이디야커피, 쥐기 편한 그립 적용한 '이디야워터' 출시
네스카페, 쉬퍼 추가한 보틀…투썸은 안전한 컵뚜껑



독특한 디자인이 눈길을 끌던 시대에서 이제는 심미성에 더해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커피전문점들도 저마다 음료를 담는 용기에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을 적용하며, 마이크로 밸류 마케팅이 커피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27일 이디야커피에 따르면 지난 7월 새롭게 선보인 RTD(Ready To Drink, 음료를 바로 마실 수 있게 포장한 제품) 생수인 이디야워터〈사진〉는 '이디야 그립'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물병 상단부 원두 모양의 홈이 바로 그것. 이디야 워터의 상단부에는 원두 커피 모양의 홈 3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리잡고 있다. 한손으로 물병을 쥐었을 때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홈에 자연스럽게 감기며 안정감 있는 그립감을 선사한다. 이디야 워터의 슬림한 바디와 커피 원두 모양 상단부 디자인은 '이디야 그립'으로 실용신안 등록을 하기도 했다. 이디야 커피 관계자는 "이디야 워터의 슬림한 바디와 커피 원두 모양의 상단부 디자인은 여성 고객이 손에 쥐기에도 편안하다"며 "이디야 워터에 하나부터 열까지 고객 입장에서 고민하는 이디야의 진심을 담았다"고 말했다.

카페네스카페는 지난 3월 모던한 디자인의 보틀을 새롭게 선보였다. 여기에는 쉬퍼(거름망)를 별도로 제작해 보틀에 추가했다. 쉬퍼는 얼음이나 음료가 쏟아지는 것을 막아준다. 여름철,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음료를 즐기기 위해 얼음을 넣는 소비자를 배려한 디자인이란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투썸플레이스는 뜨거운 음료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컵리드를 선보였다. 컵 뚜경은 한 쪽이 솟아오른 입체적인 모양으로 디자인됐다. 뚜껑의 한 쪽 면의 높이는 그대로 두고, 맞은 편의 높이는 컵의 3분의 1 높이로 올려 양쪽의 높이를 다르게 했다. 컵뚜껑에는 두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 원하는 방향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다. 갓 추출한 뜨거운 상태의 커피를 컵 뚜껑의 높은 쪽으로 마시면 음료가 흘러나오면서 공기와 닿아 입에 닿을 때에는 딱 좋은 온도로 식게 된다. 반대로 어느 정도 식은 상태일 때는 낮은 쪽으로 마시게 되면 용기 내에 남은 온기를 보존하면서 마지막까지 따뜻한 상태로 커피를 즐길 수 있다. 화상의 위험 때문에 뜨거운 커피 마시기를 두려워하는 소비자라면 반길 만한 디자인이다. 현재 이 컵뚜껑은 전 세계 39개국에 특허 출원 및 등록되어 있다.

이선애 기자 lsa@

'링게루'라 불리던 링거, 수액의 역사

1959년 국내 첫 선 보인 중외제약, 창립 70돌 맞아 '기록서' 내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중외제약이 '수액(輸液)'의 기록서를 출간했다. 56년 전인 1959년 국내에 수액을 처음 선보인 중외제약은 그간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제약사로선 처음으로 미국 유럽을 포함해 글로벌 영양수액제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수액은 식료품으로 치자면 쌀·라면과 같은 필수품이다. 환자에게 전해질과 수분 및 영양분 보충을 하는 동시에, 항생제·항암제 등 약물을 나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수액의 '수'자가 물 수(水)가 아닌 나를 수(輸)인 이유도 여기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링거'로 알고 있는 수액은 국내에서 어떻게 탄생했을까? 참고로 링거는 이 약품을 최초로 개발한 영국의 의사 '시드니 링거(Sydney Ringer)'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다.

JW중외그룹은 지난 1958년 의료현장의 요청으로 수액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당시 수액은 크게 약액과 유리병 그리고 고무마개가 결합된 단순한 구조로 이뤄져 있었지만, 이 모두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과정이었다. JW중외그룹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1959년 10월 '5% 포도당' 수액제품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면서 수액사업의 기원을 열었다.

그러나 5% 포도당 수액을 개발한 기쁨도 잠시 회사는 수액을 담는 유리병을 수급하는 데 있어 난항을 겪게 된다. 초창기에는 미군이 사용하던 폐병을 회수해 모래·수세미 등으로 닦아 사용했을 정도였다.

이후 유리병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인체에 무해한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40년간 끊임없이 국내외 시장을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그 결과 결국 'Non-PVC 백'이라는 최적의 용기를 찾아냈고, 이 제품은 2004년 국내 최초로 수액백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JW중외그룹은 지난 2013년 7월 미국 제약회사인 박스터와 사상 최대 규모의 3챔버 영양수액에 대한 독점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재 세계 영양수액 시장에서 3분의 1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박스터는 1974년 JW중외그룹이 선진 수액 생산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찾아갔던 곳이기도 하다. 이 수출 계약은 40년 전 찾아갔던 박스터가 JW중외그룹의 제품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JW중외그룹 관계자는 "수액사업을 시작한 이래 50년 넘게 이어온 수액 개발과 생산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인효 기자 kangih@



강남 재건축 'LTE'…강북 재개발은 '2G'

하반기 7개 사업장 시공사 선정
반포 삼호가든3차 등 최대어로
현대·대림·롯데 치열한 수주전
반면 강북 '수색13' 3년째 표류
수익성 떨어져…진행속도 더뎌



하반기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단지

사업명	시공사
서초 삼호가든3차	현대건설
고덕주공3단지	현대건설, 대림산업
개포8단지	현대건설, GS건설
상아 현대 재건축	현대산업개발
둔촌 현대3차(리모델링)	쌍용건설
동대문 이문3구역 재개발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미아9-1 정비사업	진흥기업

※자료 : 각 조합 취합

하반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시공사 선정에 나서며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강북 재개발 단지들은 다소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들어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리모델링 단지 포함) 중 시공사 선정에 나선 단지는 총 7개에 이른다. 서초 삼호가든3차를 비롯해 고덕주공3단지 등 4개 단지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나왔다. 강북 재개발 단지는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과 미아 9-1구역 뿐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시공사를 선정할 때마다 '최대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 만큼 사업수익성이 높아 건설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지난달 20일 시공사를 선정했던 서초 반포 삼호가든3차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롯데건설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일부 강북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관리처분 등의 절차가 끝났음에도 진통을 앓고 있다. 워크아웃 상태인 진흥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한 미아 9-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최근 사업비 대출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상품 발급을 요청했지만 무산돼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현재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총 89개 단지에 이른다. 이들 단지들은 향후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인가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은 만큼 사업추진 속도는 사업성공의 중요한 요소다.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한신15차는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 조합원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탓에 벌써부터 시공사 영업직원들이 조합 사무실을 찾아온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3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던 개포주공4단지는 빠르면 올 8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공사 선정시기 역시 올해 안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다. 이외에 오는 9월에는 사당동 사당3재건축 구역이 시공사를 선정한다.

반면 이보다 일찍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업시행 인가까지 진척을 보이지 않는 단지들이 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수색13구역은 지난 2012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곳 조합원에 따르면 사업시행 인가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강남권의 경우 투자수요가 많아 분양가를 높여도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적다.

실제로 신반포 1차를 재건축해 지난해 3.3㎡당 최고 5000만원에 분양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약 평균 17대 1로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수색 인근 공인중개사는 "수색13구역의 경우 사업성으로 인한 내부적 갈등 등으로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좀처럼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다"며 "투자할 만한 곳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지난해 아현고가도로가 사라진 신촌대로 일대 모습.

고가도로 사라지니 아파트값 고가행진

〈高架〉 〈高價〉

아현·약수동 등 조망권 개선효과
'e편한…신촌' 최고 113대 1 완판
1년새 웃돈 6000만원 붙은 곳도
서대문고가 철거, 인근 수혜 전망

서울의 고가도로가 하나 둘씩 철거되자 주변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원래 고가도로는 자동차 전용의 도로로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지상보다 높게 건너지르게 설치된 도로를 뜻한다. 하지만 과거 개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도심 속 고가도로가 지은 지 수십년이 지나 기능이 퇴색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주변 경관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여론이 조성돼 서울시에서 곳곳에 설치된 이 도로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내에서 철거된 고가도로는 지난 2002년 떡전고가도로를 시작으로 청계고가도로(2003년), 아현·약수고가도로(2014년)를 포함해 17개의 고가도로가 철거됐다. 또 지난 11일에는 44년 만에 서대문 고가도로가 철거에 들어간 상태다. 아울러 구로, 도림, 삼각지, 노들 고가차도도 철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 고가도로 철거는 지금까지 주변 부동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부동산전문가들은 현재 철거중이거나 철거를 검토 중인 곳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경기는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3월 46년된 아현고가가 철거된 이후 서대문구 북아현동, 마포구 아현동 일대의 집값이 상승하고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기도 했다. 불법 주차 차량이 즐비했던 고가 밑으로 8차선대로가 뚫렸고 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는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서 아파트 시세는 물론 인근 상점까지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올해 5월 대림산업이 서대문구 신촌로에 분양한 'e편한세상 신촌'은 조망권을 가로막던 아현고가도로가 철거되면서 평균 경쟁률 10.68대 1, 최고 112.9대 1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또 부동산114 시세에 따르면 인근 '마포래미안푸르지오'도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가격이 최근 7억8000만원 대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입주 당시 7억2000만원대에서 1년도 안돼 6000만원 상승한 것이다.

2010년 8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고가도로 철거 후 인근 '문래자이'아파트는 부동산 침체기에 떨어진 집값을 회복했으며,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청계 벽산아파트'는 지난 2003년 청계천 복원공사 착공 후 2년여 만에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이 외에도 지난해 7월 철거된 약수고가 일대도 주택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내 고가도로가 사라지자 주거여건이 좋아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습효과'의 영향으로 시내 고가 철거 현장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때문에 철거를 앞두거나 철거가 이뤄진 고가 인근 부동산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연락처
7/27 (월)	계약	경기	김포시	구래동	김포한강Aa-2(국민임대) (~7/29)	1600-1004
		부산	사하구	구평동	e편한세상사하2차 (~7/29)	051)961-3300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동공공분양 (~7/29)	02)1600-3456
7/28 (화)	발표	경기	화성시	영천동	동탄2사랑으로부영(A23)	031)898-6034
	계약	경기	김포시	구래동	김포한강Ac-05(공공임대) (~7/31)	1600-1004
7/29 (수)	접수	경기	고양시	원흥동	**고양원흥동일스위트 1순위**	**02)381-0101**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화성송산그린시티휴먼빌(EAA1 B/L) 1순위**	**031)487-3500**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2신도시호반베르디움5차(A49 B/L) 1순위**	**1800-8366**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SKVIEWHills 1순위**	**051)628-1001**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제롯데캐슬&데시앙 1순위**	**051)747-0060**
		세종	세종시	대평동	**세종시3-1생활권신동아파밀리에3차(M3 B/L) 1순위**	**1577-4618**
	발표	경기	화성시	청계동	동탄2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3차(A19 B/L)	1899-5733
		경기	화성시	청계동	동탄2사랑으로부영(A31 B/L)	031)898-6034
	계약	경기	평택시	동삭동	자이더익스프레스1차(1 B/L) (~7/31)	1800-5743
		경기	평택시	동삭동	자이더익스프레스1차(2 B/L) (~7/31)	1800-5743
		경기	하남시	망월동	하남미사A13(국민임대) (~7/31)	1600-1004
7/30 (목)	접수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2신도시호반베르디움5차(A49 B/L) 2순위	1800-8366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SKVIEWHills 2순위	051)628-1001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제롯데캐슬&데시앙 2순위	051)747-0060
		세종	세종시	대평동	세종3-1생활권신동아파밀리에3차(M3 B/L) 2순위	1577-4618
	발표	경기	시흥시	조남동	시흥목감신안인스빌	02)899-9130
		경기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더샵센트럴포레(A23 B/L)	1833-7723
7/31 (금)	발표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의정부민락2A3(국민임대)	1600-1004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유탑유블레스트윈시티	1899-1855

※(주1)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자료=부동산114

7월 마지막 주(27~31일)에는 5300여 가구가 청약에 들어간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9개 사업장에서 5377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동탄2신도시 '호반베르디움5차' 746가구 등 2753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지방은 부산 '대연SKVIEWHills' 1174가구, '연제롯데캐슬&데시앙' 638가구, 세종 '세종시3-1생활권 신동아파밀리에3차' 363가구 등 2624가구로 분양물량이 풍성하다.

박태진 기자 tjpippo@

경북 구미 '형곡 금호어울림 포레' 분양

중소형 평면 237가구 일반공급
주공2 재건축 10년만에 새 물량



금호산업 건설사업부(이하 금호건설)가 구미의 중심지 형곡동에 '형곡 금호어울림 포레'를 분양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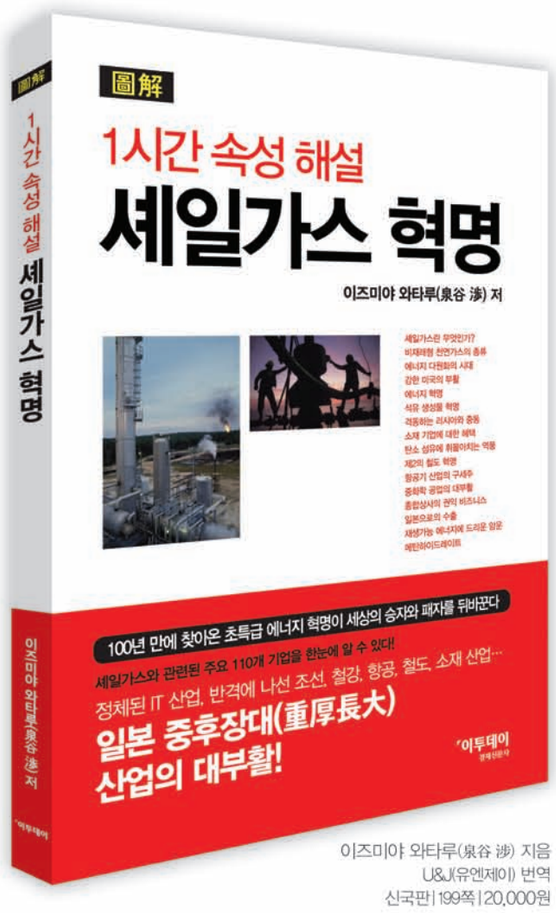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13~20층 6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486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 중소형 평면 237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지난 4월 1순위 청약결과 평균 54대 1로 전 평형 1순위 마감됐다. 특히 19가구가 일반공급된 84㎡A 타입의 경우 16가구 모집에 1676명이 몰려 무려 10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지금까지 구미에서 나온 청약률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형곡 금호어울림 포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각종 요소들을 두루 갖춘 입지다. 이 아파트는 구미에서 가장 주거선호도가 높은 형곡동·송정동 일대에 지난 2005년 분양된 '푸르지오캐슬' 이후 약 10년 만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주공2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해 앞서 분양된 단지들 보다 입지가 더욱 뛰어나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형곡동 일대는 구미에서 교육 환경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 받는 곳으로 이 일대에는 마치 강남 대치동을 연상케 하는 학원가가 이어져 있으며 단지 인근에 각급 학교와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등 다수의 교육관련 시설이 밀집돼 있어 구미의 '강남'으로 불리고 있다.

단지 내에는 숲, 바람, 물을 테마로 플레이존(Play Zone)을 형성하여 자연, 사람, 삶이 어우러진 어울림 단지를 계획했다. 또한 데크를 활용해 주차장은 지하화하고 보행 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 생활환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J(유엔제이) 번역
신국판 | 199쪽 | 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언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싸울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분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푼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 · 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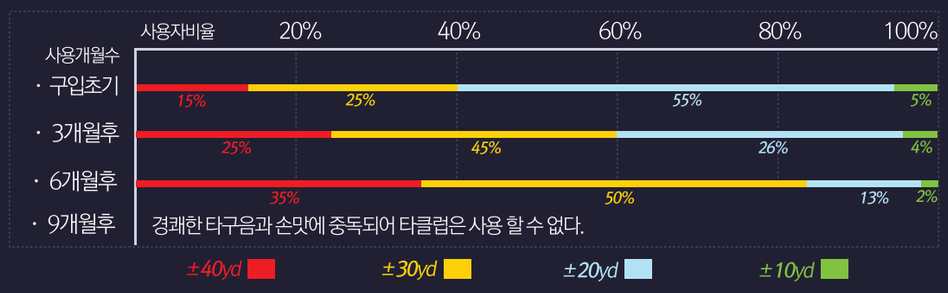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youngsh@etoday.co.kr

BIG BANG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 기술력 - 뱅

평균 +20yd → 익숙해지면 +40yd 더 나간다

익숙해질수록 사용자들의 거리증가 상승률



롱 홀이 아무리 길다 해도

티샷 (드라이버 +30yd) + 세컨샷 (페어웨이우드 +40yd) + 써드샷 (아이언 +40yd) = +110 yd 비거리증가

HOW

세계최고의 고반발 설계기술 0.902 » 0.925 » 0.930 » 0.962 ⊕ 最高價, 最高級 품질, 最高級 성능의 샤프트 소재와 헤드 소재만을 사용 ⊕ 어떤 유형의 골퍼 에게도 잘 맞도록 피팅할 수 있게 다양하게 갖춰진 여러가지 스펙의 샤프트와 헤드,그립 ⊕ 잘 갖춰진 최첨단 스윙 분석 시스템 ⊕ 국내최고 베테랑 스윙분석가 ⊕ 체형분석, 종전사용클럽분석, 스윙분석, 그리고 사용후 교정 ⊕ 차별화된 A/S

30yd 더 나가는 DRIVER

- Low Torque 와 스파인 정확도 99.9%로 방향성이 좋은 드라이버
- 사용자에 따라 무게감을 무겁게 또는 아주 가볍게 피팅 할 수 있는 드라이버

- 반발계수 0.962이하 극극초고반발
-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반발계수를 가진 드라이버

- 반발계수 0.925이하 초고반발 드라이버

- 반발계수 0.930이하 극초고반발 드라이버

40yd 더 나가는 WOOD

- 반발계수 0.902이하 초고반발
- 세계최초이며 세계 유일한 고반발 우드
- 타사 드라이버보다 더 나가는 우드 3번
- 타사 3번우드 보다 더 나가고 치기 쉬운 5번 우드
- 투온이 쉽다!

#3 (15.1°), #4 (18°), #5 (21°)



40yd 더 나가는 하이브리드 IRON (Hybrid WOOD)

아이언이 어려워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치기 쉬운 초고반발 하이브리드 아이언

지금까지 그랬던 것 처럼 여러 모양의 아이언이 유행하고 사라지고를 거듭하며 진화되었습니다. 지금 귀하께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언도 이제 구식 아이언이 됩니다. 만약 지금 하이브리드 우드를 쓰고 있다면 새로 유행할 진화된 아이언을 사용 하시기 시작 한 것입니다.
이미 모든 클럽 회사의 롱 아이언이 하이브리드 아이언으로 바뀌었습니다.

롱아이언 뿐만 아니고 미들 아이언 숏아이언까지 아이언의 성능이 대폭 진화된 하이브리드 아이언에 초고반발 기술을 더한

BANG Longdistance Hybrid IRON #2 ~ #11 / 10개 1Set
낱개구매가능

일반적인 아이언보다

- 비거리가 +40yd 더 나간다.
- 방향성이 훨씬 좋다 – 체적이 커서 스윗스팟이 넓고 빗맞아도 뒤틀리지 않는다.
- 출발 백스핀 1.12배, 착지 백스핀 3.5배 증가. (백스핀이 너무 많아 그루브를 없앴다)
- 뒷땅이 없다.
- 엘보우가 없다.
- 스윙이 쉽고 편하다.
- 세계에서 제일 가볍다. (초경량, 스윙밸런스 B3까지도 가능)
- 벙커샷을 페어웨이에서 어프로치샷 하듯 쉽게 할 수 있는 아이언 11번.

- 전 KPGA 회장 **문홍식 프로**
- 골프방송 해설위원 **박영민 교수**
- 노장불패 골프 프로그램 진행 **양찬국 프로**

비거리가 250~270yd 프로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아이언세트

FunJoy wedge
벙커샷이 쉽다,
백스핀이 많다,

계속되는 진화, 또 하나의 기적

골프업계 4년연속 매출신장율 1위

BIG BANG Longdistance

골프 해설가 75%, KLPGA 시니어투어 62%, 남자 미드 아마추어 상위랭커 다수, 여자 시니어 아마추어 최강자 93% 사용

대표전화 : 1544-8070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3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주의 - BIG BANG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램이 없는것은 모조품입니다.
Made in Japan or Bang Golf Korea Fitting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피어슨, 172년 역사 '이코노미스트'도 판다는데…

〈英 교육·출판 대기업〉

'英 자존심' 경제주간지… 보유 지분 50% 매각 추진
"언론사업 성장 이미 한계… 본사업인 교육에 집중"
지난주 FT 매각 힘입어 올 순익 4년 만에 증가 기대

글로벌 교육·출판 대기업 피어슨그룹이 영국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유서깊은 언론 매체들을 잇따라 시장에 내놓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어슨은 세계적인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를 지난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에 매각한 데 이어 172년 전통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보유 지분 50%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FT가 보도했다.

1843년 창간한 이코노미스트는 유료 독자 수가 160만명에 달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이 해외인 명실상부한 영국 대표 주간지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월 마감한 2014 회계연도에 6000만 파운드(약 108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전년보다 2% 늘어난 수치다.

그럼에도 피어슨은 본업인 교육에 집중하고자 언론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피어슨의 매출 대부분은 북미를 중심으로 한 교육서비스에서 나오고 있다. 피어슨은 북미 교육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브라질과 중국 등 신흥국 교육시장 진출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사실 피어슨이 FT와 이코노미스트 같은 유서깊은 매체를 내놓은 건 언론 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피어슨은 올 상반기 매출이 22억 파운드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고 일부 항목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전년의 4.7펜스에서 4.4펜스로 소폭 줄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창간 시기	1843년 9월
유료독자	160만명 (절반 이상이 해외)
지배구조	지분 50%→ 영국 피어슨그룹 나머지 50%→ • 슈로더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 캐드버리 가문, 아그넬리 가문 • 전현직 이코노미스트 직원
영업이익	2014년 6000만 파운드(1087억원)
편집국장	재니 민턴 베도스 (최초 여성 국장)
특이사항	편집권 독립 위해 신탁관리인 제도 운영

※출처: 파이낸셜타임스(FT)

그러나 피어슨은 FT 매각에 힘입어 올해 전체 순이익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피어슨이 FT 매각으로 6억6000만~7억 파운드를 챙겼다"고 추산했다. 이는 회사가 상반기 FT를 통해 창출한 영업이익이 2400만 파운드였다고 밝힌 것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사실상 FT 매각은 남는 장사였던 셈이다. 피어슨은 또 주당 0.28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당률은 1.48%에 이른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피어슨의 의도대로 매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FT에 관심을 보였던 블룸버그통신과 독일 미디어 재벌 악셀스프링거는 이코노미스트 인수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지배구조 상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경영권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의 지분 나머지 50%는 로스차일드와 슈로더, 캐드버리와 같은 유럽 명문가 등 여러 투자자들이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자동차 명가 피아트 크라이슬러 소유주인 아그넬리 가문도 주요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 이코노미스트 전·현직 직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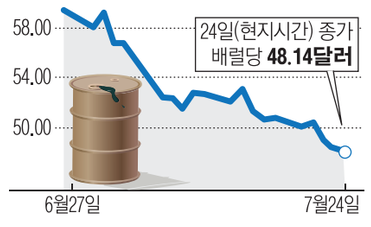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경영과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신탁관리인 제도도 두고 있다. 현재 이코노미스트 이사회 멤버 13명 중 6명에 대해서만 피어슨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 사실 피어슨도 이코노미스트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지난 15년간 노력해왔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심지어 이코노미스트의 웹페이지 상 회사 이력에는 피어슨이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피어슨이 아그넬리와 로스차일드 가문 등 기존 주주들에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WTI 가격 추이

※출처: 블룸버그



低유가 쇼크에… 메이저 정유사들 설비투자 접는다

하반기 계획만 235조원 규모
글로벌 경제회복 악영향 전망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타격을 입은 글로벌 정유사들이 계획했던 신규 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

미국, 유럽, 노르웨이, 호주 등의 글로벌 정유사들이 총 2000억 달러(약 235조원) 규모에 달하는 설비투자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영국 에너지 연구 및 컨설팅업체인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유럽의 로열더치셸과 BP, 미국의 셰브론, 노르웨이의 스타트오일, 호주의 우드사이드페트롤리엄 등 대형 정유업체들이 작년 여름 이후 보류한 석유·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총 4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드맥킨지는 "글로벌 정규사가 지난해 여름부터 보류한 프로젝트에서 개발 가능한 석유와 천연가스는 200억 배럴"이라며 "이는 멕시코의 총 매장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FT는 지속되는 저유가로 정유업체들이 투자자에 대한 배당 지급도 어려워지자 비용 절감으로 선회, 설비투자 계획을 중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FT는 기업들의 이같은 결정이 글로벌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의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 24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0.64% 하락한 배럴당 48.1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3월 31일 이후 최저치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中 이어 美증시까지? 버블 공포 확산

아마존·구글·애플 등 6개사가 S&P500 시총 증가 대부분 차지… 증시 후퇴 전조 현상

미국 증시가 한동안 극심한 변동성으로 세계 투자자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중국 증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올 들어 미국 증시의 상승세에 기여한 업체가 소수에 불과해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고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주식 중개업체 존스트레이딩에 따르면 아마존·구글·애플·페이스북·길리어드사이언스·월트디즈니 등 6개사가 올해 S&P500지수 시가총액 증가분인 1990억 달러(약 233조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위 6개 종목 중 월트디즈니를 제외한 5개 종목에 넷플릭스를 더한 6개 업체가 올 들어 나스닥 시총 증가분인 664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가 상승이 일부 업체에만 집중되면서 증시 전반적인 거래량이 축소되는 것은 증시 후퇴의 전조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2007년과 1990년대 말 버블 붕괴 직전 증시가 정점을 찍었을 때도 소수 업체가 강세장을 견인했다. S&P500지수는 올들어 1%, 나스닥지수는 7.4% 각각 올랐다.

불안한 징조는 또 있다. 나스닥지수에서 오른 종목 수에서 내린 종목 수를 뺀 '등락주선(advance-decline line)'이 최근 마이너스(-) 영역으로 접어든 것이다. 과거 증시가 침체기로 접어들기 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전문가들은 거듭 경고했다.

S&P500지수는 지난 5월 21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나서 지금까지 2.4% 하락한 상태다. 나스닥지수는 지난 20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 2.5% 빠졌다.

사실 미국증시가 지난 2009년 봄 이후 6년이라는 장기 랠리를 지속하면서 버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아직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많은 애널리스트가 상승을 주도하는 일부 업체와 나머지 종목의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을 불안한 눈길로 주시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특히 최근 6년간 증시 강세 중 올해처럼 양극화가 심화한 적은 없었다. 지난 2013년 나스닥지수가 38% 올랐을 때 상위 3종목의 상승 기여분은 17%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S&P500지수는 30% 올랐는데 상위 3종목 기여분은 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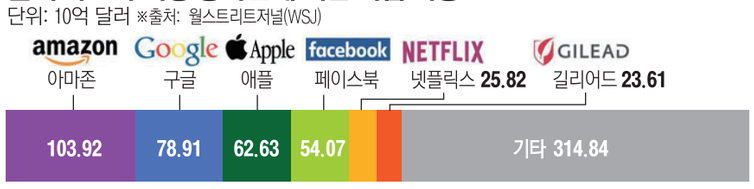
지난해 나스닥지수가 13% 상승하면서 상위 3종목 기여분은 32%, S&P500이 11% 오르면서 상위 3종목 기여분은 16%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상위 3종목의 기여분이 나스닥에서 37%에 달했다.

파이오니어펀드의 존 커레이 포트폴리오매니저는 "이와 비슷한 현상을 1990년대 말 IT버블 당시 목격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다"며 일부 종목의 독주에 경종을 울렸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올해 나스닥 시총 증가분에 대한 기업 비중

단위: 10억 달러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4분기 금리 0.35%" 연준 기밀유출 파문

비공개 경제전망 홈페이지 게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가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경제전망을 홈페이지에 한 달간이나 게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연준은 해당 자료에서 올 4분기 기준금리가 0.35%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연내에 금리인상이 최소 한 차례는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연준은 24일(현지시간) 본래 비공개인 경제전망이 의도하지 않게 연준의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경제전망은 지난달 16~17일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구원들이 독자적으로 예측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연준은 지난달 29일 최신 컴퓨터 코드를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FOMC의 비공개 정보인 연준 연구원의 경제 전망 등 3종류의 파일이 의도하지 않게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선 연준의 감찰관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5년 4분기 연방기금(FF)금리 유도 목표치는 평균 0.35%로 예상된다. 내년과 내후년 4분기에는 금리가 각각 1.26%, 2.12%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연내에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경제전망은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담긴 것은 아니다. FOMC 위원들은 6월 회의 후에 독자적인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지난 8일 나온 경제전망에 따르면 연준의 정책위원 17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전원은 금리인상이 연내 이뤄질 것으로 봤다. 금리인상 횟수는 1차례와 2차례로 의견이 엇갈렸다. 또한 위원 17명은 내년 4분기 기준금리는 평균 1.625%, 2017년 말에는 2.875%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2001년 9월 11일 '악몽의 그날'
백악관 지하 벙커에선…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1년 9·11테러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가운데) 국가안보 보좌관이 딕 체니(오른쪽) 부통령 등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과 함께 백악관 지하 벙커에서 대책을 긴박하게 논의하고 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은 26일(현지시간) 9·11테러 당시 백악관의 모습이 담긴 사진 350여장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번 사진 공개는 미국 다큐멘터리 감독인 콜레트 네이루즈 한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것으로 사진들은 체니 부통령의 전속 사진사인 데이비드 보어러가 9·11 테러 직후 촬영했다.

사진제공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우리도 쉽시다" 주요국 정상들 휴가 계획은?

메르켈 獨 총리, 페스티벌서 의자 주저앉아 졸도 해프닝
오바마 美 대통령은 내달 '마사의 바인야드' 찾을 예정

바야흐로 바캉스 시즌을 맞아 격무에 시달려온 각국 정상들의 휴가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된 정상은 그리스 사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다. 메르켈 총리는 휴가 때마다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인물로 이미 유명하다. 2013년에는 이탈리아 섬에서 원피스 수영복 차림으로 남편 요아힘 자우어와 함께 있는 사진이 파파라치들에 의해 공개돼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작년 1월 스위스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부상을 당한 메르켈 총리는 이번엔 '졸도 해프닝'을 겪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에서 열린 '바그너 페스티벌'에 참석하던 중 착석한 의자와 함께 주저앉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최근 스트레스와 탈수 증세를 보였던 메르켈 총리가 졸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의자가 주저앉아 생긴 일이며 혼졸 기사는 오보"라고 해명하고 나서 건강 우려설을 일축했다.

'아버지의 나라' 케냐 방문 일정을 마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도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섬인 마사의 바인야드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다음 달 중에 마사의 바인야드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바인야드의 호화 별장은 시가가 2250만 달러(약 263억3400만원)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에서 값비싼 휴양지 중 한 곳인 마사의 바인야드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이 저택은 6개 침실, 풀장, 헬스장 등을 갖췄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율리시즈 S. 그랜트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여름휴가를 즐겼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곳을 즐겨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불편한' 휴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수행원 1000명과 함께 프랑스 남부 리비에라 해변을 찾은 살만 국왕은 3주간의 휴가 기간에 주변 지역에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시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부터 닷새 동안 여름휴가를 갖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쉬며 틈틈이 국정 현안을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희 기자 jhsseo@





지난 2013년 4월 이탈리아섬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수영복 차림으로 남편 요아힘 자우어와 휴가를 보내고 있는 모습(위 사진)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AP통신·AP/뉴시스

주식회사 중국 "해외기술 확보하라"

GSR벤처스, 50억 달러 자금 확보

중국 기업들이 해외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벤처캐피털인 GSR벤처스가 해외 정보기술(IT) 기업 인수를 위해 50억 달러(약 5조8520억원)의 펀드를 조성했다고 2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GSR벤처스는 확보한 자금으로 현재 중국 시장의 핵심인 기술, 인터넷, 생명공학 부문에서의 세계적인 기업 인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WSJ는 전했다.

지난 2004년 중국의 IT 전문가가 설립한 GSR벤처스는 올 3월 네덜란드 전기업체인 필립스의 조명사업부 지분 80.1%를 28억 달러에 사들인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필립스는 성명을 통해 고스페일캐피털에 조명 사업부 80.1%를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스페일캐피털은 GSR벤처스와 미국 오크인베스트먼트 파트너가 출자해 만든 투자 펀드다.

WSJ는 GSR벤처스의 이번 자금 확보는 중국 당국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기업들 해외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첨단기술을 직접 보유하고자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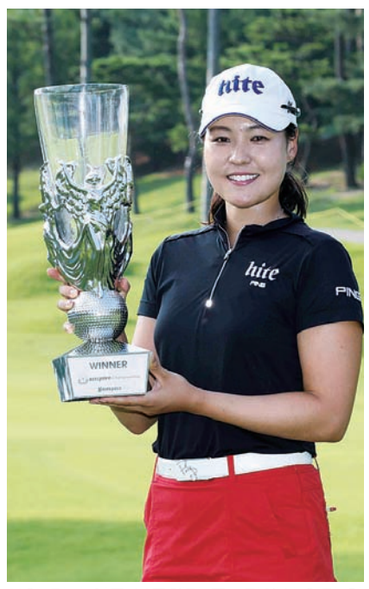
신문은 중국이 자동차, 휴대전화 부문에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첨단 자동차 기술과 반도체 관련 기술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IT 기업 인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한 시즌 韓·美·日 메이저 대회 첫 석권한 전인지

브리티시 오픈까지… 4대 투어 제패 도전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우승
지난 5월 JLPGA 살롱파스컵
US여자오픈 이은 대기록 행진
"목표보다는… 현실에 충실"



26일 경기 여주 블루헤런 골프장에서 열린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인지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인지는 단일시즌 한국, 미국, 일본 여자프로골프 메이저대회 우승을 달성했다. 사진제공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아버지, 골프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미·일 3국 메이저 대회를 석권한 전인지(21·하이트진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평소 표현이 없던 전인지였기에 더욱 감동이었다.

전인지는 26일 경기 여주의 블루헤런 골프장(파72·6763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8억원, 우승상금 1억6000만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전인지는 한국과 미국, 일본 메이저 대회를 한 시즌에 전부 우승하는 진기록을 달성했다. 전 세계를 통틀어 한·미·일 3국 메이지 대회를 한 시즌에 전부 우승한 선수는 전인지가 처음이다. 지난 5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살롱파스컵에서 우승한 전인지는 이달 들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과 KLPGA투어 메이저 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을 차례로 석권하며 대기록을 완성했다.

경기를 마친 전인지는 "날씨가 굉장히 덥고 습해서 플레이하는 내내 땀이 났다"며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응원해 주신 갤러리 덕분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결코 쉽지 않은 경기였다. 4년 전 아마추어 신분으로 출전했을 당시 우승 문턱에서 좌절한 기억이 있기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전인지는 "블루헤런 골프장은 한홀 한홀이 어렵다"며 "4년 전 국가대표로 참가했을 때도 16번홀에서 실수가 있었던 만큼 긴장을 많이 했지만 즐기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기록을 수립한 전인지지만 또 다른 대기록을 위해 영국으로 떠났다. 3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브리티시 여자오픈 출전 때문이다. 만약 이 대회마저 우승한다면 한·미·일 3국 메이저 대회에 이어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까지 석권, 세계 4대 투어 메이저 대회 우승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전인지는 마음을 비우고 플레이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브리티시 여자오픈 출전에 앞서 메인 스폰서 대회에서 우승해 기쁘다. 좋은 기운을 가지고 가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는 "다른 목표를 세우진 않았다. 작은 어깨 통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건강하다. 즐겁게 선수 생활을 하는 것에 감사하다"며 현실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전인지는 또 "자만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할 생각이다"라며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golf5@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금호아시아나, 오는 29일 아름다운 로비음악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9일 저녁 6시 15분부터 서울 광화문 사옥 1층 로비에서 7월의 '아름다운 로비음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음악회 모습. 사진제공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9일 오후 6시 15분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사옥 1층 로비에서 문화가 있는 날 '아름다운 로비음악회'를 개최한다.

7월의 아름다운 로비음악회에서는 대금 연주자 서유석, 해금 연주자 고윤진, 거문고 연주자 최진영, 보컬 박경진으로 구성된 퓨전 국악그룹 '동화'가 무대에 올라 약 한 시간 동안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사랑가'와 '진도아리랑' 등 전통 판소리를 포함해 '낮잠, 한가로운 오후'와 같은 퓨전 국악 창작곡으로 구성된 우리 음악을 선보인다.

아름다운 로비음악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들이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는 사업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동참하면서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14차례 열렸던 아름다운 로비음악회는 금호아시아나 임직원 외에도 퇴근길의 주변 직장인들,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코오롱 엑스텐보이즈 "양궁 꿈나무 키워요"

초·중 대상 양궁교실 무료 개최


양궁 리커브 종목 세계랭킹 1위 이승윤 선수가 지난 25일 개최된 코오롱 꿈나무 양궁교실에 참가, 학생의 활쏘기 체험을 도와주고 있다. 사진제공 코오롱

코오롱그룹의 양궁팀 '엑스텐보이즈'가 양궁 꿈나무들을 위한 재능기부에 나섰다.

코오롱은 자사가 운영 중인 양궁팀 '엑스텐보이즈'가 지난 25일 경기도 안산시 코오롱 양궁장에서 초중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코오롱 꿈나무 양궁교실'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코오롱 꿈나무 양궁교실은 양궁 이론 강의, 활쏘기 시범, 활쏘기 체험, 미니게임과 기념촬영, 선수 사인회 등으로 진행됐다. 코오롱 서오석 감독과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3관왕을 달성한 세계 랭킹 1위 이승윤 선수,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창환 선수 등 코오롱 소속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한 재능기부에 동참했다.

이날 양궁교실에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25명의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함께 참여했다.

'코오롱 꿈나무 양궁교실'은 학생들이 직접 양궁을 체험하면서 양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양궁의 저변을 확대할 목적으로 열리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코오롱 양궁팀 '엑스텐보이즈(X10 Boy'z)' 창단 이후 매년 여름에 무료로 진행해오고 있다.

유지만 기자 redpill@



KB금융 청춘 남여 직원들이 지난 24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가평 글램핑장에서 개최된 '두근두근 KB하모니'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B금융

KB금융, 계열사 미혼남녀 크로스미팅

50명 참석… 8쌍 커플 맺어

KB금융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계열사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크로스미팅 '두근두근 KB 하모니'를 개최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글램핑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지주사를 비롯해 12개 계열사 직원 공모를 통해 선발된 미혼남녀 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KB의 새 식구가 된 KB손해보험 직원들과 KB스타즈 배구단의 신승준 선수, 농구단의 김가은 선수도 참여해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화합(1부), 소통(2부), 사랑(3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에는 전문 연애컨설턴트의 연애특강, 화합을 위한 팀빌딩 및 레크리에이션, 서로를 알아가는 단체 및 개별 대화, 디너토크 등의 시간이 이어졌으며 둘째 날에는 힐링 체조 및 대망의 커플 매칭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각 계열사별로 고르게 8쌍의 커플이 맺어졌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이달의 기능한국인' 지씨테크 김종련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숙련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지씨테크 김종련(57) 대표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선박기계 분야에서 41년간 한 길을 걸은 전문 기술인으로, 선박용 고급 기술들을 국산화해 선박건조 업체들에게 공급하고, 국내 대기업과의 선박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자문을 통해 중공업 산업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지씨테크는 연매출 129억원, 직원 26명의 알짜 강소기업이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사들이 주 거래처다.

김 대표는 "현실적 장벽이 많았지만 우리나라 선박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내 기술을 적용한 첫 배가 출항했을 때 그리고 고급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을 때 보람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故 백남준의 동반자' 구보타 시게코 여사 별세



백남준의 부인 구보타 시게코〈사진〉 여사가 별세했다.

백남준아트센터에 따르면,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부인 구보타 시게코 여사가 향년 78세로 미국 뉴욕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별세했다. 그녀는 암 투병을 하다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보타 여사는 일본 도쿄교육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한 뒤 국제적 전위예술운동 '플럭서스'에 관여했다. 1963년 일본 도쿄 소게쓰회관에서 퍼포먼스를 하던 백남준을 처음 만났고 그의 재능에 매료됐다.

구보타 여사는 이후 뉴욕으로 건너가 백남준과 함께 비디오 아티스트로 활동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입양 앞둔 영유아 위해 손수건 만들어요"

대우인터 'TWO+GATHER'
임직원 1000여명 캠페인 참가



대우인터 임직원들이 24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영유아들을 위한 'TWO+GATHER' 봉사 캠페인에 참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인터내셔널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영유아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24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입양 대기 중인 영유아를 위한 '투+개더(TWO+GATER)'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바느질을 통해 신생아 가제손수건을 만들면 수혜 영유아에게 분유 한 캔을 함께 기부할 수 있는 캠페인이다.

캠페인에는 1000여명의 대우인터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만든 가제손수건을 포함해 분유, 여름내복 등으로 구성된 300세트의 선물상자를 제작했다.

대우인터 임직원들이 제작한 선물상자는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8월 초 서울지역 영유아 3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대우인터 관계자는 "인천지역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복지관 재활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만 기자 redpill@

인사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충북도 부교육감 정병걸 △전남도 부교육감 선태무 △국립국제교육원장 김광호

◆통일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 강종석 〈과장급 전보〉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장 최영준 △통일정책실 이산가족과장 하무진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장 서정배 △교류협력국 인도개발협력과장 손송희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제도개선팀장 최병환 △남북회담본부 회담3과장 윤현중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장 배윤수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소봉석 △통일교육원 지원관리과장 김정노

◆행정자치부 ◇국장급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과장급 △감사담당관 문금주 △협업행정과장 서주현 △주민과장 황상규 △주소정책과장 김종한

◆보건복지부 〈국장 승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강완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이도영 △공무원노사관계과장 강운경

◆국립중앙과학관 〈과(팀)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김동섭 △시설창조관리과장 정동찬 △교육문화과장 이동방 △전시기획과 전시관운영팀장 윤용현 △경영기획과 홍보마케팅팀장 김승주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서장 전보〉 △비서실장 박창기 △감사실장 김선태 △운영지원실장 조정권 △고객행복실장 신동식 △기획조정실장 김창철 △미래전략실장 김성규 △정보관리실장 박상기 △재도약성장처장 이은성 △리스크관리처장 이용석 △창업기술처장 김성환 △중소기업연수원장 황영삼 △부산경남연수원장 김종오 △글로벌리더십연수원장 김병호 △청년창업사관학교장 최원우 △수도권경영관리실장 박윤식 △서울북부지부장 배동식 △인천지역본부장 정연모 △인천서부지부장 박종근 △경기동부지부장 김이원 △강원영동지부장 이명수 △서부권경영관리실장 정태식 △충남지역본부장 정상봉 △충북지역본부장 우영환 △전북지역본부장 전원찬 △전북서부지부장 최규흥 △광주지역본부장 이태연 △전남지역본부장 김형수 △전남동부지부장 이종철 △제주지역본부장 진성한 △대구지역본부장 김대규 △경북동부지부장 김종기 △경북남부지부장 홍병진 △울산지역본부장 김상만 △경남서부지부장 박충환 〈팀·부장급 전보〉 △감사실 이찬호 △운영지원실 박정근 △고객행복실 황성익 △미래전략실 조남준 전봉준 정지창 △기업진단처 송진수 △기업금융처 류치문 박미정 △글로벌사업처 김언태 유명수 전상규 △인력개발처 김춘근 △중소기업연수원 소재은 여재호 △호남연수원 장조영 △청년창업사관학교 배경화 △수도권경영관리실 정천기 이상훈 △서울동남부지부 김률성 △서울북부지부 윤영헌 △경기지역본부 이상열 △서부권경영관리실 이태성 △충남지역본부 이병철 정동호 △충북지역본부 조성민 △광주지역본부 이수형 김권호 전용호 △전남지역본부 이준석 △전남동부지부 이병필 △동부권경영관리실 김지훈 △경북지역본부 안상근 △부산지역본부 김용주 △울산지역본부 정재욱 박효철

◆서울대치과병원 △진료처장 금기연 △기획조정실장 명훈 △교육역량개발실장 권호범 △홍보실장 현홍근 △교육역량개발실 교육담당 구기태

◆서울신문 △사업단장 허남주 △경영기획실장 송종길 △편집국 부국장 겸 선임기자 이상훈 △편집국 사회2부장 문소영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이동구 △독자서비스국 기획위원 백필현 △온라인뉴스국 전문기자 이명선

◆한겨레신문 △편집국 탐사기획팀장 고나무

부음

▲박기동(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씨 장모상 = 26일,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층 대특실, 발인 28일, 053-650-4444

▲강일순(고 이정현 애국지사 부인) 별세, 이원혁(TV유니온 대표)·원숙(주부)·순자(주부)·애리(전 SC은행 상무대우) 모친상, 이기동(동국대 석좌교수)·조성실(상지무역 대표)·정연철(분당안과 원장) 장모상= 2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8일, 02-2258-5940

▲김영준(한화건설 상무) 별세, 손명희 남편상, 김형진 부친상 = 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02-3010-2262

▲김재중(기획재정부 사무관)·지현(이마트 근무) 부친상 = 26일, 대구 경북대병원, 발인 28일, 053-200-6464

▲민선중(전 서광주세무서장) 별세, 태홍(광주보건대 근무)·정아(금호타이어 과장) 부친상, 나철희(금호아시아나그룹 과장) 장인상, 박현희(영암군청 근무) 시부상 = 26일, 광주무등장례시장, 발인 28일, 062-515-4488

▲김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환주(KBS LA 특파원) 모친상 = 2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8일, 02-2258-5940

현대車, 교통사고 유자녀 위한 진로 멘토링

'세잎클로버 찾기 캠프' 개최


지난 23일부터 열린 '세잎클로버 찾기 캠프'에서 중·고등학생 유자녀 80명과 대학생 멘토 80명이 진행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통사고 유자녀들의 꿈 찾기 지원에 앞장선다.

현대차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간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파주 캠퍼스에서 교통사고 유자녀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인 '세잎클로버 찾기 캠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중·고등학생 유자녀 80명과 대학생 멘토 80명 등이 참가했다.

현대차는 교통사고 유자녀들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2005년 세잎클로버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사단법인 더나은세상과 파트너십을 맺고 대학생 1:1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 중이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1300명이 넘는 교통사고 유자녀를 도왔다.

지난달 말 선발된 대학생 멘토 80명은 멘토링 활동에 앞서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간 사전 교육을 마쳤다. 교육 중 현대차 임직원이 동참해 대학생 멘토의 활동을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범근 기자 nova@



공병호의 독서산책

마테오 모텔리니 '경제는 감정으로 움직인다'

돈을 투자하는 상황이 되면 기대하는 것보다 합리적이지 않게 된다. 분노, 시샘, 불쾌감 등과 같은 감정이 이성을 압도해버려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고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밀라노의 산라파엘 대학 교수인 마테오 모텔리니의 '경제는 감정으로 움직인다'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 이 책은 △당신이 휘둘리는 이유 △경제에 먹히지 않으려면 △경제를 움직이는 감정의 힘으로 구성된다. 실용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장부터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에 먹히지 않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감정에 의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투자 결정에서 실수를 피하는 6가지 조언이 담겨 있다. 리스크를 정확히 읽어라. 통계 마인드를 키워라. 알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경험의 훼방을 피하라. 투자의 흔한 심리학에 빠지지 마라. 피크-엔드의 법칙.

예를 들어,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을 표시할 때 '1퍼센트'와 '100명 중 1명'은 결국 같은 이야기다. 그러나 확률이 퍼센트로 표시되면 감정에 직접 닿지가 않아서 위험도가 약하게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한쪽에는 '두 개 가격에 세 개'라는 표시와 '같은 할인율'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전자가 후자보다 감정에 강한 인상을 준다. 전자는 공짜로 받는 분량이 이미 주머니 속에 들어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기 때문에 고객들을 사로잡게 된다. 미묘한 표현의 차이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낭패를 당하기 쉽다.

사람은 대체로 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감정적으로 혹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주식 시장에 뛰어든 사람은 좋은 성적을 올리기가 쉬웠다. 장이 좋았기 때문이지만 정작 좋은 성적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착시 현상은 다른 환경에서 투자 실패를 낳게 된다.

리스크를 둘러싼 감정 중에서 가장 저항하기 어려운 게 공포다. 이런 감정에 휘둘리면 눈이 가려지고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의 공포감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투자와 관련해 자주 빠지는 함정만 피하더라도 투자수익률을 올리는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포트폴리오 이론은 분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인의 93퍼센트는 미국 시장에만, 일본인의 97퍼센트는 일본 시장에만, 그리고 영국인의 82퍼센트는 영국 시장에만 투자한다. 놀라운 사실은 코카콜라 주식의 16퍼센트는 본사에 위치한 애틀랜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친숙함을 느낀다', '가까운 곳에 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감정은 리스크와 리턴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음에도 사람들은 그런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감정의 힘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감정에 휘둘리는 우리를 이렇게 꼬집는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머릿속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자신에게 이로운 선택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아내려 하며, 그러는 사이에 두뇌는 감정으로 채색된 비합리적인 사고를 시작하게 된다."

감정과 결정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도록 돕는 멋진 책이다. 다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두뇌 회전을 적극적으로 할 각오를 갖고 읽어야 할 책인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에 속아 투자실패 않으려면

이민화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ICT 기반의 메르스 대책

메르스 사태로 한국은 소를 잃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국민 경제 성장의 절반을 날린 셈이다. 소도 엄청나게 큰 소를 잃은 것이다. 그렇다고 비난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문제로부터 학습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즉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것이다.

메르스는 메르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2014년 에볼라와 2015년 메르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감염학의 발달로 인간들은 점점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되고 있다. 과거 남미의 인디오들이 스페인 점령군의 천연두로 수천만 명이 사망한 것을 상기해 보자. 앞으로도 다양한 감염병이 우리를 위협할 것이므로 대비를 해야 한다. 즉,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선행 학습을 하자는 것이다. 바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감염병 대책을 제안하는 이유다.

메르스 사태를 복기해 보자. 보험 제도의 왜곡으로 공중보건 인프라가 취약했다. 비상시 감염환자 전달체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응급실은 병을 고치는 장소가 아니라 전파하는 장소가 됐다. 입원실 역시 바이러스의 숙주가 됐다. 환자들의 의료 쇼핑이 사태를 악화시켰는데 이를 개선할 시스템이 없다. 병원 이력을 환자 개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공공의료 후진국의 형태다. 당국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늦장 대응은 결정적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전문가에 의한 총괄 지휘 체계 부재는 의료 행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바로 의료 수출을 주창하는 자칭 '의료 선진국'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로부터 해결책을 찾아보자. 우선 사전 예방이라는 공공보건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20조원 비용의 1%면 충분할 것이다. 바이러스 대책은 미래 전쟁에 대한 사전 대책이라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제 ICT 기술로 외양간을 고쳐 보기로 하자.

우선 체열 진단 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화로 해 보자. 모든 감염병은 체열 상승을 동반한다. 공항에서 보는 적외선 체열 감시기를 전국의 CCTV처럼 보급하자. 비용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로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다. 부수적으로 야간 감시도 가능하기에 국방에도 크나큰 기여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휴대폰에 기본 장착해 개인 건강관리의 혁신을 이룩하자. 미국은 에볼라의 고위험 그룹를 체열로 추적 관리한 바 있다.

클라우드 PHR(Personal Health Record)도 도입하자. 메르스 사태에서 환자의 위험 병원 방문은 환자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태는 악화됐다. 의료 쇼핑을 제외하더라도 환자들은 여러 병원을 다니고 있다. 병원의 의무 기록만으로는 개개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PHR가 필요한 이유다. PHR는 특정 병원에 보관될 수 없다. 바로 미국이 PHR의 클라우드 보관을 의무화한 이유다. 개인의 기록을 개인에게 돌려주자. 부수적으로 고가 중복 진료가 관리돼 국가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응급실과 입원실에 사물인터넷(IoT)을 도입하자. 다양한 환자들이 여러 전문가 그룹에 의해 치료되는 응급실은 혼란의 극이다. 어떤 환자는 6시간이나 기다리니 이는 응급이 아니다. 응급실 IoT로 처리시간 및 의료사고를 줄인 아산서울병원은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다. 응급실과 입원실의 환자 동선과 체열 관리 등은 스마트 의료 밴드로 해결할 수 있다. 앰뷸런스부터 적용 가능하다. 유사한 중국 제품 가격이 2만원 이하라는 점에서 도입 타당성은 충분하다.

아울러 원격 의료를 제대로 하자. 미국은 에볼라 사태 시 원격 진료를 통해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했다. 전 세계에서 왜 한국만 이를 거부하는가. 국가적 편익과 비용의 균형을 맞추는 제대로 된 원격 의료를 하자.

끝으로 비상정보 포털을 만들자. 메르스 사태에서 정보의 비개방과 지휘탑의 혼란은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이었다. 에볼라의 경우 정보 공유를 통해 신뢰와 유연성과 즉각성, 홍보성을 동시에 달성했다. 위험을 기회로 만드는 국가적 지혜의 결집을 기대해 본다.

하루 한 생각 7월 27일

自强不息(자강불식) 스스로 힘쓰며 쉬지 않는 자세

학업이든 무엇이든 일을 이루려면 쉬지 않고 수양하고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한다. 바로 자강불식(自强不息)이다. 역경의 건괘(乾卦) 상전(象傳)에 "천체의 운행은 건실하니 군자는 그것으로써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天行健 君子以自强不息]는 말이 나온다. 천행(天行)은 춘하추동(春夏秋冬)의 건장한 순환이니 쉬지 말고 본받아 심신을 단련하고 지혜와 품성, 도덕을 닦으라는 뜻이다. 强은 彊과 상통해 自彊不息(자강불식)이라 쓰기도 한다.

이어 "땅의 형세는 유순함용하니 군자는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 것이다"[地勢坤 君子以厚德載物]는 말이 나온다. 넓은 땅에 두텁게 흙이 쌓여 있듯이 군자는 덕을 깊고 넓게 쌓아 세상을 자애롭게 이끌어야 한다.

정조의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32권의 기록을 보자. 정조 18년(1794)에 이영발(李英發)이 이렇게 아뢰었다. "스스로 굳건하여 쉬지 않음[自强不息]이 진실로 군자가 천도를 체인(體認)하는 학문이지만 날이 저물면 편안히 쉬는 것[嚮晦宴息]도 성인이 때에 따라 적의(適宜)하게 하는 도입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하루에 만기(萬機)를 총괄하시어 밤낮으로 국사에 여념이 없고, 기무(機務)가 뜸하면 곧 서책을 펼치고 밤이 깊어 촛불이 다 닳을 때까지 쉴 겨를이 없으니, 이는 바로 지성(至誠)이라 쉼이 없고 밤낮으로 굳건하고도 저녁에는 잘못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성인의 자세이지만, 혹 정력에 손실은 없겠습니까? (중략)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깊이 유념하여 때에 따라 조식(調息)하는 방도로 삼으소서."

이에 정조는 "몸은 오래도록 안일해서는 안 되고 마음은 오래도록 수고로워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나 또한 말하노니, '정신적 피로의 어려움이 육체적 피로보다 백배나 더하다' 하노라." 정조는 그야말로 자강불식의 군주였다.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오늘의 배국남

www.baekn.com

'협녀' 이병헌 "영화에 누가 되지 않길"

배우 이병헌이 영화 '협녀, 칼의 기억'(제작 티피에스컴퍼니, 배급 롯데엔터테인먼트) 제작보고회에서 공식 사과했다.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홀로 취재진 앞에 선 이병헌은 "죄송하다. 그 어떤 비난도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헌은 이어 "저 때문에 영화 관계자들의 노고가 가려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금까지 배우 이병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관심 덕분이다. 뉘우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께 드린 상처와 실망감을 갚아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헌은 지난해 8월 걸그룹 멤버 다희와 모델 겸 배우 이지연으로부터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병헌은 사건의 피해자였지만, 배우로서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다희와 이지연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최근 보석 석방됐다.

최두선 기자 sun@

온라인 와글와글

한국인 83% "경기 안 좋다"…나머지 17%는 딴 나라?



한국인의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론의 비율이 팔레스타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40개국의 체감경기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 중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답한 사람은 83%에 달했다. 한국인의 응답률은 레바논(89%), 이탈리아(88%) 등에 이어 베네수엘라와 공동 6위다. 미국과 일본의 비관적 시각은 각각 56%, 60%였다. 네티즌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17%에 놀라울 뿐", "좋다고 말한 사람들은 뭐하는 이들일까", "망하기 직전이다", "체감경기만 나쁘냐? 삶의 질도 더렵지", "체감경기 좋은 건 정부와 대기업뿐",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이 일하고 최저임금 받는 나라", "솔직히 서민들은 숨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등 많은 의견을 내놨다. 일부 네티즌들은 "불황이라고 해도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꾸밀 거 다 꾸미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기고

인삼의 면역력 증대 효과



이 동 권
고려인삼학회 회장
성균관대 약대 교수

고려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오갈피나무과(Araliaceae)의 인삼 속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류로서 뿌리를 중요한 약재로 사용했으며, 주요 생리활성 성분으로는 사포닌, 페놀성 성분, 폴리아세틸렌 성분, 알칼로이드 성분, 다당체 등이 알려졌다. 인삼의 페놀성 성분들은 노화 억제에 유효성분으로 10여종 이상의 항산화성, 페놀성 물질들이 밝혀졌고, 이들은 고혈압억제, 항암, 항산화, 미백활성 등의 생리활성으로도 알려졌으며, 또한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해 비특이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안정 상태를 유지시킨다. 2004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됨에 따라 인삼과 홍삼의 기능성이 인정되기 시작하여 현재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효능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요즈음에 유행하는 메르스(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중동호흡기 증후군), 사스(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인플루엔자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치료제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여서 결국은 신체의 면역력을 증가시켜 대응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이들 바이러스 질환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호흡기 감염 경로(기관지, 인후)에 작용하여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쉽게 진행되도록 한다. 따라서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만성질환자는 쉽게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문제가 되는 세균이 폐렴구균이며, 이 균은 정상인의 인후 부분에 상주하는 정상세균으로서 언제 균이 많아지는지 또는 어떤 혈청형이 존재하는지 잘 밝혀져 있지 않다.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손녀를 만나 입맞춤을 할 때 호흡기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일반인은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폐렴구균이 인후부에 있어도 문제가 없으나 병약자, 만성 질환자, 영유아는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쉽게 폐안으로 들어가 폐렴을 일으키게 되고 더 진행되면 패혈증이나 수막염으로 진행된다. 특히 패혈증이나 수막염의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치사율이 높으며, 수막염의 경우에는 생존하더라도 영구적인 뇌손상으로 평생을 고생하게 되어 사회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생쥐에 폐렴구균을 감염시키면 체중이 급격히 감소되며 50%나 죽지만 인삼을 복용한 실험군은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체중 감소가 억제되고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호염성 사이토카인(TNF-alpha, IL-1beta 등) 수준도 억제될 뿐만 아니라 폐와 혈액 내의 폐렴균 수도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는 인삼을 먹으면 폐렴균에 노출되더라도 저항성이 높아져 치명적인 질환을 겪지 않음을 나타낸다.

인삼은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는 대표적인 기능성 식품으로서 임상시험에서도 그 결과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에이즈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홍삼을 투여한 경우 에이즈 치료제 없이 15년 이상을 생존하여 면역력이 증가된 대표적인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뿐만 아니라 인삼을 복용하면 인플루엔자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분의 1 이하로 감소되었다. 이런 임상시험 결과는 과학적으로도 그 작용기전이 잘 밝혀져서 인삼을 투여하면 여러 가지 호염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하고, 과산화물 생성을 억제하여 염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억제한다. 또한 인삼의 주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구조가 호르몬과 유사하고 대뇌에도 작용하여 항스트레스 작용을 나타낸다. 즉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대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매우 피곤한 상태로 되어 면역력이 저하되는데 인삼을 복용하면 뇌에 작용하여 뇌세포에서의 항산화 기능을 나타내어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사멸과 염증성 인자 생성을 억제하고, 과산화물 생산도 억제하여 뇌 손상을 억제한다. 즉 인삼의 면역력 증진은 뇌에서의 항산화 및 항스트레스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요즘과 같은 장마철,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 나면 신체적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면역력이 저하되는데 여기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신체적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게 되며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만성질환자, 호흡기 질환자는 특히 더 민감하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인삼을 가까이하여 건강을 챙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장효진의 이슈通

산업1팀장

엘리엇의 교훈 잊지 말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17명의 재계 총수와 오찬을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오찬 주제와 간담회 성격에 따라 달랐지만,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기업 총수들과 세 번의 만남에서 모두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

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기업 나름의 노력을 충실히 지원해야 한다. 규제 개혁 등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족쇄를 풀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삼성물산과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기업 활동에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확인했을 것이다.

삼성물산은 5월 26일 제일모직과의 합병 결의 이후 지난 1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53일간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외국 투기자본인 엘리엇이 7.12% 지분을 앞세워 합병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주특기인 여론전과 소송전을 통해 전형적인 벌처펀드 성향을 드러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가처분',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압박했다. 항소심까지 패소한 엘리엇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엘리엇이 7.12%에 불과한 지분으로 삼성물산을 뒤흔들 수 있었던 것은 외부 공격에 취약한 지분구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삼성SDI(7.39%), 삼성화재(4.79%),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1.41%), 삼성복지재단(0.15%), 삼성문화재단(0.08%) 등 특수관계인 13.82%와 KCC(5.96%)를 포함해 19.78%의 우호 지분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가 22.26%, 엘리엇(7.12%) 등 외국 투자자가 33.53%, 소액주주들이 24.43%를 각각 보유 중이다.

국내 대기업은 상호 출자를 통해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지배할 수 있는 구조다. 이는 해외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유독 국내 기업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한 것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수합병(M&A) 관련 제도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권 공격자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지만 방어 행위는 오히려 제한하며 국내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왔다. '외국인의 국내 기업 주식취득 한도', '의무공개 매수제도'는 폐지하면서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허락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한국 기업이 공격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SK-소버린', 2006년 'KT&G-칼아이칸' 사태를 마주하면서 충분히 학습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제도의 국내 도입은 논의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가치와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은 더욱 치밀하고, 용의주도해질 것이다.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방어책이라고는 자사주 매입이 전부인 국내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이번에는 엘리엇의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js62@

객석

김 영 주 크루셜텍 기획실 대리



지식은 풍부하게 생각은 겸손하게

지난 14일 탐사선 뉴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 상공 1만2500km 지점을 통과했다. 지구에서 48억km 떨어진 태양계 외진 곳에서 찍어 보낸 선명한 하트 사진은 행성에서 퇴출됐어도 자신의 존재를 잊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인 듯해 과학적 성과를 넘어선 감동을 줬다.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사실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다. 명왕성의 크기는 생각보다 조금 컸고, 어렴풋이 보이던 하트 부분(톰보 영역)에는 일산화탄소 얼음으로 덮인 평원과 산맥이 존재했다. 나이도 예상보다 훨씬 어렸다. 최첨단의 과학기술 시대에도 사람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지식의 가치는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만큼 무겁게 여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진리 또는 정답(正答)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시점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여러 해답(解答)들이 있을 뿐이다. 지식은 상대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잘못 아는 것만 고정관념이라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아는 것도 고정관념이란 말이 있다.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야 하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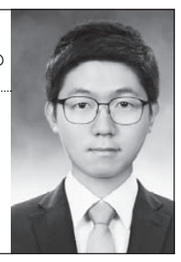
가끔 우리 주위를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은 대개 자신과 다른 생각을 배척하는 경향이 많다. 아집에 사로잡혀 자기 마음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은 보기에도 추하고 자기 발전의 기회도 없다. 남의 말을 경청하고 생각이 유연한 사람이 결국에는 더 설득력 있고 존경받는다.

나이가 들고 경력이 한 해씩 늘어갈수록 아집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인슈타인은 아는 것이 많으면서도 끊임 없이 공부를 지속하는 이유를 묻는 학생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아는 것을 원으로 표시하고 모르는 것을 원 밖이라 가정하면, 원이 커질수록 외부와 닿는 부분이 많아진다. 지식이 커질수록 무지도 더 커지기 마련이다." 배운 자의 제1의 미덕은 겸손임을 되새겨 본다.

기자수첩

김 범 근 산업1팀/nova@



신형 '쏘나타·K5', RV 제칠까

"신형 쏘나타와 신형 K5의 경쟁 차종은 레저용 차량(RV)입니다."

최근 신형 K5 출시 현장에서 기아자동차 임원이 한 말이다. 중형차인 신형 K5와 쏘나타의 경쟁 차종으로 다른 차종인 RV를 지목했다. 보통 신차가 출시되면 같은 세그먼트에서 경쟁 차종을 밝히는데 이날은 이례적이었다.

신형 쏘나타와 K5의 출시 일정이 보름 간격으로 가까운 것도 의아했다. 판매에 간섭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회사 측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신형 쏘나타와 K5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보고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형차 판매가 최저점을 찍었다.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5개 완성차 업계의 승용차 판매는 소폭 감소한 반면, RV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었다.

자연스럽게 쏘나타와 K5의 판매도 대폭 줄었다. 쏘나타는 5만314대를 팔아 전년(5만4785대)보다 8.2% 하락했다. K5는 2만103대를 판매하면서 전년(2만5603대)보다 무려 21.5%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형차 판매 신장을 위해 신형 쏘나타와 K5가 손을 잡은 것이다. 일단 초반 주목끌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 다양한 엔진 라인업과 젊은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층을 20대까지 확대했다.

신형 쏘나타는 1.7디젤, 1.6터보 등 7개 다양한 엔진 라인업으로 출시됐다. 신형 K5도 2개의 외관 디자인과 5개의 엔진으로 출시돼 최대 10개 모델로 출고가 가능하다. 다양한 소비자층을 두루 섭렵하겠다는 회사 측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입소문만큼 중장기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없다. 비교 시승은 물론, 안전성의 척도로 꼽히는 초고장력 강판(AHSS)의 사용 비율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신형 쏘나타와 K5의 AHSS의 비율은 51%다. 이는 신형 쏘렌토(53%)와, 카니발(52), 투싼(51%) 등 RV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www.hainaim.com 전화 02-326-1600 팩스 02-326-1624 해냄



"이 은밀하고 간절한 속삭임에 귀 기울여주실 건가요?"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로 쫓겨 간 단종과 비운의 왕비 정순왕후, 65년의 처절한 사랑이 김별아의 소설로 다시 태어나다!

칼끝을 걷듯 살아온 인생, 끝내 살아내리라!

왕비에서 평민으로, 날품팔이꾼, 걸인, 비구니까지
피와 탐욕으로 점철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켜낸 은애(恩愛)의 기억
단종 비 정순왕후가 고백하는 두 해 남짓의 사랑, 예순다섯 해 그리움

"김별아가 썼다. 이제 내 차례다. 낭독콘서트 〈영영이별 영이별〉이라는 이름으로 활자와 배우가 만나는 시간. 이 떨림은 무엇일까!" —연극인 박정자

그녀의 존재를 말하면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한다. 세상이 외면했던 65년의 고독을 말하면, 경악한다. 그녀가 움켜잡았던 온기, 이름 모를 여인들의 거친 손을 말하면 눈물짓는다. 삶은 수다한 이유와 목적을 떠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유이자 목적임을, 나 또한 그녀를 쓰고 나서야 알았다. 알아가고 있다. —「작가의 말」 중에서

김별아 장편소설 영영이별 영이별

한 줄의 기록에서 시작된 끝없는 상상력, 김별아 장편소설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사랑, 김별아 에세이

사륙판 | 양장본 | 272쪽 | 1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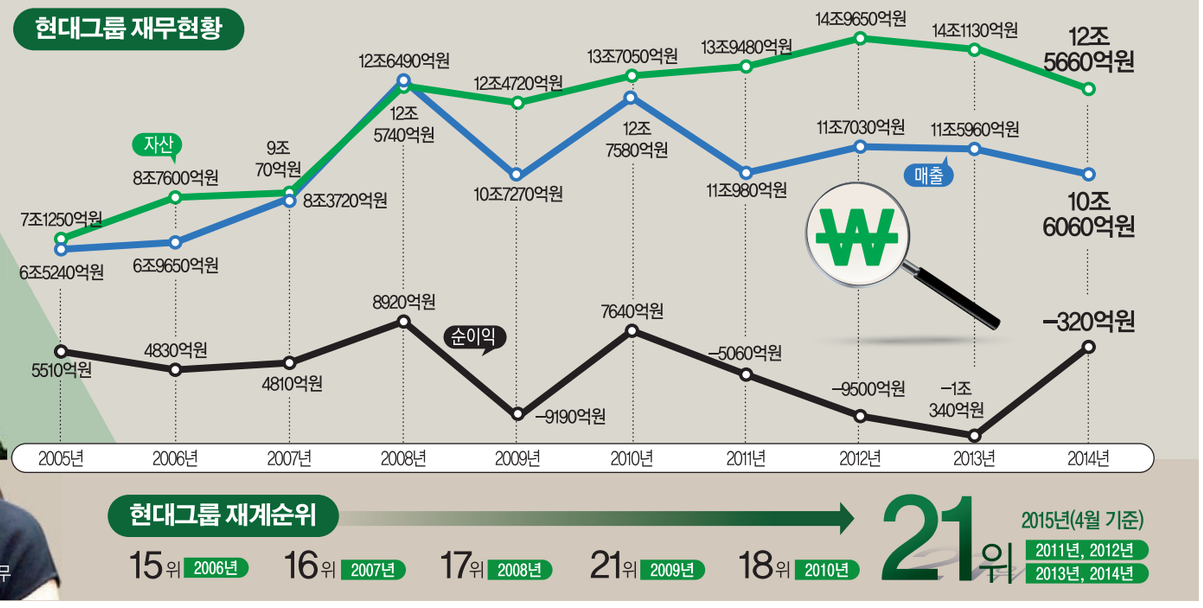
‘현정은–정지이’ 재계 첫 모녀 승계?… ‘키맨’은 외할머니

대기업 경영승계 대해부

⑮ 현대그룹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관심을 끄는 최대주주 측 보유주식 변동 공시가 게재됐다. 주인공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어머니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 현대그룹의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다. 딸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든든한 백기사가 되어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김 이사장이 보유 중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을 현정은 회장을 위해 증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분을 장내 매각을 한 것을 놓고 지분 향방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을 낳게 하고 있다.





친정 지원 있어야 안정적 승계

현 회장 모친 김문희 용문재단 이사장
‘승계 주축’ 현대엘리 지분 6.28% 보유
최근 일부 지분 장내거래 주목 받기도

정지이 전무, 회장직 이을까

수년간 착실히 경영수업 ‘후계 1순위’
엘리트 출신 남편 신두식씨 역할론도
“주력사 등기임원 시점이 승계 신호탄”

◇지분 승계 위해 친정 도움 필요 = 현정은 회장은 지난 2011년 현대글로벌을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해 순환출자구조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시켰다.

현대글로벌은 지난 2005년 설립된 회사로 IT사업을 영위했다. 2011년 분할과 함께 그룹의 지주사 역할로 변신한 것이다. 또 현정은 회장과 정지이 전무 등이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현대글로벌 지분을 100%를 보유하게 돼 그룹 전체의 지배력도 강화했다. 현정은 회장은 현대글로벌을 그룹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계열사로 활용하고 있다. 또 최근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증권을 잇따라 매각,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면서 그룹을 슬림화했다. 지난 4년간의 작업을 통해 현대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로지스틱스-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현대로지스틱스에서 현정은 회장-현대글로벌-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으로 사실상 지주사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현대글로벌의 분할은 향후 승계구도 작업의 밑걸음이 되는 메리트로 얻었다. 향후 현대글로벌의 지분만 자녀들에게 넘기면 사실상 지분 승계작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지배구조 상태에서는 현대글로벌 지분만 승계하게 되면 그룹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배력이 크게 흔들릴 우려가 크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30.9%다. 여기에 김문희 이사장의 지분만 6.28%에 이른다. 현정은 회장과 정지이 전무가 어떤 형태로든 김문희 이사장의 지분을 안고 가야 하는 것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증여 방법은 공익재단을 통한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성실공익법인이 절세를 하며서 계열회사의 주식 10%까지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현정은 회장 친정 측 재단이 보유한 현대그룹 계열사 지분이 5%를 밑도는 점을 감안하면 김문희 이사장은 보유 주식 대부분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또 현정은 회장과 정지이 전무가 직접 수증을 하거나 친정측 친인척이 취득한 후 우호지분으로 남겨둘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김문희 이사장의 보유 지분 변동 현황이 현대그룹의 승계구도에서 핵심 이슈 중 하나다. 최근 김문희 이사장이 장내 거래를 통해 지분 일부를 매각한 것을 재계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지이 전무가 아직 젊고 그룹 전체의 재무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승계작업을 위한 물밑작업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정은 회장이 재무구조 작업을 완전히 해소한 후 현대글로벌을 통해 안정적이고 승계작업에 최적화된 2차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 작업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단순화돼 세금 문제만 제외하면 향후 승계작업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위의 경영 능력도 관심거리 = 현대그룹의 후계자로 단연 꼽히는 자녀는 정지이 전무다. 지난 2011년 이후 결혼-출산을 거치면서도 그룹 경영에서 손을 놓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정은 회장이 이미 그룹 후계자로 정지이 전무를 낙점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동생인 정영이씨는 현대그룹 계열사에 입사해 한창 업무를 배우고 있다. 장남 정영선씨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후계구도에서 새로운 인물이 관심을 받고 있다. 정지이 전무와 지난 2011년 결혼한 신두식씨다. 신씨는 아버지 고(故) 신연우 국제종합기계 대표의 자녀다. 또 맥쿼리투자은행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인 점 등 향후 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신두식씨가 강남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재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현대글로벌 또는 다른 주력계열사 지분 취득에 나설지도 시장의 관심거리 중 하나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지이 전무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가 좋다”며 “향후 그룹 주력계열사 등기임원으로 나서는 시점이 후계작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유섭 객원기자 hyson0214@

“옛 명성 되찾자”… 강도 높은 체질개선 중

재계순위 21위… 10년 전보다 6계단이나 후퇴
2009년 이후 그룹 적자규모 3조4000억 달해
현대증권 매각 등 선제적 구조조정 긍정 평가

현대그룹은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성장을 해오다가 최근 들어 위기를 맞았다. 성장성 지표를 보면 자산과 매출 규모 변화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또 최근 4년간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계순위도 10년 전과 비교해 6계단이나 후퇴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정은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는 등 체력을 다지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그룹의 매출은 지난해 말 현재 10조6060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11조5960억원과 비교해 9000억원 이상 줄어든 금액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6조5240억원, 2006년 6조9650억원, 2007년 8조3720억원, 2008년 12조6490억원 등으로 현정은 회장 취임 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09년 10조7270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듬해 12조7580억원으로 회복 기미를 보였지만 2011년 11조980억원으로 다시 꺾였다. 이후 소폭 등락을 하다가 지난해 10조6060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도 2005년부터 4년간 매년 평균 6000억원을 남겼지만 이후 6년은 적자에 시달렸다. 2009년 9190억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가 이듬해 764억원 흑자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지만 2011년 다시 적자전환했다. 지난 2009년 이후 현대그룹의 적자규모는 3조4410억원에 이른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해 강력한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적자폭이 320억원 규모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대규모 적자가 잇따라 발생하다 보니 그룹 전체 자산 규모는 지난해 큰 폭으로 역주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자산규모(공정자산 기준)는 2005년 7조1250억원, 2006년 8조7600억원, 2007년 9조70억원, 2008년 12조5740억원, 2009년 12조4720억원 등이다. 이후 2010년 13조7050억원, 2011년 13조9480억원, 2012년 14조9650억원, 2013년 14조1130억원 2014년 12조5660억원으로 나타났다.

재계 순위도 크게 밀렸다. 현정은 회장 취임 당시 현대그룹의 재계순위(공기업 제외)는 15위를 보였다. 이후 한계단씩 주저앉더니 현재 21위다. 또 지난해 이후 재무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증권 매각에 나서면서 올해 말 기준으로 재계순위는 다시 한 번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선제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STX그룹과 동양그룹 등 일이 크게 불거진 후 뒤늦은 재무구조 개선으로 와해 수순을 밟은 과거 대기업집단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현유섭 객원기자 hyson0214@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
굿네이버스

방학이 되면 현수는 혼자가 됩니다

영어학원, 태권도 교실, 과학캠프, 가족여행
방학이 더 바쁘다며 투덜대는 친구들...
현수는 그 투정조차 부럽습니다

작은방 안에서 혼자 놀다 보면
친구들과 함께 놀던 시끌벅적한 학교가 그립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이들은 누가 챙겨줄까요?

정기후원신청
1644-7911

굿네이버스 희망나눔학교 검색

굿네이버스 희망나눔학교는 방학 중 빈곤가정아동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구촌 무대로 종횡무진 '산업 한류'



해외 법인 설립 '셀 코리아' 전진기지
대·중기 글로벌 틈새시장 집중공략
선진기술 도입·현지시장 영토 확장
국내 기업 1분기 해외투자 77억 달러

투자금액 기준 연도별 해외투자 현황(업종별)
단위: 억달러(비중,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전체	2014 1~3월	2015 1~3월	증감률 (전년대비)
제조업	97.0(33)	84.2(30)	92.4(31)	72.4(27)	15.9(26)	18.3(33)	15.6
광업	85.1(29)	79.0(28)	65.3(22)	53.4(20)	17.8(29)	5.4(10)	-69.7
도소매업	18.9(7)	14.6(5)	20.6(7)	14.8(6)	2.2(3)	9.7(17)	339
금융보험업	30.5(11)	36.9(13)	37.0(12)	39.2(15)	5.8(9)	9.0(16)	56.4
서비스업	20.9(7)	27.1(10)	11.7(4)	12.3(5)	3.4(6)	2.5(4)	-28.2
부동산업	10.0(3)	12.9(5)	47.9(16)	39.5(15)	9.6(16)	3.6(6)	-62.3

투자금액 기준 연도별 해외투자 현황(국가별)
단위: 억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전체	2014 1~3월	2015 1~3월	증감률 (전년대비)
세계	290	284.3	298.4	267.7	61.7	56.2	-9.0
미국	73	56.3	56.8	55.8	8.1	16.8	107.5
중국	35.4	40.4	50.1	31.3	7	4.9	-30.2
호주	13.8	22.3	26.7	15.6	4.9	1.6	-67.3
베트남	10.5	9.7	11.3	15.6	3.3	3.3	-0.1
네덜란드	7.9	12.9	17.4	7.5	1.8	1.9	1.5

투자금액 기준 연도별 해외투자 현황(투자형태별)
단위: 억달러, 비중(%)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2011	2012	2013	2014 전체	2014 1~3월	2015 1~3월	증감률 (전년대비)
신설법인 설립	218.9(75)	213.8(75)	230.4(77)	197.3(74)	40.9(66)	38.6(69)	-5.5
기존법인 지분인수 (M&A)	71.1(25)	70.4(25)	68.0(23)	70.3(26)	20.9(34)	17.5(31)	-16.0

국내 기업들이 해외 무대에서 종횡무진으로 활동하며 '산업 한류'를 이끌어가고 있다. 신설법인을 세우거나 기존법인의 인수합병(M&A)을 통해 '셀 코리아'의 전진기지로 삼는가 하면 대·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신고금액 기준)는 지난해 같은 기간 73억4000만 달러보다 5.2% 증가한 77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인해 실제 투자금액은 작년 1분기 61억7000만 달러보다 9.0% 감소한 56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 부문이 소폭 증가했고, 도·소매업, 금융업 투자규모는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광업 부문은 감소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부문의 투자가 작년 1분기 2억1000만 달러 대비 6억60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이어 전자 부문이 작년 1분기보다 8000만 달러 증가한 2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도매업종의 지난 1분기 해외투자는 6배 이상 증가한 7억9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 도매업 시장에 대부분 투자(6억8000만 달러)됐다. 소매업 투자는 2배 이상 증가한 2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이 지난 1분기 가장 많이 투자한 지역은 북미(39.0%)였다. 이어 아시아(21.9%), 중남미(17.2%), 유럽(13.8%), 대양주(4.3%) 등 순이었다. 북미지역은 미국에 대한 투자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아시아 지역은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서 늘었다. 국내 기업의 중요 해외 생산 거점인 중국에 대한 투자액은 36.6% 감소한 5억1000만 달러에 머물렀다.

기업 규모 별로는 대기업의 해외 진출이 두드러졌다. 1년 전과 비교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선진기술 도입', '현지시장 진출' 목적 비중이 증가했다. 해외 진출 형태별로는 신설법인 설립이 M&A보다 7 대 3 정도로 우세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스마트폰 시장의 리더십을 견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나노 기술로 대변되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기술적 우위로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프리미엄과 보급형 제품을 앞세운 양동 작전으로 스마트폰 최강자 자리를 이어간다.

조직과 기업문화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고 있으며, 협력사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광범위한 글로벌 경영을 펼치고 있다.

지속적인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현대차는 글로벌 신차 론칭이 집중된 하반기에 신차 효과를 극대화해, 전년 실적을 웃도는 판매 기록을 달성할 계획이다.

지역별·모델별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고 신형 투싼,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크레타, 신형 K5, 씨드 개조차 등 전략 신차들을 해외시장에 선보인다. 더불어 현지 맞춤형 마케팅으로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시장 진출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유통업계도 글로벌 경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유통업계 '빅3'인 롯데, CJ, 신세계는 한국의 의식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유통업계의 진출이 집중된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유럽, 미국 등지로 시장 개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유력한 현지 기업들과 협업 등을 통해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장효진 기자 js62@

SAMSUNG 삼성그룹

90개국 600여개 거점, 스마트폰·TV 등 생산

삼성그룹은 전 세계 90개국에 진출, 600여개 거점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그룹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 등 전자 계열사와 삼성생명·삼성카드·삼성화재 등 금융 계열사, 삼성물산·삼성중공업 등 각 계열사가 해외 생산·판매 법인, 연구소 등을 운영하며 해외사업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4년 말 기준 전 세계에 생산법인, 판매법인, 디자인센터, 연구소 등 210여개의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북미,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 15개 지역별 총괄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은 84개국, 32만여명이다.

글로벌 생산거점은 38개로 자체 생산률은 90%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판매거점 54개, 글로벌 R&D(연구개발)센터 36개로 연구개발비는 15조3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최근에는 베트남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진출이 활발하다. 삼성전자는 4개 국가에서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서도 베트남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 베트남 복합단지는 하노이시 동쪽 박닌성에 위치한 1공장(SEV)과 북쪽 타이응웬성의 공장(SEVT)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에 수출할 스마트폰과 태블릿, 카메라, PC 등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이 생산된다. 약 300만㎡의 공간에 근무 인력도 10만명을 넘어선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휴대폰 생산라인 모습. 사진제공 삼성전자

박닌성 옌퐁공단과 타이응웬성 옌빈공단에는 대규모 휴대폰 공장이 있다. 25억 달러(약 2조7000억원)를 투입한 옌퐁공단에서는 2009년부터, 20억 달러(약 2조1000억원)가 투자된 옌빈공단에서는 2013년부터 휴대폰 공장 운영이 시작됐다. 최근 삼성전자는 타이응웬성 휴대폰 공장에 30억 달러(약 3조2000억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호찌민은 소비자가전(CE)의 주요 생산거점으로 부상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호찌민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에 TV와 모니터 등을 생산하는 소비자가전 복합단지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복합단지 규모는 70만㎡(약 21만평)으로, 오는 2017년까지 5억6000만 달러(약 6000억원)가 투입된다.

김지영 기자 gutjy@

HYUNDAI 현대차그룹

美 시장 '제값받기' 중국선 '양적확대' 승부수

내수시장에서 수입차가 큰 폭으로 성장하자 국내 대표 자동차 업체인 현대기아차의 시장 방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충호 현대차 사장도 "국민 기업으로서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다"며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기본기가 우수한 제품, 기본을 지키는 서비스와 마케팅을 통해 고객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언급하며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수입차와 경쟁할 수 있는 상품성과 품질력은 물론 소비자들의 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초부터 '첫차 구입 고객 대상 감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범퍼 수리비 1회 지원, 매월 500명을 선정해 직접 차량을 관리해주는 '홈비지트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는 타 메이커의 인센티브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제값받기' 정책을 지속 펼치고 있다.

최근 출시한 신형 제네시스 3800cc 후륜구동 모델을 구형보다 7.9%(2800달러) 인상한 3만800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이외에 4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한 3800cc 모델은 4만500달러, 5000cc 후륜구동 모델은 5만1500달러로 가격을 책정했다.

단순 비교시 국내에서 5510만원인 3800cc 후륜구동 모델이 미국보다 1400만원가량 비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18.6%의 세금이 포함된 국내 판매가격 구조와 편의사양을 비교하면 미국 판매 가격이 더 높다는 것이 현대차의 설명이다.



기아차의 미국 조지아공장에서 차량이 생산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기아차

신형 쏘나타도 한국보다 가격을 비싸게 책정했다. LF쏘나타의 미국 판매가격은 2.4모델 기준으로 최고 트림 3만1575달러에서 최저 트림 2만1150달러로 책정됐다. 현대기아차는 중국에서는 양적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회사는 2002년 중국시장에 첫 진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 현지에 생산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현대차는 베이징에 1~3공장을 가동해 105만대의 연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아차 역시 최근 3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연간 74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LG그룹

선진시장 고급화… 신흥시장 수익성 확대

LG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상사, LG CNS 등 계열사를 통해 전자·화학·IT서비스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LG는 지역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고 중남미, 동남아, CIS(독립국가연합) 등 성장시장에서는 매출 확대와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격경영을 펼치는 등 투트랙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LG전자는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2013년 프리미엄 TV인 55인치 OLED TV와 55인치 곡면 OLED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고 한국, 미국, 유럽에 이어 CIS, 중국,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전 지역에 출시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지난 4월 뉴욕에서 전략 스마트폰 'LG G4'를 처음 공개했다. 5월 홍콩, 러시아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본격 출시한 'LG G4'는 역대 LG전자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많은 통신사업자인 세계 180여 이동통신사에 판매되고 있다.

LG화학은 중국에서 PVC와 ABS, 합성고무제품 등의 현지 생산을 통해 석유화학 제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LG화학은 이미 1995년에 국내 화학업계 최초로 중국 톈진에 생산법인을 설립,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지주회사를 비롯해 총 11개의 현지 법인을 두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약 40%를 중국에서 거두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작년 하반기 광저우에 8.5세대 LCD 패널 생산공장을 준공, 세계 최대 LCD시장인 중국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LG상사는 인도네시아, 중국 등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한 자원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왔으며, 자원개발 연관 산업에도 진출해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서고 있다.


LG전자가 올해 초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에서 스마트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LG

LG CNS는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선진 IT 기술을 앞세워 사업을 넓혀나가고 있다. 지난 2011년 LG CNS는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성공구축 사례에 힘입어 남미 3대 도시인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시의 AFC(대중교통 요금자동징수) 및 BMS(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할 사업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권태성 기자 tskwon@

CJ그룹

식품·바이오 등 '생활문화기업' 위상 다지기

CJ그룹은 식품·식품서비스, 바이오, 신유통, 엔터테인먼트·미디어(E&M) 등 4대 사업군으로, 다양한 한류 콘텐츠와 글로컬라이제이션(Global+Localization, 글로벌 현지화) 전략으로 무장해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의 위상을 강화해 가고 있다.

CJ그룹은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글로벌경영 가속화에 앞장서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바이오와 사료사업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올 초 가동을 시작한 말레이시아 바이오 공장을 앞세워 새로운 수익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메치오닌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메치오닌 공장은 연간 8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메치오닌의 시장 규모는 약 50억 달러로, 라이신(40억달러 규모)과 함께 전체 사료용 필수 아미노산 시장에서 가장 크다.

사료사업에서는 지난해 젖소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첨단사료 '밀크젠'과 가축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줄여주는 '친환경 메탄저감 그린 사료'를 개발했으며, 올해는 본격적인 양산과 판로 확대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사료 기업 순위 10위 이내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글로벌 통합 한식 대표브랜드 '비비고'를 앞세워 전 세계에 '식문화 한류(K-Food Wave)'를 이끌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비비고 레스토랑을 통해 전 세계에 한식의 우수성을 먼저 알린 후 이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가정에서도 한식을 즐기기 위해 비비고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내·외식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전 세계인의 입맛에 한식을 스며들게 할 계획이다.


CJ비비고의 홍콩 대형마트 만두 샘플링 현장. 사진제공 CJ

CJ대한통운은 해외직구, FTA체결 등으로 국제택배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제택배 네트워크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7개국 9개 지역에서 홈쇼핑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CJ오쇼핑은 올해 전 지역 흑자전환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규 지역으로 추가 진출, 세계 1위 사업자인 QVC와의 간격을 좁혀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CJ CGV는 글로벌 시장 확장에 주력한다. 현재 43개 극장 339개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서 올해 64개까지 극장 수를 늘리고 내년에는 8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선애 기자 lsa@

한화그룹

집념의 태양광… 한화큐셀, 셀 생산 세계 1위 넘본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3년 만에 발표한 올해 신년사에서 "(2015년은) 내실을 기반으로 대통합의 기틀을 다지고 시너지를 확대하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선제 대응으로 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잘할 수 있는 사업 부문에 더욱 집중해 핵심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화그룹의 대표적인 글로벌 산업은 태양광이다. 한화그룹 태양광 사업의 양대 축인 한화큐셀과 한화솔라원이 지난 2월 '한화큐셀'로 통합, 셀 생산규모 기준으로 세계 1위의 태양광 회사로 새롭게 탄생하며 글로벌 시장을 확고하게 지배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셀 생산규모가 3.28GW에 이르는 세계 1위의 태양광 셀 회사로 도약하게 됐다. 특히 3GW 이상의 생산규모를 보유한 경쟁사들이 모두 중국업체로 미국의 반덤핑 규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과 달리, 말레이시아·독일·중국으로 생산기지를 다각화하고 독일의 기술력에 기반해 질적인 측면에서 명실공히 세계 1위의 태양광 업체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난 4월에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전력회사인 넥스트에라에 1.5GW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모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실적을 거두며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최근에는 태양광 신흥 시장인 인도에서 148.8MW에 이르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70MW의 모듈 공급 계약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 한화그룹 금융분야를 이끄는 한화생명이 글로벌시장에 도전한다. 진출 7년차를 맞이한 베트남 법인의 전국 영업망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해 2017년 흑자전환 달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법인은 저장성을 기반으로 상하이, 장쑤성 등으로의 신규시장 진출을 통해 전국 영업망 구축에 나서고, 인도네시아 법인은 방카슈랑스 등의 판매채널 다변화를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또 한화생명은 글로벌 보험사들의 신규시장 진출 전략을 참고해 향후 홍콩·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 위주로 2단계 해외 추가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한화큐셀이 2013년 12월 건설한 하와이 칼렐루아 재생에너지 파크 5MW발전소. 사진제공 한화그룹

롯데그룹

공격적 마트 확장… 中·동남아 152개점 운영

신동빈 회장은 2009년 'Asia Top 10 Global Group'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후 공격적으로 해외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 유통부문은 각 업태별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러시아 모스크바점 오픈을 시작으로 해외에 첫 진출한 롯데백화점은 현재 중국에서 단독 출자 형태로 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동남아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 2013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롯데쇼핑 에비뉴점을 오픈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도 점포를 열었다.

롯데마트 역시 적극적으로 해외 출점을 확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중국(2007년)과 인도네시아(2008년)에서 글로벌 대형마트 체인인 마크로를 인수하면서 해외에 첫 진출한 이후, 현재 해외 3개국에서 총 152개(중국 103개, 인도네시아 39개, 베트남 1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점포수(115개)보다 더 많은 숫자다.

식품과 관광 분야에서의 세계 진출도 두각을 나타낸다. 롯데제과는 1990년대 중국에 진출하여 현지 공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해 왔으며, 2010년에는 베트남, 인도, 러시아에도 차례로 초코파이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해외 현지생산 체제를 갖추었다. 인도 델리에는 두 번째 초코파이 공장을 올해 완공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중국에서 현지 업체를 인수해 설립한 두 개의 현지법인을 통해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 및 공급해오고 있다. 중국 외에도 세계 40여 개국에 각종 주류 및 음료를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러시아 등


베트남 롯데센터 하노이. 사진제공 롯데

지에서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1998년 베트남에 첫 진출한 롯데리아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여, 지난해 9월 베트남 200호점을 오픈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화학과 건설부문에서는 롯데케미칼이 2010년 동남아시아권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인 말레이시아의 '타이탄케미칼'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이후 영국의 '아테니우스', 파키스탄의 '파키스탄PTA'를 인수하여 해외 생산기지를 마련하였으며, 미국 앨라배마에도 생산 법인 'HPM 앨라배마'을 설립하여 생산설비를 확충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효성그룹

'크레오라' '타이어코드' 내세워 일류기업 도약

효성은 수출이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시장 진출의 폭이 넓다. 이미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한 제품을 통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의 효성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가흥, 주해, 광동)과 터키, 베트남, 브라질 등지에 현지 생산공장을 두고 우수한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브라질 현지 생산체제 구축 2년 만에 점유율 50%를 넘어 스판덱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였고, 현지에서의 생산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베트남 공장에 1만톤 규모의 스판덱스 공장 증설을 완료해 본격적인 양산 및 판매 중이며, 지난 1월에는 중국 광동 사업장의 1만톤 증설을 완료해 중국 스판덱스 생산량을 8만톤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효성의 스판덱스 글로벌 생산량은 총 19만톤 규모로 확대됐으며, 전 세계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효성의 타이어 부품인 타이어 코드는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로 전 세계 시장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생산기지의 안정적 공급망을 바탕으로 미쉐린, 굿이어와 같은 글로벌 타이어 회사와의 파트너십 강화는 물론 신규 고객 확보에도 적극 나서 현재의 독보적인 시장지배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효성 직원이 서울 마포 본사에 마련된 크레오라 라이브러리에서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에 대해 고객과 상담하고 있다. 사진제공 효성그룹

이 외에도 효성은 안전벨트용 원사, 에어백용 원단 등 산업용 원사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소재 부문의 일괄생산 시스템을 구축, 글로벌 시장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2011년 인수한 세계 1위 에어백용 직물업체 글로벌 세이프티 텍스타일스(GST)를 통해 에어백용 직물까지 사업을 확장한 바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효성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세계인의 삶에 깊숙이 파고든 수출 기업"이라며 "세계 1위 상품의 안정적 공급과 판매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꾸준히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만 기자 redpill@

SK텔레콤

스마트 교육 로봇 세계 어린이들에게 인기

SK텔레콤이 특화된 아이템을 앞세워 글로벌시장에 다시 도전하고 있다. 통신산업이라는 기간산업보다는 전략적으로 현지시장을 공략할 아이템이 적격이라는 판단에서다.

27일 SK텔레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라이프웨어, 스마트로봇, 헬스케어 등을 통해 글로벌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 중 라이프웨어 분야는 통합브랜드인 UO(United Object)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현재 UO브랜드는 UO스마트빔 레이저, UO링키지, UO스마트빔2 등 신제품을 잇달아 발표하며 라이프웨어 제품의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UO를 중국에 상표출원하고, 대형 유통회사와 UO 브랜드 제품의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UO의 중국 브랜드명은 리앤요우로, '리앤'은 연결 또는 결합을, '요우'는 특이함을 뜻한다. 즉 리앤요우는 ICT 기술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SK텔레콤은 출원된 상표를 활용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올 5월 라이프웨어 브랜드를 UO브랜드로 통합하는 작업을 했다"며 "앞으로 UO브랜드는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시장에서 가치있는 의미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로봇도 글로벌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은 2012년 12월 이후 스마트로봇인 '알버트'와 '아띠'를 선보였다. 코딩스쿨은 '알버트'와 '아띠'를 활용해 소프트웨어(SW) 개발과정(코딩)을 쉽게 학습하도록 해 창의력과 논리력을 길러주는 대표적인 창조경제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스페인 유소년들이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텔레포니카 '모바일 월드센터'에서 SK텔레콤의 스마트 교육 로봇 '아띠'를 활용한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SK텔레콤은 지난해 6월 중국 3만대를 시작으로 대만 3700대, UAE 1만대, 중남미 3만대의 스마트로봇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토작민지원청, UAE 아부다비개발부 등 7건의 스마트로봇 코딩스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양창균 기자 yangck@

KT

아프리카 데이터센터 등 해외매출 2조 목표

KT가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까지 해외 사업에서만 매출 2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해외에서 핵심 역량인 네트워크 기술력을 활용한 망 구축 사업뿐만 아니라, 비통신 분야에서도 사업을 넓혀나가고 있다. KT는 최근 5년 새 모두 7개 국가에서 52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지난해는 글로벌 분야에서 전년보다 12.7%가 성장한 344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430억원 규모의 전자주민증시스템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르완다에서는 롱텀에볼루션(LTE) 통신망 구축을 끝내고, 현지 통신사를 통해 서비스를 이미 개시했다. 최근에는 베트남 꽝빈성의 태양광시설 구축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 KT는 국내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 전력청이 발주한 약 1억1000만 달러(약1200억원) 규모의 지능형 원격 검침 구축 프로젝트를 따내기도 했다.

KT 측은 미래융합사업과 글로벌 사업분야에서 2016년 매출 목표를 2조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통신 분야를 결합한 금융, 스마트 스페이스, 전자정부, IDC 등 다양한 비통신 산업 영역의 사업 수주에 적극 참여하는 등 사업 영역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KT는 국가 ICT 개발의 역량과 경험이 필요한 글로벌 시장의 특성과 요구 사항을 반영해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부터 서비스 운영 노하우와 차별화된 융합 ICT 솔루션을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쟁력 있는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로 진출



KT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망을 구축하고 현지 통신사를 통해 서비스를 개시했다. 사진은 르완다 국민이 KT가 서비스하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제공 KT

해 국내 정보통신(ICT) 산업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사업도 적극적으로 개척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정부를 대상으로 파트너십에 기반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KT가 개도국 경제발전의 파트너로서 참여해 한국의 ICT 발전을 이끌며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개도국에 이전하고, 개도국 스스로의 발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제 기자 psj@

SK하이닉스

中 우시 생산법인 설립… 메모리반도체 2위 성장 발판

SK하이닉스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조기 선점을 위해 중국 장쑤성 우시에 생산법인을 두고 있다.

중국 장쑤성 우시는 '작은 상하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장쑤성 내 GDP 1위의 도시다. 글로벌 500대 기업 중 57개 기업이 116개의 현지에 법인을 설립했으며, SK하이닉스도 지난 2004년 8월 우시시(市)와 중국공장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첫 생산을 시작했다.

우시FAB 센터는 SK하이닉스 전체 D램 생산량의 50%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생산기지이며,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쌍두마차로 올라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생산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지의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세제혜택과 같은 각종 지원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300mm 웨이퍼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었다. 또 상계관세 등 통상문제의 원천적 해결 등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고히 마련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성공적인 전략을 통해 현재 중국 우시FAB 센터는 중국 내 최고 수준의 미세공정을 확보한 장쑤성 내 최대 규모의 외자기업으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세계 2위의 메모리 업체로 성장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우시FAB 센터는 현재 3500여명의 구성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56만㎡의 부지에서 월평균 약 14만장의 300㎜ 웨이퍼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의 D램 중추 생산기지이다. 20나노급 공정을 주력으로 PC, 서버, 모바일, 그래픽에 이르는 D램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생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0년 6월에는 우시FAB 센터와 인접한 곳에 후공정 합작공장도 설립해 중국 내 전후공정의 일괄 생산체제를 갖췄으며, 제조 및 물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확대되는 중국 내수 시장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IT 업체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국 중서부 지방인 충칭의 산업기지에도 후공정 법인을 설립해 지난해부터 가동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SK하이닉스의 중국 장쑤성 우시공장 전경. 사진제공 SK하이닉스

LS전선

유럽·남미 잇단 계약 전력케이블 강자 도약

LS전선은 초고압 케이블과 해저 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베트남과 중국 출자 법인 등과 공조 전략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초 LS전선 동해공장에서는 100km, 6600톤에 이르는 해저 케이블을 실은 배가 카타르를 향해 출발했다. LS전선이 2012년 카타르 석유공사로부터 국내 전력 케이블 사상 최대 규모인 4억3500만 달러에 수주한 해저 케이블 2차분이다.

LS전선은 2009년 강원도 동해시에 국내 유일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준공하면서 당시 유럽과 일본 전선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던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국내는 물론 중동과 유럽, 남미 등에서 연달아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불과 5년여 만에 해저 케이블 시장의 강자로 부상했다.

LS전선은 전력 제품의 본고장인 유럽시장 진입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월 덴마크 전력청(Eneginet)과 2300만 달러(약 25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3월에는 아일랜드 국영 전력회사인 ESB Networks와 220kV급 지중 케이블의 독점 공급계약을 맺기도 했다.

베트남, 중국법인 등과의 교차판매 등을 통한 성장 전략도 최근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초 LS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4500만 달러(약 500억원) 규모의 지중 케이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중국, 인도 등 저가 전선업체들과의 경쟁에서는 베트남 법인을 활용해 수주에 성공했다.

전력 케이블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교차판매가 쉽지 않은 제품이다. 내구성과 안정성 등의 신뢰성이 중요하



LS전선이 수주한 카타르의 해저케이블. 사진제공 LS전선

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설비로 만들었는지가 입찰에서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베트남 법인은 1996년 설립 후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기술이전 등을 통해 기술의 안정화를 달성했다.

최근 LS전선은 중국 2위 자동차회사인 둥펑(東風)차의 친환경차용 고전압 하네스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하네스는 전자제어장치와 통신 모듈을 연결, 전원을 공급하고 각종 센서를 작동·제어하는 케이블이다. LS전선의 장쑤성 우시시 법인에서 양산, 오는 5월부터 전기차 E30 모델에 장착될 예정이다.

김범근 기자 nova@

LG디스플레이

광저우·난징·옌타이에 공장… 中 LCD 선점

LG디스플레이는 한국 본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판매 접점 및 생산기지를 운영하며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003년에 국내 LCD 업계에서 처음으로 중국 난징에 모듈(LCD 생산 후공정) 공장을 설립하고 최대 LCD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선점에 나섰다.

또 2007년 1분기에는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LG디스플레이의 두 번째 모듈 공장을 가동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중국 현지에 광저우 모듈 공장을 전격 양산 가동하기 시작함으로써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을 더욱 가속화했다.

2010년 5월에는 LG이노텍이 중국 옌타이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던 중소형(스마트폰, 태블릿 제품 중심) 모듈라인을 인수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태블릿 시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아울러 2012년에는 멕시코 레이노사에 TV 패널을 주로 생산하는 모듈 공장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곳곳에 생산 현지화를 통한 최적의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LG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에 8세대(2200mmX2500mm) LCD 생산라인(전공정)을 건설, 2014년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했다. 이 공장은 최초 해외 패널 공장으로, 세계 최대 TV 시장인 중국 현지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현지생산을 통한 관세나 물류비용 절감, 고객 밀착 영업 및 밀착지원으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패널 공장 전경.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는 기존 광저우, 난징, 옌타이의 LCD 모듈 생산라인과 더불어 광저우의 8세대 LCD 생산라인 구축을 통해 현지 생산량을 늘려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가진 중국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LCD시장에서 2015년 1분기 LG디스플레이의 시장 점유율은 23.9%로, 2009년 4분기 이후 22분기 연속 1위를 지키며 독보적인 1위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지영 기자 gutjy@

LG화학

R&D 확대로 신소재·전지사업 1등 노린다

글로벌 리딩 화학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LG화학은 △ABS 수지 △중대형 리튬이온 배터리 △TFT-LCD용 편광판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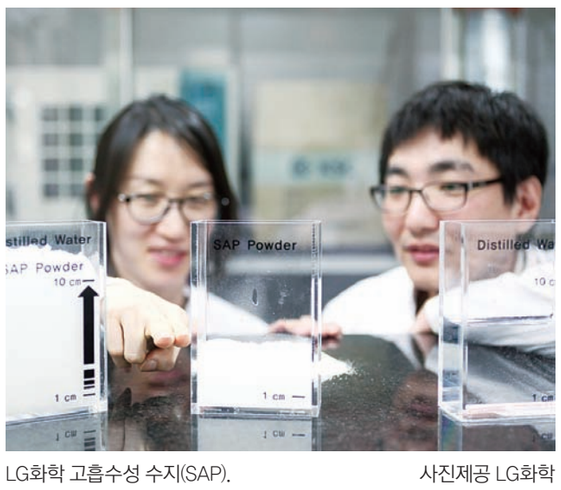
자동차 등에 쓰이는 고부가 합성수지인 ABS(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타이렌) 수지는 생산규모 165만톤으로 LG화학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TFT-LCD용 편광판 역시 2008년 4분기 부동의 1위였던 일본의 니토덴코를 제친 이래, 지속적으로 세계 1위를 수성하고 있다. 2000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전기차 및 전력저장(ESS) 등에 사용되는 중대형 전지에서도 세계 1위다.

아울러 LG화학은 각 사업본부별 투자 및 연구개발(R&D)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SAP(고흡수성수지) 증설, 중국 자동차전지 공장 증설 등에 약 1조79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연간 R&D 투자 금액을 올해 6000억원에서 2018년 9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R&D 인력도 현재 3100명에서 41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구 시설도 확장해 나간다. LG화학은 지난해 대전 기술연구원을 기존 5개동에서 6개동으로 확장, 올해 3월부터 과천 R&D센터도 본격 가동하고 있다.

각 사업본부 연구소에서는 차세대 핵심 소재 개발에 본격 나선다. 기초소재사업본부는 '선도 제품 개발 및 제품 구조 고도화'를 한층 가속화하고 EP분야에서 2018년까지 글로벌 톱3 메이커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SAP사업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기저귀 등에 사용하는 SAP는 1g의 무게로 최대 500g의 물을 흡수하는 소재다. LG화학은 현재 28만톤인 이 소재의 생산능력을 연내 36만톤으로 확대하고 2018년까지 조단위 사업으로 육성한다.



LG화학 고흡수성 수지(SAP). 사진제공 LG화학

합성고무 사업은 친환경 타이어용 제품 비중을 2018년 40% 이상으로 늘리고, 편광판 사업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전지사업본부는 리튬 2차전지 분야 세계 1등 달성을 위해 모바일전지 분야에서 차세대 전지시장 확대와 비(非)IT 시장을 공략, 자동차 및 ESS 분야에서는 핵심 프로젝트 수주 및 글로벌 사업 인프라 확대를 계획 중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현대제철

하이스코 합병… 신흥시장 수출 거점 확대

현대제철은 현대하이스코와의 합병을 통해 글로벌 신흥시장 거점을 활용한 해외 사업부문 역량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합병으로 자동차 강판 공급체계의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해 품질 경쟁력 강화와 함께 영업의 최종 종착역인 '고객'까지 그 접점을 확대한다.

지난 2013년 현대하이스코 냉연부문을 합병해 자동차 강판까지 생산하게 된 현대제철은 이번 합병을 통해 현대하이스코의 해외 스틸서비스센터(SSC)까지 품게 됐다. 이로써 이원화된 공급체계의 일원화는 물론 자동차 강판의 생산부터 가공, 공급까지 통합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고객의 요구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대제철은 자동차 강판의 해외 판매처를 직접 운영하면서 글로벌 거점을 활용한 해외사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일원화된 공급체계는 미국과 중국, 인도 등 9개국에 위치한 11개 SSC의 영업망을 통한 해외 판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SC는 지난해 현대하이스코 전체 매출액의 67.4%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 분야다.

세계철강협회(WSA)는 올해 초 철강 수요 전망을 통해 철강 수요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자본시장 부문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이머징마켓(신흥 경제국)의 철강 소비 증가에 따른 것이다.

현대제철이 주목하고 있는 이머징마켓 중 멕시코는 저유가와 낮은 이자율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수출 전략 거점이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제공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내년 완공 예정인 멕시코 SSC를 중남미 시장뿐 아니라 북미 수출의 허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브릭스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 기대되는 인도 시장도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발전소 건설 등으로 철강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인도 SSC를 통한 철강 수출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하이스코 합병으로 인해 편입된 해외거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통합 마케팅 전략 수립과 함께 해외시장 동향 파악을 통해 장·단기 시장대응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근 기자 nova@

SK이노베이션

세계 유수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세계시장 공략 가속

SK종합화학이 세계 유수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메이저 기업들과 손 잡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글로벌 파트너링'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즉 세계 유수 기업들의 다양한 판매 네트워크, 막강한 자금력, 진보된 기술, 원활한 원료 공급력을 합작법인을 통해 활용한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달 초 세계 2위 규모의 종합화학 기업인 사빅(SABIC)과의 넥슬렌 합작법인을 출범시키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사빅은 세계 2위 규모의 종합화학 기업으로 한해 영업이익만 11조원이 넘고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하는 회사다.

이에 앞서 글로벌 파트너링 첫 성공 사례는 2008년 완공한 SK루브리컨츠의 인도네시아 윤활기유 공장이다. 인도네시아 국영석유 회사인 페르타미나와 공동으로 설립한 이 공장은 가동 1년 만에 239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3년에는 매출 3455억원, 당기순손익 142억원을 달성하며 SK 윤활유 사업의 글로벌 첨병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SK루브리컨츠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렙솔과 함께 유럽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스페인 카르타헤나에 윤활기유 전진기지를 건설한 것. SK루브리컨츠는 '울산-인도네시아-스페인' 등 3개 공장에서 하루 7만800배럴(연 350만톤)의 윤활기유를 생산해 엑슨 모빌, 셸에 이어 세계 3위의 윤활기유 제조업체로 발돋움하게 됐다. 또한, 고급 윤활기유 세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의 위상을 한층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중국 국영 석유기업인 시노펙과 함께 설립한 우한 에틸렌 합작 프로젝트는 SK그룹의 중국사업 중 최대 성과로 꼽힌다. 이 사업은 석유화학 공장 설립 프로젝트로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통해 연간 약 250만톤의 유화제품을 생산하는 총 투자비 3조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밖에 신수종 사업에서도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링을 진행 중이다. 2013년 중국 베이징기차, 베이징전공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도 글로벌 파트너링의 일환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박성제 기자 psj@



SK종합화학 차화엽 사장(왼쪽)과 사빅의 압둘라만 알 파기 부사장이 넥슬렌 합작법인 계약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신세계그룹

PL상품 수출·현지화 유통시장 영토 확장

신세계그룹은 '비전 2023' 달성을 위해 최근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투자와 채용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전 2023은 신세계 그룹이 지난해 초 발표한 청사진으로, 복합쇼핑몰, 해외사업 등을 확대해 2023년까지 매출 88조원, 투자 31조4000억원, 고용 17만명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마트는 2013년부터 당사의 자체 브랜드(PL) 상품의 해외 수출을 시작하고 올 연말에 베트남에 이마트 점포를 오픈하는 등 국내를 뛰어넘어 해외사업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마트는 홍콩 왓슨그룹에서 운영하는 소매점인 'PARKNSHOP' 60여개 매장에 이마트 PL 상품인 라면, 당면, 쌈장, 고추장, 꿀대추차 등 총 7개 품목(4500만원)을 수출했다.

또한 이마트는 알리바바와 손잡고 중국 역직구를 통한 해외수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마트는 올해 2월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티몰 글로벌(TMALL GLOBAL)'에 국내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도메인을 개설해 진출했다.

이마트는 2015년 하반기 베트남에 점포 오픈을 준비하면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마트 베트남 법인은 한국 직원은 법인장을 포함, 7명인 반면, 베트남 직원은 40여명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이마트는 베트남 호찌민에 1호점 오픈을 앞두고 베트남 정부와 손잡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4월 'Helmet for Kids(아이들에게 안전을)' MOU를 체결하고 매년 오토바이용 어린이 헬멧 1만개를 호찌민 시내 초등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마트 베트남 'Helmet for Kids' 캠페인. 사진제공 신세계그룹

한편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인터내셔날에서는 여성 캐주얼 브랜드 보브,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비디비치를 통해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브는 중국 상하이, 베이징 등에 진출하여 올해만 42개 매장을 오픈했다.

신세계그룹은 "유통업계가 전반적으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적극적인 해외사업 진출을 통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롯데백화점

3년 내 신규점포 40개·해외매출 6조 목표

롯데백화점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VRICs(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점포 진출을 활발히 하며, 글로벌 리딩 기업의 면모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해외 1호점을 낸 이후, 올해까지 총 9개 점포로 늘렸다.

특히 작년 9월에 베트남 최초로 오픈한 하노이점은 해외 진출 점포 중 가장 많은 오픈 행사 실적인 50억원(한화 기준)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오픈 당일 입장한 고객수는 11만명으로 국내 본점의 일평균 입장 고객수를 육박할 정도였다. '롯데센터 하노이'는 하노이 시내에서 두번째로 높은 초고층빌딩에 백화점, 호텔, 마트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쇼핑시설로 랜드마크 역할을 하면서 현지인들이 관심도가 높다. 특히 한류 열풍이 베트남 전역을 강타하고 있어 30여개의 국내 브랜드 위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향후 롯데백화점은 2018년까지 40여개 점포를 추가로 열고, 해외사업 매출을 총 6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백화점만 단독 진출하기보다 백화점과 쇼핑몰이 함께 구성된 복합단지에 진출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2018년까지 중국에만 20여개 점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베이징·톈진·선양 등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각 지역마다 2~3개의 점포를 오픈하고, 주요 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소도시에도 진출하는 '다점화 전략'을 펼칠 계획"이라며 "또한 적극적인 거점 점포 확보를 위한 해외 M&A 검토 등 해외시장 진출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센터 하노이점 전경.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각 점포에 한국의 선진 서비스를 전파하는 한편, 중국 문화에 맞게 현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점포의 경우 MVG라운지에서는 민무늬의 흰 자기(瓷器)를 고급스럽게 생각하는 중국인들의 취향을 반영해 찻잔, 접시, 그릇을 모두 흰 자기로 준비했다. 또한 커피보다는 차(茶)를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음료문화를 고려해 한국과는 달리 차 위주의 메뉴로 운영한다.

이선애 기자 Lsa@

시원하니 '한잔'

SPC그룹 '과채주스'

케일·시금치·샐러리…비타민·무기질 보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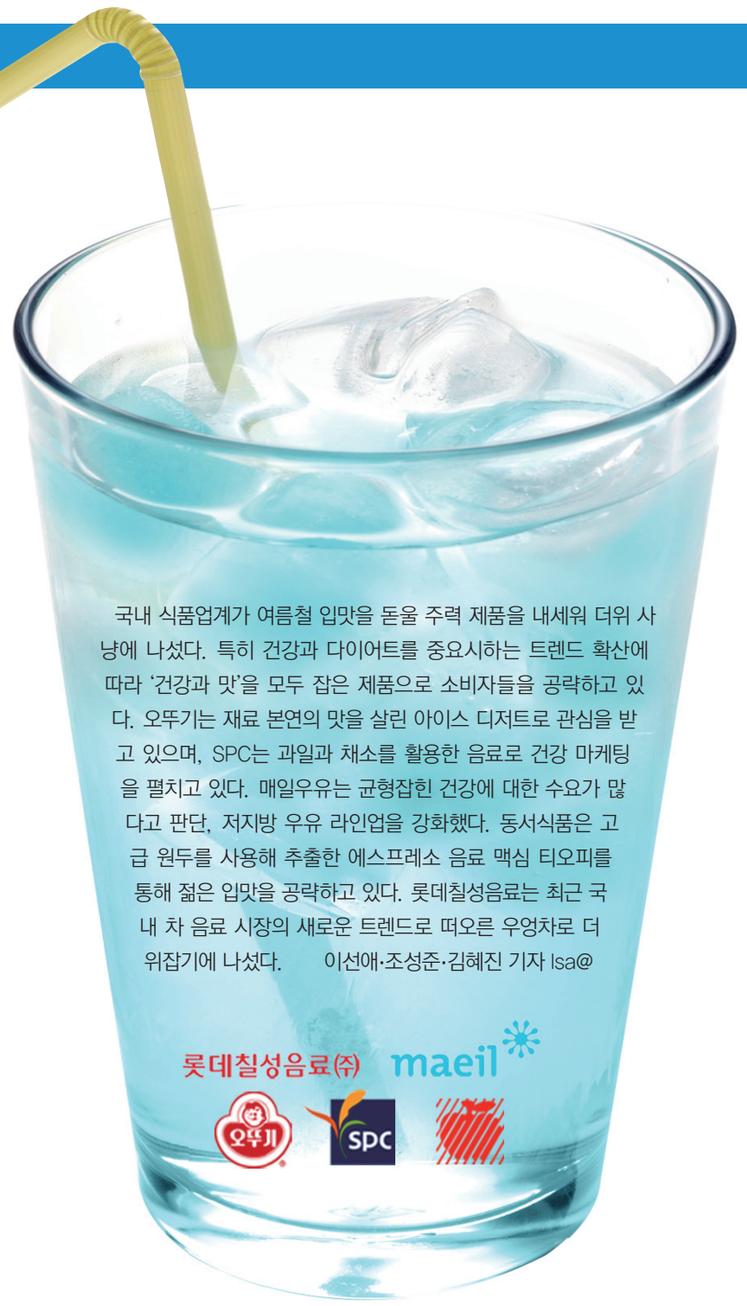
SPC그룹 잠바주스의 신제품 과일과 채소를 함께 활용한 주스와 스무디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체질 개선을 위한 건강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일과 채소를 조화롭게 블렌딩한 '과채주스'는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1~3일간 음식대신 마시는 식사로 애용된다. 이는 체질 개선과 몸을 관리하는 '주스 클렌즈(juice cleanse)' 프로그램의 식단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더운 날씨로 지치기 쉬운 여름철,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과 무기질 보충에도 효과적이다.

이에 잠바주스는 최근 과일에 케일, 시금치, 샐러리 등 3가지를 활용한 과채주스를 선보였다.

'케일오렌지파워'는 오렌지주스에 케일을 통째로 넣어 상큼하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 '애플앤그린'은 애플스트로베리 주스에 케일과 복숭아를 첨가했으며,'망고앤케일'은 케일, 치아씨드, 요거트를 망고주스, 망고와 함께 블렌딩했다.

잠바주스는 디톡스 채소로 알려진 시금치와 샐러리를 활용한 착즙 주스를 선보였다. '사과 시금치 레몬' 주스는 매장에서 착즙한 100% 사과와 레몬주스에 시금치를 갈아 넣었다. '사과 시금치 샐러리' 주스는 100% 착즙한 샐러리와 사과에 시금치를 갈아 넣은 주스로, 사과주스 맛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국내 식품업계가 여름철 입맛을 돋울 주력 제품을 내세워 더위 사냥에 나섰다. 특히 건강과 다이어트를 중요시하는 트렌드 확산에 따라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오뚜기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아이스 디저트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SPC는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음료로 건강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매일우유는 균형잡힌 건강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판단, 저지방 우유 라인업을 강화했다. 동서식품은 고급 원두를 사용해 추출한 에스프레소 음료 맥심 티오피를 통해 젊은 입맛을 공략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국내 차 음료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우엉차로 더 위잡기에 나섰다. 이선애·조성준·김혜진 기자 lsa@

롯데칠성음료㈜ maeil

건강하니 '두잔'

오뚜기 '아이스 디저트'

코코넛·레몬 등 과일껍질에 담긴 샤베트



'오뚜기 아이스 디저트'가 과일 본연의 맛과 향을 살려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출시된 '오뚜기 아이스 디저트'는 망고, 오렌지, 레몬, 코코넛, 파인애플, 코코아, 피나콜라다 등 총 7가지 맛이 있다. 과일 껍질에 샤베트를 담아 과일 느낌을 제대로 살린 제품으로 합성착색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과일맛 그 자체 그대로 살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레몬·파인애플·코코넛 등 실제 과일 껍질에 담겨 있는 것 또한 디저트로는 독특한 콘셉트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유독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실제 SNS 및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는 '오뚜기 아이스 디저트'를 접해본 소비자들의 시식 후기가 다양하게 올라 와 있다. 소비자들은 "과일 껍질에 샤베트가 담겨 있다는 점이 너무 신기하다", "달지도 않고 과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아주 좋다", "재미있는 콘셉트의 제품이다"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오뚜기는 빙과류 제품 성수기를 맞아 전국 주요 매장에서 '오뚜기 아이스 디저트' 시식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일유업 '저지방&고칼슘2%'

지방 반으로 낮추고 칼슘은 두배로



매일유업은 소비자의 균형 잡힌 건강을 위해 저지방 우유의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저지방 우유는 원유의 유당에서 나오는 고소한 맛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우유보다 '밋밋한 맛'이 단점이었다. 하지만 매일유업이 출시한 '저지방&고칼슘2%'는 우유 본연의 고소한 맛을 살려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 특징이다. 맛은 그대로지만 지방은 반으로 줄이고 칼슘은 두 배로 높여 우유 2잔으로 하루 권장 칼슘섭취량 700~1000mg을 채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균화 공정과 특수 포장으로 상온에서도 우유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패키지의 '저지방&고칼슘 2%' 멸균우유도 출시했다. 신제품 '저지방&고칼슘 2%'의 멸균우유는 초고온 멸균법을 이용해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냉장보관이 없어도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도록 처리했다. 매일우유의 최첨단 무균화 공정과 특수포장을 통해 상온에서도 우유의 신선함과 맛, 영양성분이 오래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저지방 우유 섭취를 유도하기 위한 '2-2-2'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2-2-2 캠페인은 '만 2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2% 저지방 우유를 하루 2잔 섭취하자'는 뜻이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지방과 고열량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현대인들이 매일 마시는 우유부터 지방 함량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는 취지다.

동서식품 '맥심 티오피'

고급 아라비카 원두로 진한 에스프레소



동서식품이 2008년 출시한 '맥심 티오피(T.O.P)'는 출시 이후부터 20~30대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국내 프리미엄 커피음료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다.

맥심 T.O.P는 'The Original Passion for coffee'의 약자로,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커피를 선사하겠다는 커피전문 기업으로서의 동서식품의 열정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대대적인 디자인 리뉴얼과 초콜릿모카 제품 리뉴얼로 브랜드 정체성 및 제품력을 강화했다. 이에 맞춰 신규 TV 광고 론칭과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도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전략이다.

맥심 T.O.P는 고급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해 샵 커피에 사용되는 방식 그대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만든다. 동서식품은 커피숍의 에스프레소 커피를 선호하는 20~30대 젊은층이 많아짐에 따라 에스프레소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린 커피음료를 개발했다. 동서식품은 기존의 드립 방식이 아닌 공기를 압축해 짧은 순간에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가압 추출기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이 기술 덕분에 맥심 T.O.P는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이 그대로 보존된다.

맥심 T.O.P는 콜롬비아, 케냐, 브라질 등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에서 재배한 아라비카 원두만을 사용한다. 아라비카 원두는 고산지대에서 주로 재배돼 키우기도 어렵고 손도 많이 가지만 깔끔한 맛과 풍부한 향 때문에 고급 원두커피에 주로 사용된다.

롯데칠성음료 '잘빠진 하루 초가을 우엉차'

풍부한 식이섬유 다이어트·변비예방 효과



롯데칠성음료의 '잘빠진 하루 초가을 우엉차'(500㎖ 페트 1종)가 국내 차 음료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 출시한 이 제품은 다이어트, 변비 예방 등에 효과가 있어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 주목 받고 있는 뿌리채소 우엉을 원료로 한 차 음료이다.

원료는 경남 진주에서 재배한 100% 국산 우엉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겉껍질까지 통째로 우려내 우엉 특유의 깊고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 제품은 0㎉ 차 음료로 살찔 부담없이 물처럼 편하게 마실 수 있다. 섬유질이 풍부한 우엉의 장점 그대로 식이섬유 1000㎎을 함유해 다이어트 및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200만개가 판매됐다. 월별로도 4월 60만개, 5월 70만개, 6월 70만개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엉에 대한 여성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상승하고 재구매율도 높아 앞으로 국내 우엉차 시장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오피스타운, 대학가 등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잘빠진 하루 우엉차'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시음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우엉차 저변 확대와 함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Market news

업황부진·분식회계 의혹… 건설 관련주 '장마전선'

베스트&워스트
7월 20~24일

7월 넷째 주(20~24일) 코스피지수는 전 주보다 30.83포인트(1.48%) 하락한 2045.96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다. 원화 약세로 유럽계 자금 위주로 이탈이 일어나며 외국인은 지난 한 주간 9741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현대엔지니어링의 분식회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시장 심리가 위축돼 기관도 2354억원 가량의 매물을 내놨다. 반면 개인은 1조2017억원을 매수하며 맞섰다.

코스닥지수는 전 주보다 3.03포인트(0.39%) 오른 776.26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한 주간 내놓은 410억원어치 물량을 기관과 개인이 받으며 소폭 상승했다. 지난주 기관과 개인은 각각 951억원, 167억원 상당의 순매수세를 보였다.

◇이유 없는 급등… 정치 테마주 '들썩' = 27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은 조일알미늄이다. 17일 1395원으로 장을 마감했던 조일알미늄은 20일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후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24일 2125원에 장을 마쳤다.

전 주 대비 52.33% 대폭 상승했지만 뚜렷한 호재는 없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5일 7박10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대권 행보에 첫 발을 떼는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덩달아 주가가 오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와 조일알미늄 회장 이재섭씨가 한양대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정치 테마주에 합류한 것이다.

또 다른 '김무성 테마주'인 수산중공업도 같은 기간 38.23% 올랐다.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 역시 한양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문만 무성한 테마주와는 달리 2분기 실적과 사업 현황에 근거한 상승세를 보인 종목이 많았다. 국제약품은 17일 종가 1395원에서 24일 2125원으로 38.32%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21일 국제약품은 2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12억6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2.9%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07억5600만원으로 2.9%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1억8100만원으로 1609.1% 증가했다.

21일 실적 발표에 이어 국제약품은 자회사 국제P&B의 중국 화장품 시장 공략 소식이 전해지며 23일과 24일에도 연일 강세를 나타냈다. 국제P&B는 25일 밤 10시 중국 장쑤성 국영방송국인(JSBC)의 뷰티전문채널에서 중국판 겟잇뷰티 '러치여신'을 통해 화장품 브랜드 '오리지널로우'와 '라포티셀' 홍보를 실시했다.

◇업황 부진+경쟁사 추가+분식회계 의혹… 건설주 '울상' = 업황 전망은 암울한데 대형사가 경쟁에 가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어 이웃 회사의 분식회계 의혹까지 엎친 데 덮쳤다. 이번 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건설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종목은 한일시멘트다. 한일시멘트는 17일 18만2500원이던 주가가 24일 13만5000원까지 떨어졌다. 한일시멘트는 23일 아세아시멘트와 컨소시엄을 이뤄 동양시멘트 주식인수 본입찰에 참여했지만 입찰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에 지지난주(13~17일) 내내 오르던 주가가 폭락했다. 아세아시멘트 역시 지난주 17.99% 하락했다.

계다가 레미콘 회사인 삼표가 동양시멘트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기존 시멘트사가 조정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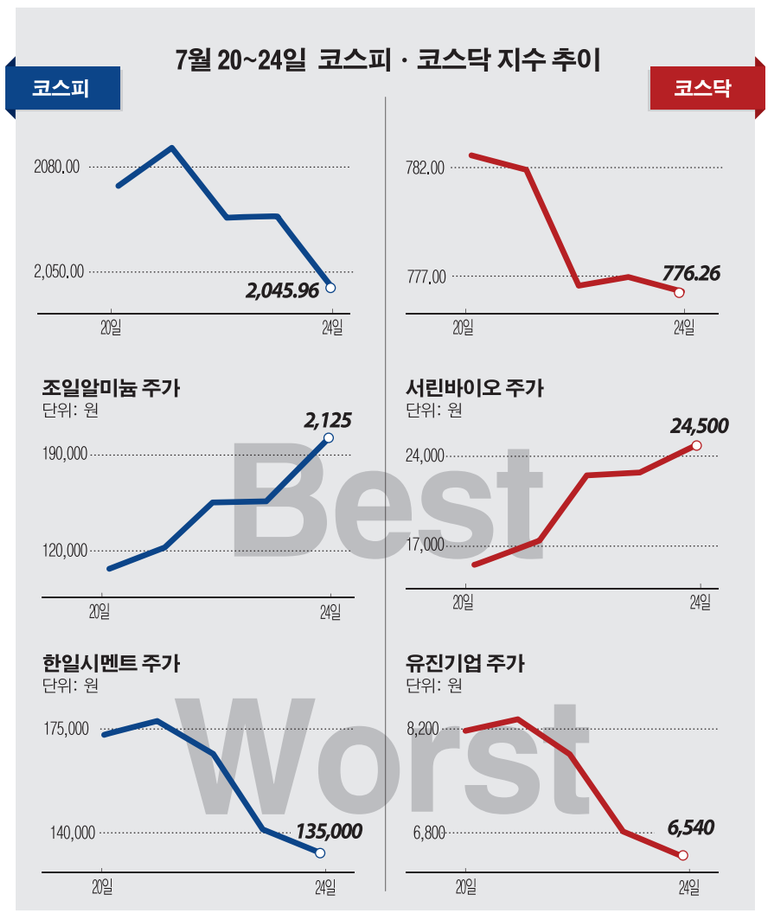
강승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멘트는 회사별 원가구조와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 시멘트사 간 이익이 대부분 가격에 연동된다"며 "삼표의 이번 동양시멘트 인수로 가격 경쟁이 발생한다면 시멘트사들이 영업적자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상장 계열사 현대엔지니어링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모회사인 현대건설이 지난주 19.28% 하락했다. 24일 현대엔지니어링 전 재경본부장(CFO)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원가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천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논란이 증시를 달군 데 이어 또다시 대형 분식회계설이 터지면서 동종업계 주가도 얼어붙었다. 계룡건설과 삼환까뮤는 지난주 각각 16.92%, 16.09% 하락세를 보였다.

정다운 기자 gamja@

김무성 테마주 '조일알미늄' '수산중공업' 이유없는 급등
'국제약품' 2분기 영업이익 1793% 증가에 38.32% 올라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각각 26.03% 17.99% 떨어져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24일 시가총액	종가(원) 7월 17일	종가(원) 7월 24일	주가등락률(%)
조일알미늄	148	1,395	2,125	52.33
CJ씨푸드	194	3,865	5,400	39.72
국제약품	109	4,750	6,570	38.32
제일연마	124	8,930	12,350	38.30
수산중공업	138	1,975	2,730	38.23
파미셀	382	5,010	6,830	36.33
국동	97	15,150	20,600	35.97
KGP	105	2,100	2,800	33.33
일진홀딩스	550	8,400	11,150	32.74
조흥	117	148,000	195,500	32.09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24일 시가총액	종가(원) 7월 17일	종가(원) 7월 24일	주가등락률(%)
삼환까뮤	66	17,400	14,600	-16.09
계룡건설	96	13,000	10,800	-16.92
OCI	2,373	120,500	99,500	-17.43
웅진에너지	125	2,050	1,685	-17.80
아세아시멘트	391	144,500	118,500	-17.99
현대건설	3,730	41,500	33,500	-19.28
씨아이테크	43	1,535	1,225	-20.20
성신양회	362	20,500	15,400	-24.88
한미반도체	259	13,600	10,200	-25.00
한일시멘트	1,019	182,500	135,000	-26.03

※자료 : 에프앤가이드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24일 시가총액	종가(원) 7월 17일	종가(원) 7월 24일	주가등락률(%)
서린바이오	137	14,650	24,500	67.24
SNH	89	2,980	4,820	61.74
플레이위드	47	10,400	16,300	56.73
한국가구	99	42,250	65,700	55.50
일신바이오	177	2,600	3,995	53.65
이상네트웍스	107	8,410	11,900	41.50
솔본	276	7,200	10,100	40.28
액토즈소프트	550	35,700	48,600	36.13
우성I&C	70	1,585	2,150	35.65
위메이드	1,097	49,200	65,300	32.72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24일 시가총액	종가(원) 7월 17일	종가(원) 7월 24일	주가등락률(%)
코이즈	31	3,620	3,155	-12.85
원익머트리얼즈	440	81,500	71,000	-12.88
넥스트BT	85	2,620	2,270	-13.36
용현BM	55	1,510	1,305	-13.58
에너지솔루션	61	4,850	4,190	-13.61
국보디자인	169	26,150	22,550	-13.77
동원개발	509	65,000	56,000	-13.85
예스24	241	16,650	14,000	-15.92
SK컴즈	434	11,950	10,000	-16.32
유진기업	484	8,340	6,540	-21.58

※자료 : 에프앤가이드

◇삼성 바이오 수혜주 '반짝' = 27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한주간 코스닥시장에서는 삼성 바이오 산업의 수혜주로 꼽힌 기업들의 성장세가 돋보였다. 가장 많이 오른 서린바이오는 17일 1만4650원 종가에서 24일 2만4500원으로 무려 67.24% 올랐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22일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열린 수요사장단회의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바이오 산업이 더욱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삼성의 바이오가 제2의 '삼성전자',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바이오 부문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53.65%), 솔본(40.28%) 등 관련주가 급등했다.

서린바이오는 이달 7일 한 매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과 관련된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신바이오는 생명공학·식품·제약업체의 연구와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초저온냉동고, 동결건조기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바이오장비 전문회사로 지난 2011년에 삼성에 동결건조기를 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주가급등과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조회공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24일 답변했다.

솔본 역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원과제를 통해 치매·알츠하이머 등의 연구지원과 연관된 적이 있어 주가가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솔본의 100% 자회사인 솔본인베스트가 20% 지분을 보유한 와이브레인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증상 완화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한 후 현재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대규모 첨단의료기기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계 게임회사로의 인수와 신작 발표 등으로 게임업체들이 상승률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플레이위드는 룽투게임즈로의 인수설이 퍼지면서 지난주 56.73% 급등했다. 23일 한 매체는 투자은행(IB)업계를 인용해 중국 회사 룽투게임즈가 한국 자회사 룽투코리아(옛 아이넷스쿨)를 통해 플레이위드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같은 날 오후 룽투코리아 관계자는 "플레이위드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주가는 3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게임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각각 36.13%, 32.72% 올랐다.

◇인수전 패배에 분식회계 여파… 코스닥까지 점령 = 동양시멘트 인수 실패와 현대엔지니어링의 분식회계 의혹 여파가 코스닥 건설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유진기업-유진PE 컨소시엄으로 동양시멘트 지분 입찰에 나섰던 유진기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자리에서 밀리며 21.58% 주가가 하락했다. 유진기업은 ㈜동양의 보유주식 55%에 대해서는 3순위 협상대상자로, 동양인터내셔널(주)가 보유한 주식 19%에 대해서는 2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제기된 현대엔지니어링의 분식회계 의혹이 동원개발, 국보디자인 등 건설업체들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면서 각각 13.77%, 13.61% 하락했다.

최근 건설업종 자체의 업황이 부진한 영향도 있었다. IBK투자증권은 19일 건설업종에 대해 최근 주가 수준이 이미 국내 부동산 시장 성장세를 반영하고 있다며 투자의견 '중립'을 제시했다.

김미송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건설업지수가 연초 이후 코스피 지수 대비 20% 상승했다"며 "향후 국내 주택시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데 반해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감소 영향으로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한다 해도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다운 기자 gamja@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삼성 수혜주 67.24%·53.65%↑
'플레이위드' 퉁투게임즈에 인수설 퍼지며 56.73% 급등
'유진기업' 동양시멘트 우선협상대상자 밀리며 21.58%↓

'소통의 현장'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맨의 자기계발 필독서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의 창조자들
메신저
MESSENGER



당신은 그 사람의 메시지에 명중됐다!

빌리 브란트, 마틴 루터 킹, 스티브 잡스‥ 시대와 역사의 흐름이 바뀐 순간에는 항상 그들의 '메시지'가 있었다!

〈공피고아〉, 〈처신〉 이남훈 작가가 16년간의 저술 경험을 토대로 '메시지의 힘'을 통찰한 책이다. 그는 '메시지'의 중요함을 알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시대를 이끈다고 말하며, 메시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정의했다. 메신저는 상대방에게 맞는 적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능력으로 업(業)에서 인정받고 대중의 지지를 얻고 시대와 역사의 흐름마저 좌우했던 사람들이다. 소통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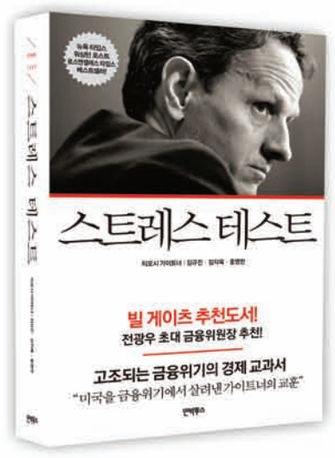
당신의 말은 먹히는가? 당신의 글은 읽히는가?
당신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가?

이남훈 지음 | 295쪽
알에이치코리아 | 값 13,000원

문의 : 02-6443-8838

뉴욕 타임스·워싱턴 포스트·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베스트셀러!

글로벌 금융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스트레스 테스트
STRESS TEST



빌 게이츠 추천도서!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 추천!
고조되는 금융위기의 경제 교과서
"미국을 금융위기에서 살려낸 가이트너의 교훈"

티모시 가이트너 | 김규진·김지욱·홍영만 양장 | 664쪽 | 인빅투스 | 값 25,000원

각국 정부가 향후 닥칠지 모르는 금융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이자 내수 부진, 심각한 가계 부채로 인한 '한국의 금융위기' 대응 해법서!

문의 : 02-3446-6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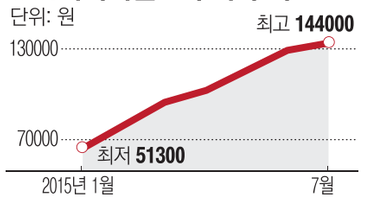
◉ 출판사 참여문의 ☎ 070-8868-2375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매각 앞둔 OCI머티리얼즈… 상반기 실적 '햇살'



OCI머티리얼즈 주가 추이



영업이익 441억·652.6% 늘어… NF3 판매가 회복 영향
미뤘던 제5공장 증설 재개… 日 기업과 460억 공급계약도

OCI머티리얼즈가 매각을 앞두고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한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다. 신규수주 역시 이어지고 있어 향후 성장세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OCI머티리얼즈는 연결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224억4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9.6%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753억100만원으로 57.2%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68억4100만원으로 64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연결기준으로는 매출 1504억원, 영업이익 441억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각각 64.1%, 652.6% 증가했다. 외형과 수익성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삼불화질소(NF3)의 판매가격이 회복세에 들어선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OCI머티리얼즈는 "올 2분기 중국법인에서 NF3 판매가격을 10%가량 인상하면서 이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앞으로 NF3 수급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그동안 잠정 보류했던 NF3 제5공장 증설투자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종료 후 NF3의 생산규모는 총 8600톤이 된다.

OCI머티리얼즈는 2분기 실적 공시와 함께 해외 기업과의 장기 수주 계약도 발표했다. 이 회사는 일본 기업 Japan Material과 460억원 규모의 삼불화질소(NF3) 장기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21.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계약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한편 OCI는 자회사 OCI머티리얼즈에 대한 매각을 진행 중이다. 태양광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자 하는 취지다. 매각대상은 OCI 보유 지분 49.1%다. 매각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CS)이 이달 주요 인수후보들을 상대로 인수의향서(LOI)를 받고, 다음달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인 OCI가 매각을 결정함에 따라, 인수주체에 따라 동사의 사업간 시너지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OCI머티리얼즈의 최근 업황 및 실적 회복을 고려해 높은 매각 가격이 형성될 경우, 이것이 매각 과정 중 동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송영록 기자 syr@

아가방앤컴퍼니, 유아 스킨케어로 中 적신다

2015 상하이 유아용품박람회
中 식약처 인증 '퓨토'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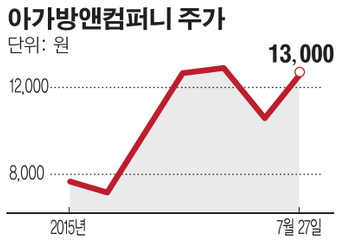
아가방앤컴퍼니가 프리미엄 유아 스킨케어 '퓨토'로 중국 공략엔 나섰다.

아가방앤컴퍼니는 지난 22~24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2015 상하이 국제 유아용품박람회'에 참가해 프리미엄 유아 스킨케어 '퓨토(Putto)'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이 박람회는 각국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브랜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유아용품박람회다. 아가방앤컴퍼니는 지난 2013년 이 박람회를 통해 중국 내 퓨토 첫 론칭쇼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 이후, 중국 각 지역 바이어 발굴과 영업망 확대를 위해 매년 참가하고 있다.

아가방앤컴퍼니는 올 해 42㎡ 크기의 단독 전용 전시관을 통해 3세 이상 유아용 '퓨토 테라피'와 프리미엄 라인 '퓨토 시크릿' 전 제품을 선보였다. 퓨토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중국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모았으며,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동남아 등 여러 나라의 바이어들도 전시관을 찾아 연일 성황을 이뤘다.

아가방앤컴퍼니 주가



특히 올해에는 아가방앤컴퍼니의 최대주주인 중국 랑시그룹의 지원으로 박람회가 보다 원활히 진행됐다. 언어 소통이 자유롭고 중국 시장과 유통업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랑시그룹 현지 직원들이 전시 기간 내내 참석해 대리상 및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강유지 아가방앤컴퍼니 부문장은 "2013년부터 '상해 국제 유아용품박람회'를 통해 중국 내 대리상 및 영업지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에 퓨토를 입점시키고 있다"며 "특히 올 해 랑시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퓨토의 인지도를 보다 높이고 제품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발판으로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퓨토는 물 대신 천연약용추출물을 100% 사용해 아토피 및 민감성 유아 피부 개선에 효과적인 제품이다. 지난 2009년 국내 출시 후 현재 중국, 미국, 홍콩, 대만, 싱가폴 등 해외 11개국에 진출해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아이센스, 2분기 실적 팡파르… 사상 최대 분기 매출

매출 266억9300만원… 9.7% ↑
아크레이사 공급 증가 수익 견인

아이센스가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을 달성했다.

글로벌 바이오센서 전문기업 아이센스는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이 266억9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7억3700만원으로 39.4% 늘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48억3900만원으로 7.7% 증가했다.

올해 2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487억1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늘어났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101억5300만원, 80억6500만원으로 각각 24.6%, 5.8% 증가했다.

이러한 실적상승의 배경은 △고부가 제품 라인업 강화 △아크레이사 공급 물량 확대 △송도공장 생산량 증대에 따른 원가절감 등으로 요약된다.

아이센스 관계자는 "지난 1분기부터 이어진 아크레이 물량 증가는 송도 공장의 가동율 증가에 따른 원가율 하락과 이익률 개선효과로 이어져 수익성 강화의 견인차가 됐다"며 "최근 출시한 신제품 혈액가스분석기, 당화혈색소측정기 등 고부가 제품 다변화에 따른 사업 영역 확대 및 아직 초기 수준에 있는 중국 법인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이센스는 지난해 중국법인 설립을 통해 판매망 확대에 나서며 지속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확보하게 됐다. 향후에도 인도 및 칠레법인 등 해외법인을 통한 현지 영업력 강화를 통하여 해외 시장 공략에 주력할 방침이다.

차근식 아이센스 대표는 "하반기 중국 공장 설립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올해를 확실한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의류 브랜드 업체-제조업체 연결해 생산·판매

우성, 브랜드 에이전시 도전

생산설비 없는 최대 무역회사
'리앤펑' 모델로 하반기 신사업

패션그룹형지의 자회사인 남성복업체 우성I&C가 세계 최대 SCM(공급사슬 관리) 기업인 리앤펑을 모델로 신사업 진출에 나선다. 우성I&C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신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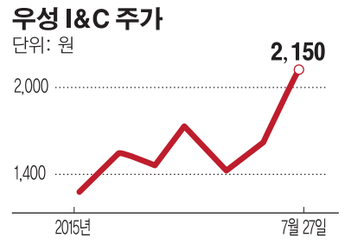
27일 우성I&C에 따르면 우성I&C는 오는 9월부터 의류수출 대행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다. 우성I&C가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은 일종의 브랜드 에이전시 사업으로 의류 브랜드 업체와 제조업체를 연결해 생산과 판매를 진행하게 된다.

우성I&C 측은 세계적인 소비재(주로 의류) 물류·유통업체인 리앤펑이 사업모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리앤펑은 코카콜라, 디즈니, 토이저러스, 막스앤스펜서 등의 상당수 글로벌 의류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소비재 유통업체이지만 자체생산설비를 단 한 개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자체생산설비 없이도 리앤펑은 확보하고 있는 공급자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최대 무역회사로 자리잡았다. 현재 리앤펑은 1만5000개 이상의 의류 공급업체를 확보하고 있으며 300여개 글로벌 업체에 의류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성 I&C 주가



우성 I&C 관계자는 "리앤펑과 같이 SCM(공급 사슬 관리)와 아웃소싱을 통해 부가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재 리앤펑의 출신의 정인호 부사장을 새롭게 영입했으며 정 부사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사업팀이 향후 글로벌 수출을 대행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브랜드로부터 수출 오더를 받아 모기업인 패션그룹형지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베트남 C&M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성 I&C 측은 이를 위해 오는 9월 1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수출 및 봉제 알선과 의류수출대행업 등을 신사업 목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문선영 기자 moon@

이지웰페어, 2분기 영업익 42억

창사 이래 상반기 최대실적 달성

이지웰페어는 지난 2분기 전체 거래액 1423억원, 매출액 194억원, 영업이익 42억원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기준, 창사 후 최대 실적을 달성한 수치로 전년 동기 대비 전체 거래액은 12%, 매출액14%, 영업이익 30%가 각각 증가했으며, 이 중 영업이익은 전년도 전체 영업이익 49억원의 약 85%에 해당하는 42억원을 이미 기록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지웰페어는 2003년 회사를 설립한 이래 매년 지속 성장 중이다.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 역직구사업 진출 등 비용투자 요인 발생과, 2분기 메르스 여파로 인한 소비 침체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회사 측은 올해 상반기 실적증가 요인으로 넷마블게임즈, 아주그룹, 강원도청 등 올해 신규로 오픈한 고객사와 기존 고객사를 통한 안정적인 거래실적이 동반 상승한 효과와 함께, 모바일 이용 증가, 복지 플랫폼 커머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지웰페어는 복지포털 상품 및 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 여행본부 신설을 통해 차별화된 전용 특가 여행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등 고객유입 증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왔다.

김상용 대표이사는 하반기 전망 관련 "기존사업은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주력하고, 하반기 런칭한 중국 역직구 사업은 초기 서비스 안정화를 거쳐 모바일 채널 오픈과 함께 본격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슈피겐코리아 '터프아머'… 미군도 OK!

플래그십 스마트폰 케이스
'미국 군사 규격 인증' 획득

슈피겐코리아 대표 제품인 터프아머가 미국 군사 규격 인증을 획득했다.

글로벌 모바일 패션 비즈니스 전문기업 슈피겐코리아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케이스 모델 '터프아머'가 미국 국방부의 기준으로 제품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미국 군사 규격(MIL-STD 810G)' 인증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미국 군사 규격'은 미국 국방부에서 제정한 규격으로 IT·전자기기 및 액세서리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군용으로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군용 규격인 만큼 내구성 및 정밀도 등 품질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며 심사에 통과한 제품은 '미국 군사 규격' 인증을 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회사 측은 "'터프아머'는 이번 인증에서 진행된 진동, 낙하, 충격 등 총 3가지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받으며 품질력을 검증 받았다"며 "특히 122㎝ 높이에서 제품을 떨어뜨리는 자유낙하 실험에서는 총 26회의 드롭을 하는 동안 기기가 어떠한 손상도 받지 않을 정도의 탁월한 완충효과를 선보였다"고 말했다.

슈피겐코리아의 '터프아머'는 강한 보호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케이스를 부드러운 TPU소재에 하드커버를 덧씌운 듀얼레이어 구조로 설계했으며 특허기술인 '에어쿠션'을 모서리 4곳에 적용해 완충효과를 높였다. 내부는 '스파이더웹' 패턴으로 충격을 더욱 유연하게 흡수하도록 디자인 했다.

슈피겐코리아은 아이폰은 물론 갤럭시 및 아이패드 등 다양한 '터프아머'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품 패키지에 인증번호가 담긴 마크를 부착할 계획이다.

국봉환 슈피겐코리아 본부장은 "대표적인 케이스 라인업인 터프아머가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미군용 테스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며 그 안전성과 우수한 품질력을 공식적으로 입증 받았다"며 "슈피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스마트 모바일 라이프를 도울 수 있는 고품질 제품을 다채롭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메타바이오메드 흑자전환 성공

상반기 영업익 33억5000만원

메타바이오메드는 올해 상반기 연결 매출액 350억8000만원, 영업이익 33억5000만원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7%, 926% 상승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25억5000만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메타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던 계열사 메타네트웍스가 사업다각화 및 원가절감 운동 등을 통해 적자폭을 크게 줄여, 올 상반기에는 4억8000만원 적자에 그쳤다"며 "올해에는 흑자전환을 목표로 메타바이오메드와의 의료 분야 협업을 강화하면서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네트웍스는 메타바이오메드가 2012년 인수한 통신장비 제조업체로, 전신은 베가텍이다. 메타바이오메드의 바이오 기술과 메타네트웍스의 IT 기술 간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지향적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시너지를 더욱 극대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송영록 기자 syr@

SP 주간동향

'보루네오, 전용진 회장 경영권 강화' 보도에 7.51% 올라

7월 넷째 주 본지 유료회원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스탁프리미엄(www.etoday.co.kr/stockpremium)에는 종목돋보기 9개, 공시돋보기 4개 등 13건의 기사가 게재됐다.

이 가운데 당일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사는 14일 〈보루네오, 전용진 회장 경영권 강화나서〉였다. 해당 기사가 보도된 당일 보루네오의 주가는 7.51% 상승했다.

이 기사는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보루네오의 최대주주가 지분를 통해 경영권 강화에 나선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4년간 최대주주가 6차례 바뀌는 등 취약한 지분구조로 인해 경영권 분쟁이 끊이질 않았던 보루네오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기존 8.51%에서 13.41%까지 늘린다고 밝힌 것.

회사 측은 "이번 최대주주의 지분 매입으로 경영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SP동향 종목돋보기 기사 리스트 (종가기준)

기사명	당일 주가 등락률	주간 주가 등락률
와토스코리아, 1억6600만 인구 방글라데시 등 해외 신시장 진출 속도	보합	-8.52%
대유신소재, 기아자동차 신차 공급업체 선정…"총 1000억원대 매출 기대"	1.71%	1.73%
유지인트, 신개념 '메탈케이스 곡면 MCT' 내달 공급 전망	-0.26%	5.54%
YG플러스, 伊커피브랜드 세가프레도 지분투자…커피사업 본격화	2.80%	-9.53%
삼성출판사 자회사, 中 샤오미와 협력 핑크퐁 시리즈 이달말 출시… 중국 5대 마켓도 노린다	-0.47%	3.31%
외국인, '텐센트+소셜카지노' 장착한 파티게임즈에 100억원 쌌다	0.51%	3.57%
아비코전자, 국내 SSD 제조사에 LPP 파워인덕터 공급	0.07%	5.66%
보루네오, 전용진 회장 경영권 강화나서	7.51%	13.31%
삼영화학공업, '감사의 난'…회장, 경영 참여 막아 '경영권 분쟁' 전운	1.35%	3.01%

YG플러스의 신사업 진출 소식을 전한 〈YG플러스, 伊커피브랜드 세가프레도 지분투자…커피사업 본격화〉 기사도 주가를 끌어올렸다. 기사가 출고된 당일 YG플러스의 주가는 장중 8% 이상 올랐으며 종가 기준 2.80% 상승G플러스는 최근 이사회 결의에서 세가프레도에 사업권에 대한 지분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세가프레도(Segafredo)는 유럽 지역에만 37개국에 진출한 이탈리아 정통 커피 브랜드로써, 브라질과 코스타리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농장을 보유하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10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2006~2015 한국생산성본부 국가고객만족도 세탁기 부문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

세탁기를 다시 발명하다

세계 최초, LG가 세상에 없던 이층세탁기를 선보입니다
분리세탁, 동시세탁, 공간절약, 시간절약!
이제 세탁은 놀랍도록 편해졌고, 당신의 시간은 그만큼 더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이 깜짝 놀란 세탁기의 혁명, 트롬이 또 한번 해냈습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이미 15kg이상 트롬을 갖고 계시다면
하단에 미니워시만 구입해서 설치해보세요
당신의 세탁기도 이제 이층세탁기가 될 수 있습니다

LG전자
분리세탁 | 별도 세탁이 필요한 옷이나 적은 양의 빨래는 나눠서 사용하세요
공간절약 | 세탁기가 위 아래로 결합되어 있어 한 대의 공간만 차지합니다
동시세탁 | 위 트롬 아래 통돌이 - 두 대의 세탁기로 동시에 세탁하세요
시간절약 | 두 번 나눠 세탁할 필요가 없어, 세탁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LG TROMM 트윈워시

트윈워시 구매고객 대상 캐시백 행사
■ 하나. 트윈워시 세트(트롬플러스 + 미니워시) 구매 시 캐시백 20만원 혜택 | ■ 둘. 트롬플러스 또는 미니워시 구매 시 캐시백 10만원 혜택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LG 베스트샵 매장에서 확인하세요